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7월 28일)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예수재’ 문화재 지정 차별된 가치 부각을

생전예수재 문화재 지정 어떻게 진행되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영산재(靈山齋, 국가무형문화재 50호), 수륙재(水陸齋, 국가무형문화재 125·126·127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의례인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무형문화재로 보존 전승하는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앞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수륙재, 영산재와 달리 생전예수재가 지닌 차별화된 의미를 보다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올해 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계획으로 충북도에서 신청한 단양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종목지정 조사 방침을 밝힌데 이어 6월 생전예수재 종목지정방식 및 관리방안 조사에 대한 용역조사 시행을 공고했다.

현재 불교 의례 중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영산재, 수륙재, 불복장 작법이다. 영산재는 태고종 봉원사가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를 통해, 수륙재는 조계종 진관사가 진관사수륙재보존회, 삼화사가 삼화사수륙재보존회를 구성해 보존 전승하고 있다. 생전예수재는 말 그대로 ‘생전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 의식으로 죽은 뒤에 실천할 불사를 살아 있을 때 미리 닦아 사후 명복을 빌기 위한 불교의식이다.

2015년부터 추진 움직임, 지정 가시화

무형문화재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심사와 토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생전예수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다. 영산재 뒤풀이 의식인 삼회향놀이의 충북무형문화재 등재를 2012년 마무리한 천태종 구인사는 범음범패연구보존회를 구성, 수륙재 무형문화재 등재 이후 생전예수재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등재 추진을 본격화했다. 범음범패연구보존회는 2018년 6월 구인사에서 충북도 문화재심사위원을 초청 생전예수재 시연회를 연데 이어 올해는 8월 20일 입재, 27일까지 시연을 진행했다.

구인사 인덕 스님은 “본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리허설 단계로 보면 된다. 지난해 설행된 행사서 보완사항이 제기돼 올해 대거 보완했다”고 밝혔다.

천태종과 함께 조계종과 태고종에서도 생전예수재 등재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서울 봉은사를 중심으로 현재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설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 생전예수재 설행기록이 있는 봉은사는 2016년 생전예수재보존회를 구성한 이후 올해 1월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까지 이끌었다. 2018년 8월 종목지정을 앞두고 대규모 생전예수재를 설행한데 이어 올해도 8월 19일 입재, 49일간 생전예수재를 설행한다.

태고종 양주 청련사의 경우 올해 1월 생전예수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런 움직임에 문화재청은 6월 종목지정방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산재와 같이 단일화된 종목지정, 혹은 수륙재와 같이 개별화된 종목지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지정방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종목, 종파별 특징이 있어 모든 방법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불교의례 가치 재인식 기회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생전예수재는 영산재, 수륙재와 달리 본인 및 가족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지내는 재라는 특징이 있다. 시왕신앙이 중심신앙으로 사후 심판에 대한 부분이 주된 내용”이라며

봉은사·구인사·청련사 등
문화재 지정 움직임 ‘활발’
문화재청 지정방식 용역 중
지자체 설행기관 지정 목전

권선징악 통함 참회 의미
“불교의례 사회적 가치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자”

“기복이 아닌 자기 성찰의 의미로 생전예수재를 통해 사회적으로 권선징악적 가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날 생전예수재의 설행에서 이 같은 다른 의식과 달리 성찰과 참회, 권선징악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도 “사회공동체의식 함양이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수륙재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륙재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의식이 높은 가치를 지녔음에도 문화재 지정이 늦은 것은 불교 안팎에서의 의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교 내부적으로 불교의례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다시금 높이고 새롭게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생전예수재 설행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한 수행의 일환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부처님 생애 뮤지컬로 본다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뮤지컬 싯다르타’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제작사인 ㈜엠에스엠시는 8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작발표회를 개최하고 주요 넘버와 배우, 스태프들을 소개했다. 사진은 출연배우들이 주요 넘버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박재완 기자

중앙신도회 해외구호에 박차

한국자비공덕회와 네팔 행복자전거 프로젝트 전개

11월 30일까지 800만원 모연
100대 네팔 칸첸중가로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자전거를 유일한 통학수단으로 사용 중인 네팔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보낸다.

날마다좋은날은 11월 30일까지 네팔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행복자전거 100대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 800만원 모연에 나선다.

날마다좋은날은 2018년 엄홍길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파쁠루(치왕 장추구리 굼바) 동자승 기숙사 건립을 진행한 바 있다.

네팔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구호로는 처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자비공덕회(대표 지상)와 함께 진행한다. 행복자전거 100대가 보내지는 네팔 칸첸중가 지역은 인도와의 접경지역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다. 이 지역 청소년들은 사실상 통학수단으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날마다좋은날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국자비공덕회는 지상 스님과 故명조 스님이 설립한 단체다. 당시 심장병을 앓던 故명조 스님은 “내 몸만 보전하는 게 송구스럽다. 남을 위해 귀한 시주금 쓰고 싶다”며, 매월 1회 수유동 향운사에서 기도법회를 조직하고 소액의 기부금을 모아 네팔 돕기를 시작했다. 자비공덕회는 2010년부터 네팔 칸첸중가에서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컴퓨터 및 칠판 등 교육자재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자전거 프로젝트는 2017년 10월 처음으로 실시했다.

날마다좋은날 관계자는 “미얀마와 라오스 등지에서 국제구호를 진행한데 이어 네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오는 연말까지 자전거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비공덕회 대표 지상 스님은 “우리가 심은 자비의 씨앗이 비록 작지만 네팔 아동들에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큰 자산이 된다”며 “작은 자비심이 전해져 아이들의 심신까지 건강하게 하고, 밝은 세상으로 이끌자”고 당부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진각종, 종단발전협의회 10인 구성

스승·신교도 5인씩… 협의회장엔 덕운 정사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이 종단 스승과 신교도를 중심으로 종단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종단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익정)가 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승과 신교도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8월 19일 진각문화전승원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종단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협의회에는 스승 측에서 통리원 기획실장 덕운 정사, 포항교구청장 효명 정사, 종의회의원 법운 정사, 총무국장 선덕 정사, 기획국장 원영 정사가 참여한다. 신교도 측에서는 상륜심인당 정명(배도순), 능인심인당 이정(허협), 보원심인당 청명(이헌환), 대원심인당 정현(이덕기) 각자와 실상심인당 지법명(이미향) 보살이 참여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협의회장으로는 기획실장 덕운 정사가 선출됐다.

종단발전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총인 경정 정사와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차례로 예방하고, 종단의 미래비전과 제도적 개선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문의 02-365-7747
전화 www. 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9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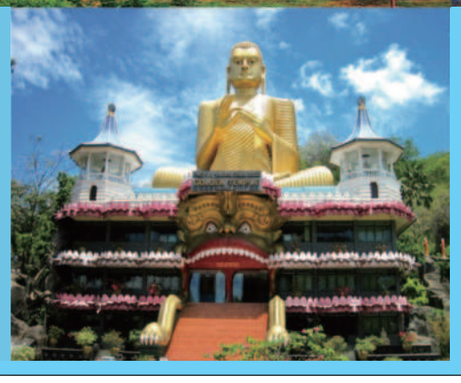


천불천탑 미소의 나라
미얀마





8대 성지순례
인도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
-라즈기르-바이샬리
-쿠시나가르-룸비니
-쉬라바스티-상카시아



남방불교의 핵심
스리랑카
콜롬보-아누라다푸라
-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
-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
-콜롬보



4대 성지
중국
아미산 오대산
구화산 보타산

“비구니 역량결집, 한국불교 미래”

본각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출마의 변 밝혀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본각 스님은 8월 19일 전국비구니회장 후보서류를 접수한 뒤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라는 제목의 출마의 변을 발표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 개개인의 역량은 세계적으로 내세

육문 스님 8월 15일 입후보
본각 스님은 19일 등록 마쳐

울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회 각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구니스님들이 땀 흘리는 데 비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더디다”고 강조했다.

본각 스님은 이어 “우리는 불교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추진력을 높일 때”라고 현재 한국불교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개별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결집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국 비구니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지금 이 시기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전환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전국비구니회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민주적이고 개방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출가자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비구니 복지방안 모색 △초심행자와 사미니 교육 및 수행환경 개선 △비구니회관 편의 제공 및 활용방법 연구 △사회적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 △한국불교와 비구니승가의 세계화 △비구니승가연구소 활성화 및 비구니역사 기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본각 스님은 “우리 선대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는 잘 기억하고 보존하며, 동시에 미래와 후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와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능한 비구니스님들이 주축이 돼 더 늦기 전에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할 때가 됐다. 본인에게 무겁고 중요한 소임을 걸머지라고 경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각 스님과 함께 차기 회장후보로 거론되던 현 회장 육문 스님은 지난 15일 입후보를 마치고, 현재 출마의 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육문 스님은 기호 1번, 본각 스님은 기호 2번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불교성전편천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기획위원 · 전문위원들과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오른쪽 네 번째).

불교성전편찬위, 분야별 전문가 위촉

8월 21일 원묵 스님 · 박영동 교법사 등 8명

조계종본 불교성전 편찬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추가로 합류했다. 불교성전편찬추진위(위원장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는 8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기획위원에 박영동 동대사대부여고 교법사가, 전문위원에 종회의원 원묵 스님, 동국대 철학박사 휴담 스님, 동국대 철학박사 도문 스님, 은유와마음연구소 연구위원 효신 스님, 이진영 동국대역경원 연구원, 권기찬 조계종 포교연구실 연구원 등이 추가로 위촉됐다.

불교성전편찬위원장 지홍 스님은 “이 시대가 바라는 불교적 가치를 충분히 불교성전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편찬위원회에 합류시켰다”며 “불교성전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계층까지 전 계층이 쉽게 읽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간화선도 경쟁해야 조계종 산다”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
조계종 화합과혁신위 토론회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그동안 불교계는 기도와 제사에 의지해왔지만 세대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미래세대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를 찾는다. 붓다가 제시한 나침반을 따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과 명상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조계종은 답을 찾을 수 있다. 간화선의 현대화다. 진정 수승한 수행법이라면 명상 시장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탈종교화에 따른 종교의 위기를 논하는 시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인 간화선을 강조하는 조계종이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수행법과 경쟁을 통해 현대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합과혁신위원회는 8월 21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조계종의 전환,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개최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는 불교의 미래



조계종 화합과혁신위원회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현장. 이날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모습’을 주제로 각 발제자들이 개인의 견해를 밝혔다.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 주제로
수행법의 현대적 진화 제안해
김성철 · 김재영 · 인경 스님 발제
공동체 · 불교운동 중요성 강조

전략을 ‘수행의 보편화’로 꼽았다.

백성호 기자는 “현대인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현실문제 해결’, 둘째는 ‘깨달음이나 해탈 혹은 구원’, 셋째는 ‘강박증이나 우울증 등 심리치료’다. 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현실문제 해결”이라며 “불교의 솔루션은 불교가 처음 생겨난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제해결이다. 불교가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이런 본질을 위한 참선과 명상을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기자는 이어 불교명상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현대인에게 전하면서도 종교적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방법을 조계종이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백 기자는 “조계종은 간화선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글로벌 불교의 수행법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 간화선도 이들과 경쟁하며 진화해야만 미래사회에서도 살아남는 수행법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찾아오는 이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참구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쌍방향소통을 중심으로 안목을 갖춘 이가 문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기자는 또한 불교용어를 쓰지 않고 불교명상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종단 차원에서 키워내고, 제도나 격식이 아닌 불교 본질인 명상에 중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는 △참회기도 중심 법회 △대사회적 시민운동 보조 △관혼상제 의례에 불교적 의미 부여 △호계주 보급운동 △재가불자 등급 부여 등을 불교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성철 교수는 “불자가 되고 싶어도 직업적으로, 생활에서 지킬 수 없는 계율이 있어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고민”이라며 “재가불자가 5계를 지킬 때 만행자, 4계만 지킬 때 다분행자, 2~3계를 지킬 때 소분행자, 1계만 지킬 때 일분행자 등으로 재가불자의 등급을 구분해 계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불교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는 사부대중공동체가 보살부흥운동을 전개하고 권력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은 단일 행자교육원을 설립해 문중개념을 없애고, 단기출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0년 교육개혁불사 현장 떠나다

현응 스님, 8월 16일 조계종 6 · 7대 교육원장 퇴임

2009년 11월부터 10년 동안 조계종 승가교육 변화를 이끈 현응 스님이 마침표를 찍고, 해인총림 해인사를 이끈다.

조계종은 8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제6 · 7대 교육원장 현응 스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지난 10년 동안 교육개혁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현응 스님의 공로를 기리며 공로상을 수여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10년을 함께 해준 교역직 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추진해온 교육개혁사업의 핵심은, 불교교육 체계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승가의 사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일이었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한 10년간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교육불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또 시작될 것이다. 승가교육도 불교의 모습도 완성태는 없다.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이 이끌었던 지난 10년간 승가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본교육의 혁신이다. 가장 많은 변화는 교육 방식과 내용이다. 이전 교육이 한문불전 중심으로 이뤄진

교육과정 개편 등 변화 이끌어
학인대회 통해 학인 역량 고취

훈고학적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말 중심의 토론식 수업으로 변화했다.

사찰승가대학을 기존 19곳에서 14곳으로 재편하는 대신 율학 · 선학 · 초기불교 · 한문불전 등 승가대학원 체계를 만들어 기본교육 후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학인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승가교육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학인대회였다. 염불 · 외국어 · 토론 · 설법 등의 분야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학인 스님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제6 · 7대 교육원장 퇴임식’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함께해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현응 스님.

교육불사 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연수의 활성화다. 그간 구족계 수지 이후 재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10년간의 불사는 ‘승가 평생교육 시대’를 열게 했다. 지난 2011년 3개 분야 24개 강좌로 시작한 연수 교육은 현재 강좌 · 순례형 등 10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연평균 5000여 명의 스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 받고 있다. 또한 연수인증교육 실시로 교육원이 전부 교육할 수 없는 분야를 인증교육으로 대체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불교자원봉사 연수까지 확대 · 실시했다.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퇴임식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응 스님에게 해인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대회

담양 용화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5인중 1인 도월수진 스님 계열 불복장 중흥조
묵담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스님

경애하옵는 전국 불교 대종사 명사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드디어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은 각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전체의 문화재입니다.
금번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여 보고 듣기만 하여도 불교의 근본 뜻을 알게 되고 개인의
소원성취는 물론이고 국운융창 경제부흥 남북통일 세계평화가 꼭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부대중과
불교 신도 외 일반인들도 무루 참석하시기를 기원드려 마지 않습니다.



묵담 올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점안작법 전수자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합 장

시간	발표자 및 주제	비고
09:30 ~ 10:00	식전 행사	불복장 영상 상영
10:00 ~ 10:30	개회사 및 축사	• 수진스님 • 이개호 농수산부장관 • 불복장 작법 보존회 회장, 도지사, 군수
10:30 ~ 10:40	휴식	단상 정리
10:40 ~ 11:10	〈제1발표〉 이중표 – 전남대 • 불복장 작법의 사상적 배경	학술대회 사회 : 최종남(중앙승가대)
11:10 ~ 11:40	〈제2발표〉 이승혜 – 삼성 리움 • 불복장 작법의 발생과 전래	
11:40 ~ 13:00	점심 공양	
13:00 ~ 13:30	〈제3발표〉 남권희 – 경북대 • 담양 용화사 소장 불복장 작법 관련 필사본의 서지적 가치	
13:30 ~ 14:00	〈제4발표〉 수암스님 – 금붕사 • 묵담 대종사의 불복장 작법 중흥과 전승	
14:00 ~ 14:10	휴식	
14:10 ~ 14:40	〈제5발표〉 이종수 – 순천대 •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4:40 ~ 15:00	종합평가 및 폐회식	종합 평가 : 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스님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대회 안내

주최 및 후원
• 주최 : 전남 담양 용화사 신도회(061-381-2683)
• 주관 :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
•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담양군, 문화재청, BTN, 현대불교신문

장소 및 일시
• 장소 : 담양 문화회관 대강당 (담양 시외버스터미널 옆)
• 일시 : 2019년 9월 7일(음력 8월 9일) 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한국불교태고종 용화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 Tel. 061)381-2683

월정사 권역 · 삼국유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본격화

월정사 등 오대산 복합유산 추진
佛 · 儒 · 道 품은 정신사 보고
인문 · 생태 통섭유산 부각 기대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표
군위군, 국학진흥원 등 사업 진행
올해 초부터 기관들 협약 · 세미나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오대산 월정사 권역과 일연 스님의 저서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복합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각각 추진된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강원도와 손잡고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은 월정사와 상원사,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하는 문수성지이자 선원과 명상마을도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복합 정신문화가 깃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대산의 청정한 자연은 생태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이 평가된다.

월정사는 이같이 오대산의 불교와 인문학, 명상 힐링, 자연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평창군 등 관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TF팀을 올해 안으로 구성해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 등재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월정사가 중심으로 자리한 오대산은 국보 제48호 팔각 구층 석탑과 석조보살좌상, 국보 제221호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 좌상, 국보 제292호 상원사 중창권선문 등 57점의 국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명실공히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오대산과 월정사는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한 오대산 사고(史庫) 등 유교 문화와 도교, 샤머니즘을 품고 있어 한국 정신사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인문적 내용과 생태적 자연환경이 아우러져야 한다. 해외에는 중국 오대산 등 사례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많지 않다. 평창 오대산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이 훼손됐지만, 긴 역사 속에 녹아 있는 인문적 내용과 자연 환경의 가치가 함께 결합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행정적으로 학술적으로 오대산의 인문생태적 가치들을 잘 정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일 유네스코에 등재돼 오대산의 위상이 한층 더 격상된다면,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활성화 산업에도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복합 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불교 유산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오대산 월정사 전경. 군위군을 중심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삼국유사〉(국보 제306-3호 권1~2)

이어 정념 스님은 "지난 4월 월정사는 오대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자들에게 등재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바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월정사는 유네스코 복합 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강원도와 평창군도 최근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 · 고구려 · 백제 3국의 유사(遺事)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군위군과 경상북도는 8월 30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삼국유사〉 중요 판본에 대한 보존 및 활용 가치를 확인하고 유사가 가진 기록유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동국대박물관장)을 비롯해 전문 학자 10명의 주제 발표와 패널 20명이 참가한 토론이 이뤄졌다.

그간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학계 전문가,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도 등과 총 3회에 걸친 워크숍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삼국유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1월 9일에는 〈삼국유사〉 판본을 보유한 범어사 성보박물관, 서울대 한국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삼국유사〉의 기록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아시아 · 태평양지역 목록 등재 추진 시 저본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돌 맞은 불교평론 '탈종교화' 논한다

한국불교 지성을 대표해온 〈불교평론〉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탈종교화' 현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평론〉은 8월 3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창간 20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만해축전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탈종교화와 불교를 고찰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논문으로는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의 '세계종교에서 세속화와 탈세속화의 동시적 전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탈종교적 신행행태와 미래' △구미 화엄탑사 주지 명법 스님의 '탈세속화 시대, 붓다를 사유하기' △이혜숙 금강대 초빙교수 '시민사회 공론장 확립을 위한 불교의 역할' △이상헌 서강대 교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와 불교'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의 '탈종교 시대, 그리스도교의 탈-향 운동' △양형진 고려대 교수의 '현대과학기술문명과 불교의 역할'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부모 · 자녀 세대갈등 해소 나선 화쟁위

야단법석 '대화가 필요해-화쟁, 가족을 만나다' 서울서 열려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가족 내 세대갈등 해소를 위해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는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유진)와 야단법석 '대화가 필요해-화쟁, 가족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야단법석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대변하는 50대와 20대 참가자들이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다른 세대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스무 살 아들이 상냥하지 않아 심적으로 힘들다고 밝힌 민순의 씨는 "모든 엄마는 아들에 대한 로망이 있다. 같이 쇼핑도 하고 살가운 말도 듣고 싶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아들은 매일 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무슨 말만 꺼내면 꼰대 같은 소리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민 씨는 이어 "지난 주말에 아들을 어르고 달래 호프에 가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아들은 자신이 상냥하지 않게 대한 것이 의도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면서 "대학교에 진학한 뒤 엄마의 조언이 다 쓸모없게 느껴졌다고 했다. 아들이 사과하면서 상냥해지긴 했는데 한편으론 참 슬펐다"고 말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다른 이의 고민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야단법석 참가자들.

아들 입장을 공감하는 20대 심장현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아들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제 자신도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저 역시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표현이 조금 서툴러 생긴 고민 같다. 꾸준히 대화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녀세대에서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을 이해 못하는 아버지로 고민하는 딸이 나섰다. 이정빈 씨는 "집안 분위기는 좋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 아버지는 젊은이들이 학교과제나 공지를 SNS로 전달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싫어하셔서 눈치가 보인다"고 고민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어린 아들에게 강압적인 교육으로 상처를 줘 미안하다는 부모의 사연을 비롯해 장손에게 강요하는 남성성이 불만인 자녀의 사연까지, 참가자들은 서로의 다양한 고민을 공유했다.

윤호섭 기자

"아베정권 일본군성노예제 사죄하라"

조계종 사노위, 제1401차 일본군성노예제 수요시위 주관

"아베정권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성노예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향한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길거리에 울려 퍼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8월 2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40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했다. 이날 사노위에서는 위원장 혜찬 스님과 위원 스님 등 10여 명이 수요시위에 참석,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자리서 사노위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맺은 엉터리 합의인 2015한일합의만 되뇌고 피해자 할머님들의 생생한 증언이 아베정권은 들리지 않는가"라며 "역사적 진실을 순간 덮어버린다고, 저지른 과거를 지워버린다고 일본의 죄악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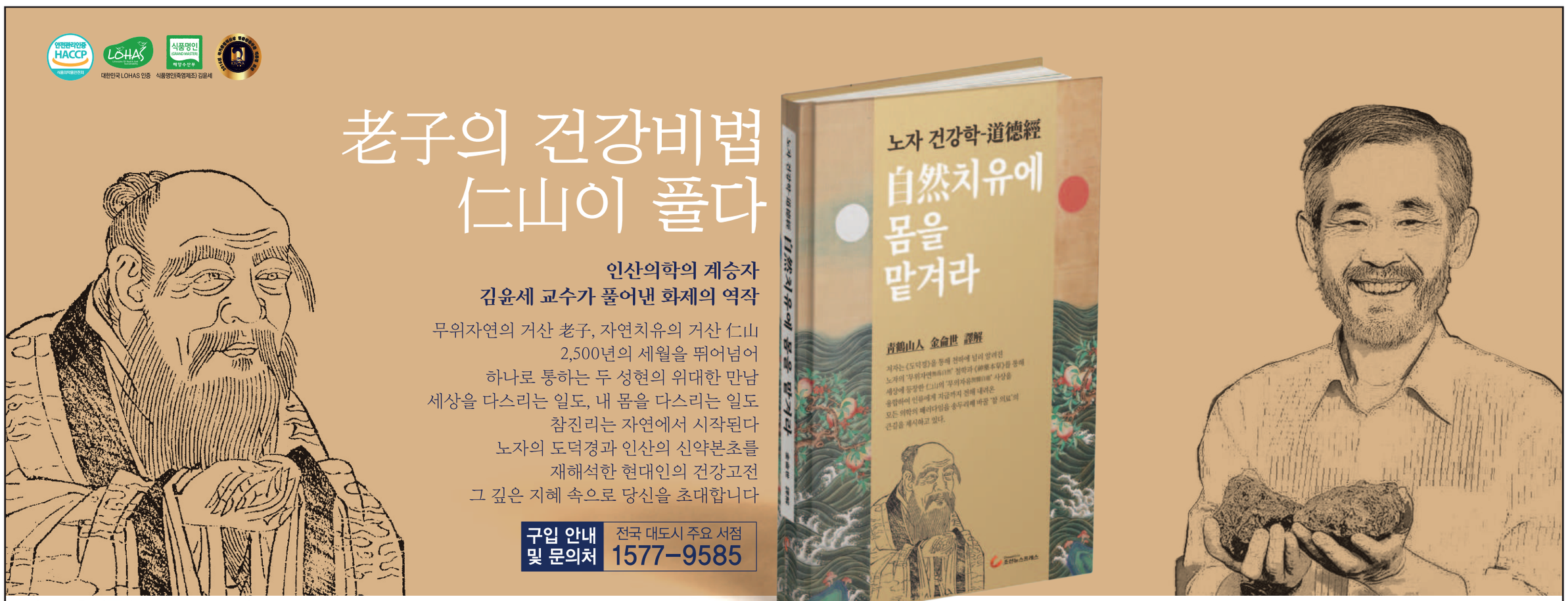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혜찬 스님이 8월 21일 제140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어 "일본정부는 참회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성노예제 문제에 왜곡과 거짓을 멈추고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라"고 꼬집은 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피해자중심의 외교로 맞설 것을 요청했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참회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고 했다. 부끄러움과 참회를 모르는 아베정권이야말로 짐승이 아닌가 싶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사 새싹 불자 양성 터전 발돋움

선재어린이집 9월 2일 개원
8월 21일 운영방침 등 밝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우정숙 선재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부 집기를 살펴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이자 한국불교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조계사가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미래 불자 양성에 한발 더 나아간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21일 조계사 경내에 완공된 선재어린이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방침 등을 밝혔다.

선재어린이집 개원은 9월 2일 진행되며 이미 43명의 어린이들이 입소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 후 다양한 신도공간의 수요가 있지만 이 공간을 조계사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어린이불자 양성의 터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됐다"며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라 조계사의 주인이 된다면 한국불교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재어린이집은 종로지역 직장인과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지현 스님은 "조계사는 그동안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며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앞장서 왔다. 이번 선재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인근에는 주거단지보다 을지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이 많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에 준한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층부터 3층에는 연령별 보육실, 식당 및 놀이공간 등이 자리잡고 있다. 4층은 강당 및 실내놀이터, 5층은 미술실과 도서실, 음악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 옥상은 놀이터로 꾸며졌다.

선재어린이집의 보육방침은 '마음이 고운 어린이, 꾸밈이 없는 어린이,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로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다도교육 등 다양한 인성교육도 진행된다.

우정숙 원장은 "선생님들의 경우 모두 5년 이상의 경력자로 채용했다. 안전을 중점으로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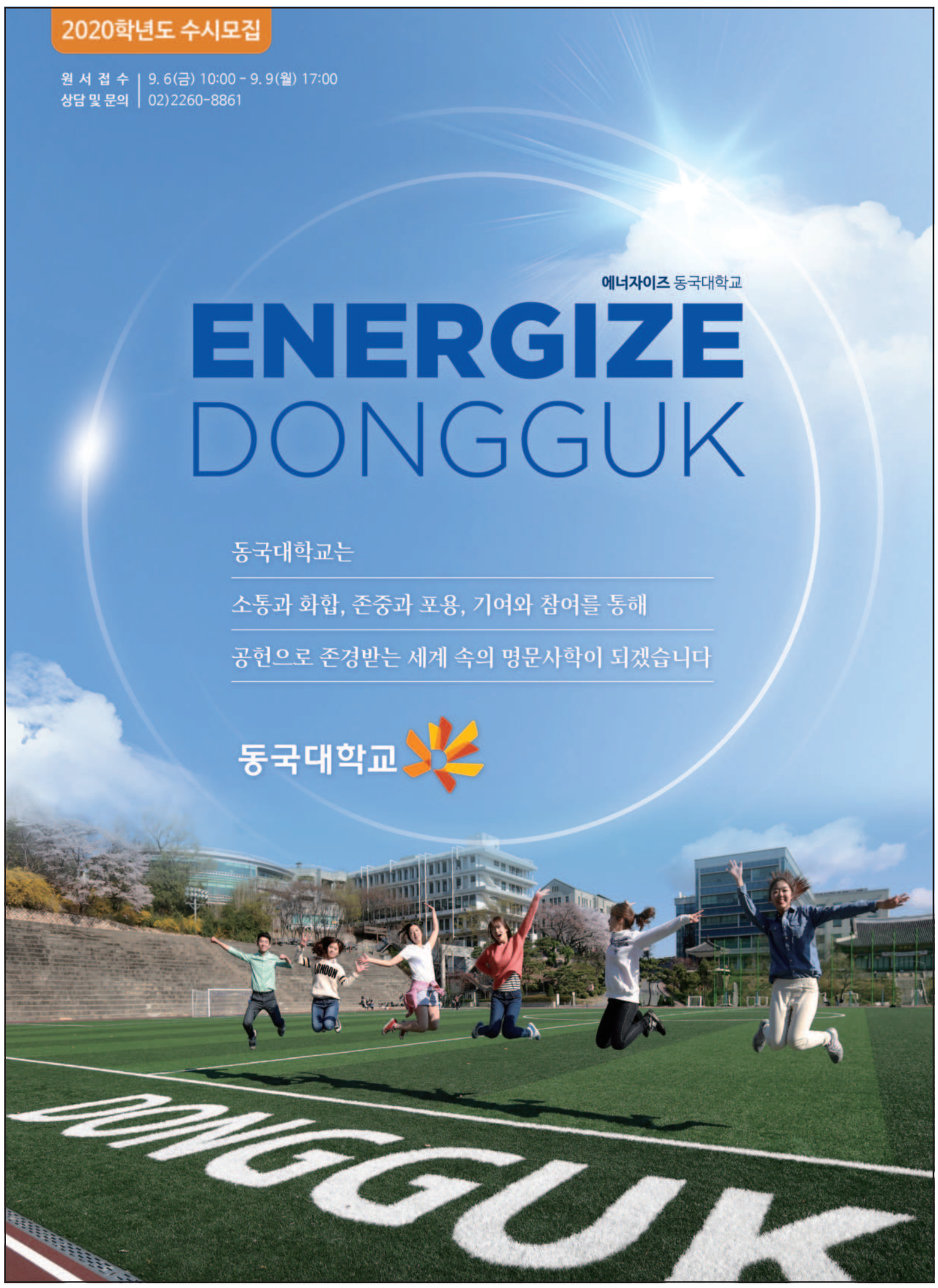
선재어린이집은 편백나무와 참나무 원목을 활용한 책상과 집기를 비롯해 모든 부분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안전을 위해 벽에는 쿠션을, 집기 모서리마다는 보호대를 설치했다. 또 조명마다 아이들에 맞도록 모형을 달고 조도 또한 조절했다.

인근 직장의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사와 간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앱을 설치해 CCTV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보육 시간 또한 연장반을 통해 인근 직장인들을 배려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아이들이 사찰에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심성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향후 유치원과 키즈카페 등도 사찰여력이 된다면 구성하고 싶다. 전국의 사찰에도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어린이불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재어린이집은 9월 2일 입학식 후 10월 경 개원행사를 갖는다.



"동국 교훈 새기고 세상 나아가라"

동국대, 22일 가을 학위수여식 개최… 이근창 대표 명예박사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8월 22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9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90명, 석사 504명, 박사 89명 등 총 1,683 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불교 관련 박사는 16명이 배출됐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상의 모든 꿈에 도전하기 바란다"며 "동국의 교훈과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주위 사람들과 원만히 교류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주) 대표이사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근창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금형강 기업체인 한양스틸프라자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우리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위해 환원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이근창 대표이사는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사, 만해사상연구소 사무국장, 신한철강주식회사 영업부장 등을 거쳐 1993년 한양스틸프라자의 전신인 한양금속을 창업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스카우트, 동화사서 지도자 연수

8월 15~17일 50여 명 참석해 전문교육 이수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은 8월 15~17일 2박3일간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불교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초·중급과정의 이번 연수는 불교스카우트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능력 배양과 불교스카우트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불교스카우트연맹 명원 스님과 김종원 前 부산연맹장, 오규화 불교연맹 부연맹장을 비롯해 동화사 본·말사 소속 포교사와 어린이청소년법회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불교스카우트와 화랑도'를 주제로 한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야영 강좌, 불교스카우트 활동 소개, 청년 지도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여택진 불교스카우트 사무처장은 "불교 스카우트 지도자 양성과 함께 더욱 많은 어린이 불자 양성을 통해 불교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원, SNS 불교콘텐츠 발행 지원

5팀 선정해 최대 100만원 지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SNS상 불교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포교원은 8월 22일 '불교SNS채널운영 전문가 지원사업'을 공고, 8월 27일까지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불교SNS채널운영 전문가 지원사업은 이웃종교와 비교해 저조한 불교 뉴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기한은 올해 12월까지며 SNS상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발전 가능한 콘텐츠, 혹은 크리에이터 그룹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2차에 걸쳐 교부하며 지원자격은 불자로 불교문화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다.

서류 심의 및 당선작은 8월 30일 발표되며 당선작 OT 및 지원비 교부는 9월 초 이뤄진다. 콘텐츠 공모 세부 내역은 불교캐릭터, 일러스트, 찬불가, 사찰여행과 템플스테이, 산사음식 및 채식, 계층포교, 수행일기 미래세대 의제 등이다. (02)2011-1996 노덕현 기자

염불자원봉사단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9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교육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제12기 염불자원봉사단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열리는 염불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은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무관 스님과 우리선원 명상센터장 도영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다. 염불염송과 목탁 집전, 조가연습, 상가예절 교육이 이뤄진다.

염불자원봉사단은 2009년부터 불자들의 생애 마지막 길을 법음의 향기로 가득 채워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해왔다. 교육수료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요일별로 팀을 이뤄 활동하며, 서울경기지역의 상가는 물론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서울시립승화원에서도 염불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은 "보다 많은 불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따뜻하고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02)6334-2211 윤호섭 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지뢰제거 캠페인

지속적 모연 전개… 어린이 지뢰피해 예방 교육도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뢰제거 캠페인에 나선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과거 내전과 전쟁을 거치며 매설된 지뢰로 현재까지 삶을 위협받는 캄보디아 주민과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지구촌공생회가 캠페인을 통해 돕고자 하는 곳은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지뢰매설지역 K5 벨트로 서울면적의 7배에 달한다. 최소 600~700만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경우 호기심에 지뢰를 만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전체 사상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뢰의 위험성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할 수 없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캠페인에 동참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사찰·단체는 후원계좌(농협 100026-55-003657, (사)지구촌공생회)를 통해 기부하면 된다. 아울러 '카카오 같이가치'와 '네이버 해피빈'을 이용해 동참할 수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캠페인으로 모연한 성금을 이 지역 지뢰제거와 아이들의 지뢰피해 방지 교육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사장 월주 스님은 "지뢰제거뿐만 아니라 저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지원 등 평화마을 복원에 많은 정성이 모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키워드로 보는

Green Buddhism



“이슈 넘어 대안을… 녹색사찰, 新실천 운동”

1. 프롤로그– 왜 녹색사찰인가

필환경 시대 ‘녹색불교’는 화두
사찰의 녹색화, 필수선결 과제
종단 · 불자 녹색화 교두보 역할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운동
9곳 지정… 향후 확대 방침

바야흐로 ‘필(必)환경 시대’ 다. 친환경이 아닌 환경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이는 소비문화에도 그대로 이어져 하나의 현상이 됐다. 그간 환경 친화적 소비가 자신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필환경 시대에 환경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최근 세계적인 소비문화도 ‘필환경’ 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를 바탕으로 한 포장재를 최소화 하는 문화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 트렌드를 비롯해 ‘비거니즘(Veganism)’ 을 바탕으로 한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동물실험 및 어떤 동물성분도 포함하지 않은 제품)’ 화장품 등이 이를 보여준다.

‘제로 웨이스트’ 와 ‘비거니즘’ 은 특징은 소비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며 높은 실천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로 웨이스트’ 는 2030세대에게는 일종의 힙(Hip,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개성이 강한 것이란 신조어)한 행위다. 관심사가 되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과 소모임 누리집 빠띠의 커뮤니티 ‘쓰레기 덕질’ 등도 같은 유형의 온라인 모임체다.

필환경 시대의 ‘제로 웨이스트’ 와 ‘비거니즘’ 같은 사회 현상은 불교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소욕하며 순환적인 삶을 강조하는 불교사상은 ‘제로 웨이스트’ 와 그대로 연결된다. 유정, 무정 모든 것에는 ‘불성(佛性)’ 이 있다는 특유의 생명사상은 ‘비거니즘’ 과 맞닿는다.

이에 대해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경제와 개발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벗어난 것이 ‘녹색운동’ ”이라며 “필환경 시대에 맞춰 불교는 ‘녹색불교’ 라는 화두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 불교환경연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사찰 지정 캠페인’ 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녹색사찰 유형 개발을 비롯해 △녹색 모델 사찰 발굴 △환경 법회와 환경 교육 실시 △사찰림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환경보존활동 등 실천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제1호 사찰인 고양 금륜사(주지 본각)를 비롯해 △언양 백련사(주지 천도) △은평 열린선원(주지 법현) △장성 천진암(주지 정관) △의정부 석림사(주지 능인) △울산 여여선원(선원장 효암)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 △서울 반야정사(주지 효진) △천안 성불사(주지 원묵) 9곳이 불교환경연대 지정 ‘녹색사찰’ 로 활동 중이다.

이 사찰들은 자발적으로 1회용품과 비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와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녹색사찰들 간의 ‘정보 연대’ 다. 녹색사찰 10곳의 주지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실무자는 단체 모바일 채팅방을 만들고, 각자 사찰에서 이뤄진 녹색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이는 서로에게 자극과 정보 공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주로 연등회, 부처님오신날 법회, 성지순례 등 사찰 행사가 있으면 각 사찰 실천 사례들이 채팅방에서 공유된다”면서 “소소한 팁도 있고, 무릎을 치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런 사례들이 모여 사찰의 녹색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실 ‘녹색사찰’ 은 ‘녹색불교’ 로 가는 교두보다. ‘녹색불교’ 는 ‘종단 · 사찰 · 불자의 녹색화’ 라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위로는 환경 종책이 이뤄지고 아래로는 신도들의 실천, 그리고 이를 펼칠 수 있는 도량이 구성돼야 한다.

그래서 사찰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교육 · 법회 등을 통해 신도들의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하며, 일선 모범 사례들은 종단 환경 종책 입안에도 실질적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주영 사무처장은 “기존 환경운동은 이슈와 사안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녹색운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피고 대안을 찾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사찰 내에도 자본주의가 들어와 쉽게 쓰고 버리는 게 일상이 됐다. 녹색사찰 캠페인은 우리를 돌아보고 대안을 찾는 새로운 실천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녹색불교운동 핵심은 ‘녹색사찰’

인터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Q 녹색사찰 지정 운동 시작 계기는

A 이제 환경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덜 쓰고 덜 버리는 소박한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순환의 세계관과 단순 소박한 삶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사상과 승가공동체의 생활양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불교에도 언제부터인가 비닐, 1회용컵, 화학세제 등 순환하지 않고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늘어가고 있고, 공동체 문화의 가치가 퇴색하고 있다. 녹색사찰 운동을 통해 불교의 생태적 가치와 전통을 회복하고 실현함으로써 지구의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Q 사찰의 녹색화 의미는

A 녹색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찰의 녹색화’ 가 가장 핵심적이다. 사찰의 녹색화는 사찰의 의식주와 종무행정 · 포교 · 교육 · 수행 등 일상의 모든 것이 녹색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단은 녹색사찰의 확산과 녹색사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신도들은 사찰에서 배운 생태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이웃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녹색불교운동에서 녹색사찰이 중심이 되는 까닭이다.

Q 일선 사찰은 어떤 노력 필요하나

A 사찰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성찰해 계승할 것과 버릴 것, 혁신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안쓰기,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 빈그릇 운동, 생태 방생, 환경교육, 환경법회, 숲생태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도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지금 우리에게 닥친 환경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를 찾고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허브 역할을 해줘야 한다.

Q 녹색사찰 운동 향후 추진 계획은

A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녹색사찰의 의미와 필요성, 실천방법을 제안하고 실행 의지가 있는 사찰들과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녹색사찰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녹색사찰들끼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정 대행** :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사서실장** : 천 산 **율원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3대 종교 "부산 저출산 공동대응 협력"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협약

부산시 출산 관련현황에 따르면 부산시 합계 출산율이 서울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발표됐다. 부산시는 비혼 · 저출산 원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미래관 및 사회활동에 소외되는 여성 현실이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음을 파악, 인식 개선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8월 16일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3대 종교단체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돼 겪는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며 출산 장려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스님,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 서창수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 손삼석 교구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실천 내용은 △우리사회의 다음 세대 유지를 위한 출생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시민과 각 종교단체에 알리기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 신혼 출발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남녀 공동 육아 장려 등 출생과 양육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 등이 포함됐다.

경선 스님은 "스님은 독신으로 계를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일반 불자를 비롯해 복지단체, 노인단체, 신도들을 만날 때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야문화 숨 쉬는 산사음악회

가야문화진흥원, 김해 알리는 북 콘서트 열어

가야문화가 녹아있는 김해를 알리는 산사 북 콘서트가 진행됐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은 8월 17일 '가야문화와 함께하는 산사의 북 콘서트' 를 은하사에서 개최했다. 콘서트는 불교음악 연구원 전문위원인 효강 스님의 색소폰 연주와 이수정 성악가의 노래 그리고 김성기 동부산대 실용음악과 교수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신어산 아래 위치한 은하사를 방문한 나들이객과 휴가를 맞아 찾은 지역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음악을 들으며 쉼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산사 북 콘서트는 칼럼니스트 조용헌 박사의 강연으로 이어졌으며, 조 박사는 신어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설명했다.

조 박사는 "신어산은 왕과 거상 등 큰 인물이 나오는 풍수적 위치를 갖고 있다"며 "불교는 높은 안목으로 자연을 살펴보며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산청 왕복사, 전통 출가의식 재현



출가 삭발의식은 인천의 스승이 되는 첫 걸음이며 출가수행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례다. 일반인에게 성스러움으로 느껴지는 출가 삭발의식을 전통방식으로 재현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

산청 왕복사(주지 자우)는 8월 17일 경내 대웅전에서 행자 출가 삭발의식을 봉행했다.〈사진〉 삭발의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부처님과 은사, 스님들에게 3배 △출가 다짐 △삭발 △은사 스님 염송 △출가자 발원 △입도증서 및 발우 수여 △인사말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증명법사는 충담문도 문장 지성 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지현 스님, 호법위원 옥산 스님이 맡았으며 체도사는 무종 스님이 담당했다.

지성 스님은 "출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삭발하고 출가하는 출가자에게 부처님 가피가 두루 하길 바란다. 또한 한국불교의 정통종단에서 수계를 하고 큰스님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은사인 보현사 묵원 스님은 "삭발 의식은 출가자가 승가의 일원이 되는 뜻깊은 의식"이라며 "삭발의 진정한 의미는 세속의 찌든 욕심과 거짓으로 쌓인 머릿속 잡념을 없애버리란 의미이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불사 文化"

영축문화연구원 개원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영축문화연구원 설립 취지를 설명하는 현문 스님.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이끌어가고 인류를 지배하는 힘이 바로 문화입니다. 인간 삶의 형태를 구성하는 힘은 정신, 즉 마음에서 나옵니다.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는 방장 성파 스님은 통도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문화이며 통도사뿐 아니라 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그 결과물이자 시작점이 바로 영축문화연구원입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지난 8월 17일 새롭게 문을 연 영축문화연구원이 불교문화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이 될 곳이라고 설명했다. 발굴하지 않은 불교 정신문화를 숨겨진 보물처럼 여기고 오지를 향해 탐험하는 배가 새롭게 출항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불교문화 연구에 부족했던 현실을 지적하는 따가운 충고이기도 하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나랏말싸미에 등장한 신미대사를 역사왜곡이라 합니다. 역사왜곡이 아니라 반박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와 대중화 노력이 부족한 탓에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방장스님은 신미 대사에 관심이 일찍부터 있었고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다. 일찍이 중요성을 아시고 앞서 자료화하고 연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선구자로 평생 연구한 문화콘텐츠 결과를 새롭게 문을 연 영축문화연구원에서 펼치실 겁니다. 통도사 내 역대 선사뿐 아니라 역사 속에 활동한 영웅과 같은 분들을 발굴해 제대로 조명하고 불교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함께 조력할 것입니다."

영축문화연구원은 〈통도사지〉 발간을 필두로 역대 선사와 시대 영웅을 소개하고 대중의 눈높이 맞는 결과물로 편하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어렵지 않게 대중에게 결과물을 보여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접근한다. 우선 통도사 창건부터 근현대 역사까지 담은 〈통도사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풀어 설명할 계획이다.

대중화 부족한 불교문화 중심
자세한 연구로 접근성 높인다
읽기 쉬운 〈통도사지〉 발간 등
문화 · 예술 아우르는 거점 역할

"중요 사찰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딱딱해 스님들도 읽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리려면 대중에게 맞는 눈높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와 역사 문헌을 담는 자료 책과 함께 대중을 위한 쉬운 책으로도 발간해 모두가 함께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문 스님은 특히 영축문화연구원은 불자뿐 아니라 문화 예술인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종합 문화콘텐츠 구심점이란 부분도 강조했다.

안으로는 〈통도사지〉 발간 및 연구에 앞장서고 무형문화재 발굴 및 문화재 등록 사업에도 주력한다. 밖으로는 문화예술인이 함께 설 수 있는 중심지로 통도사와 불교를 아름다운 예술에 담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에 통도사와 불교를 담아 대중화한다는 설명이다. 영축문화연구원 개원 전 통도사 서운암은 문학인을 격려하기 위해 영축문학원을 운영해왔다. 그뿐 아니라 염색, 전통 사찰 음식, 차문화 등 불교 전통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주며 예술인들을 위한 든든한 기둥으로 활동했다. 이 모든 문화콘텐츠가 영축문화연구원과 함께한다.

아울러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와 방대한 불교문화를 책과 다양한 문화로 풀어 낼 연구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했다.

연구위원은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인해 스님과 영축불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을 활동한 광우 스님,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송천 스님이 연구위원을 담당했다. 재가 연구위원은 윤영해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초서 전문가인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동참한다.

"통도사에는 교학과 불교예술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영축문화연구원은 사명대사, 이동인 스님, 환성지안 스님 등 역사상 뛰어난 업적에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발굴해 조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이분들을 조명하는 것은 건물 불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연구위원들을 비롯해 통도사 인재들의 역량은 정말 뛰어납니다. 통도사의 저력은 인재입니다. 통도사의 모든 인재들이 함께 꾸려갈 보이지 않는 불교문화 물결은 큰 힘이 되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표충서원서 儒佛 함께 즐긴다"

표충사 '표충서원, 문을 열다'
매주日, 문화재활용사업 운영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 '표충서원, 문을 열다' 프로그램서 단주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

전통사찰 공간에서 불교 전통문화와 함께 유교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열려 호평을 받고 있다. 가족 단위로 찾아 경험할 뿐 아니라 한국정신 문화를 체험할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에게도 꾸준한 인기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주지 법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표충서원, 문을 열다' 체험 프로그램을 표충사 경내와 표충서원에서 진행 중이다.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표충서원, 문을 열다' 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후원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하나로 전반기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표충서원, 문을 열다' 프로그램은 등불교실과 고사리교실로 나눠 진행된다. 등불교실은 표충사 방문객 및 어르신이 대상이며 프로그램은 한글교실(사경), 서예교실, 교복 복식체험, 졸업장 수여, 졸업사진 촬영 등이다. 고사리 교실 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및 템플스테이 참가자(미취학, 초등생)이며 교육프로그램은 일곱빛깔 우리문화 단청 아트 페인팅, 108 염주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우리지역 문화유산(보유문화재) · 위인(사명대사) 주제 스토리텔링 교실 운영, 전통예절 · 불교예절 교실 등이다. 그 외 표충서원 나무공예 만들기 및 유교식 제례복 착복 체험도 운영하고 있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다.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山寺)의 우수한 문화재를 활용해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고품격 체험 관광 상품이다. 불교 영역인 사찰 공간에 유교식 제향 · 교육기관인 '서원' 이 자리한 표충사의 특색을 활용해 〈표충서원, 문을 열다〉라는 타이틀로 색다른 문화를 선사하고 있다.

표충사는 "산하기관인 표충사호국박물관에서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사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055)352-115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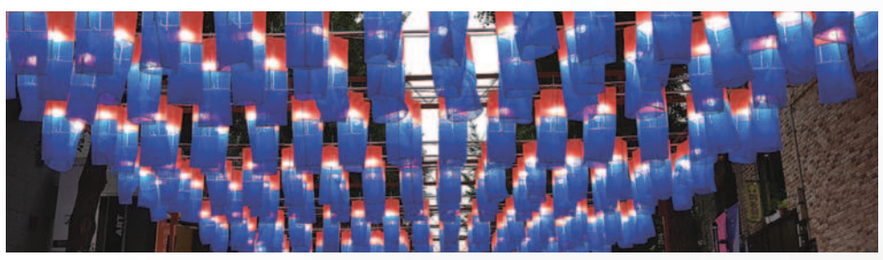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의식 대전환’ 없이 4차혁명 없다

지원 스님의
선문답 이야기 ⑤





인식이란 자기 경험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이란 각자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인식만으로 참 자아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인식이 곧 업식이기 때문이다. 업식은 경험이므로 경험에 의해서 인식되었다가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다. 이것을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한다. 좋고 싫음이 업의 축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물론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없다. 나란 무엇인가의 해답을 풀기 위해 영혼, 육체, 마음, 물질 등등.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풀고자한 주제들이다.

‘내 생명은 영혼’이라고 하면서도 육체의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내 생명은 육체다’라고 하면서도 알 수없는 영혼의 세계를 그리워 한다. 세상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 ‘나’의 정체에 대해서는 명쾌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불성’이다.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불성은 나와 여러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지혜, 맑고 밝은 지혜 광명을 가리킨다. 여래와 다를 바 없는 원만구족한 지혜 광명이다.

달마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보면 부처요, 마음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나 불성은 중생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중생의 마음을 떠나 따로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이제 어느 곳에 있겠는가? 중생의 마음이 곧 불성이다”

우리 모두 부처다. 우리에게 마음이 없으면 부처도 신도 될 수 없다. 부처를 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신을 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다. 모든 일의 주체는 마음이고 마음에 있다. 마음 안에 깊이 감추어진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저마다 존귀한 생명불성의 주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일체가 유심조’.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고 하였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일이 안되면 가슴 아프게 괴로워 한다. 그렇다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알면 괴로움서 벗어날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서 바라는 마음도 온다. 괴로움의 원인은 자성이 없는 모양(相)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고통은 구하는 상에서 온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상만 구하는가? 모든 모양은 인연(緣生)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체의 성품이 없다. 이 무상(無相)이 상이 아님을 알지 못하면 세세생생 행복할 수 없다.

참 나를 찾아서란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 가서 나를 찾는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몸도 움직이고 법문을 들으면서 집 생각하고 법회 끝나고 누구하고 만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전의 자체가 곧 나이다. 생각을 일으키기 전의 나가 ‘참나’인 것이다.

인식 만으로는 ‘참자아’ 이를 수 없어
인식 자체가 바로 업식이기 때문이다
좋고 싫음 분별은 업의 축적에서 나와

‘참나’란 있어도 있는 자취가 없는 묘유이다. 실상의 자리란 있어도 있는 자취가 없이 있는 묘유이다. 있어도 자취가 없이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겠다 거울을 마음에 본자리라고 보고, 이 거울에 아무것도 없는 한 물건을 비쳤을 때, 거울에 물건이 나타나 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 없었는데도 비치면 나타나 있다

있어도 있는 자취가 없이 있는 것이 묘하게 있는 것이다. 다시 거울에 비친 물건을 치워버리면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분명히 없다. 그러나 없어도 없는 자취가 없이 있는 것이 진공이며, 이것을 ‘진공묘유’라 한다. 참된 공이 별도로 분리된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상, 곧 다양한 인연의 조합인 연기(緣起)라는 말이다.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공(空)은 이 세계의 만물에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표방하는 개념이다. 대승불교 중관학파의 용수(龍樹)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가 바로 공의 뜻임을 천명하였다. 연기는 이 세계의 만물이 다양한 인(因)과 연(緣)의 조합에 의해 생기하는 것이지, 고정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이와 같은 공에 대해 예부터 몇 가지 잘못된 이해 방식이 있었는데, 중국 화엄종의 승려 법장(法藏: 643~712)은 〈반야심경(般若心經)〉 주석서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에서 이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공이 사물과 다르다는 견해이다. 이는 공을 사물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 별도의 공을 구하는 것이다. 법장에 따르면,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色不異空)’라고 하였다.

둘째는 공이 사물을 소멸시킨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이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을 소멸시킨 뒤 남는 빈 공간을 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서 ‘색이 곧 공이다(色卽是空)’라고 하였다.

셋째는 공을 어떤 특정한 사물로 여기는 견해이다. 이는 공을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처하기 위해 〈반야심경〉서 ‘공이 곧 색이다(空卽是色)’라고 하였다. 공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타파하기 위해 불교도들은 진공(眞空), 곧 참된 공이란 이 세계의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법성과 자성은 참다운 본성인 ‘진성’
진성,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것 아냐
불생불멸, 능히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또한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의 관점에서 볼 때, 만물은 고정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성과 변화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만물이 공(空)하므로 비로소 생동감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계의 만물과 공의 원리가 서로 장애함이 없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때, 진공 그대로 묘유가 된다는 관점이 성립한다. 이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부파불교 시기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와 같은 부파는 무상(無常)한 현실을 벗어나 무상하지 않은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사유 체계를 세웠다. 이에 따르면 열반은 무상한 현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공묘유의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열반이란 이 세계의 현실 속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만물 자체에 공의 이치가 온전히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과 같이 대승불교에서 제창된 내용 역시 이러한 진공묘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주의 본성이라 할 때 법성(法性)이라 하고 자기의 참다운 본성을 자성(自性)이라고 한다. 법성과 자성은 참다운 본성이라 하여 진성(眞性)이라고 한다. 진성이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다.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능히 생기기도 하고 능히 없어지기도 한다.

본래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서 능히 생기기도 하고 능히 없어지기도 한다. 이것을 가르켜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 하며 법성계에서는 법성원융무이상. 우주의 모든 사물인 법성품은 원융하여 두가지 모양이 없다. 서로 다른것이 크고 적고 모순되고 대립된 것이 없다. 왜 작으냐면 작게 된 인연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큰 것은 왜 크게냐 하면 적은 것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 큰 것이 없으면 적은 것이 없다. 적은 것이 없으면 큰 것도 없다.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원융’이란 이것과 저것이 통하고 저것과 이것이 통한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회주〉

www.1027beopnan.kr



제3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2019.6.17(월) - 2019.9.20(금)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총무원 사회부 ·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개요
- 공모부문 : 시 · 산문 · 만화
- 공모내용
  - 시 : 2편이상(편당 분량 제한 없음)
  - 산문 : A4, 4장 이상 (종류 : 수필, 기행문, 콩트, 주장글 등)
  - 만화 : 1편(A4, 4컷 또는 8컷)
- 응모기간 : 2019.6.17(월) ~ 9.20 (금)
  ※작품접수(우편 혹은 홈페이지)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19. 10. 4(금), (첫째주 발표)
  불교신문, 1027법난 문예공모전 홈페이지 게시예정

시상
- 시상인원 : 총 40명 내외 (일반 24편, 청소년 16편 등)
- 시상금액 : 총 3,740만원 상당

구분	시상수		부상
	일반부	학생부	
대상	3편 (부문별 각 1편) (총무원장상)	2편 (부문별 각 1편) (동국대학교 총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3편 (부문별 각 1편) (총무원장상)	2편 (부문별 각 1편) (동국대학교 총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6편 (부문별 각 2편) (불교신문 사장상)	4편 (부문별 각 2편) (불교신문 사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12편 (부문별 각 4편) (불교신문 사장상)	8편 (부문별 각 4편) (불교신문 사장상)	일반 : 상장 및 상금 50만원 학생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일반부 : 누구나 응시가능
(만화부문은 불교적 주제관련 이외 사회, 환경에 관한 주제도 응시가능)
※ 학생부 : 산문, 시만 응시가능. (만화는 응시 할 수 없슴)
만화응시시, 일반부로 지원가능
※ 상종 및 시상 내역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9)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1027beopnan.kr) / 우편(방문)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
  - 우편·방문 접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 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 만화의 경우 원본 추가 접수

주의사항
- 모든 응모자는 응모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으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출력하여 제출.
- 홈페이지 접수 시 시 · 산문은 한글파일, 만화는 이미지 파일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합니다.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응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문의
공모전 담당자 박수진 : 1027contest@naver.com , 010-6611-4977

근대 불교교육 산실, 승가대학 모태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⑯ 개운사



개운사 전경. 근대교육의 필요성으로 중앙불전 교사가 자리했다.

영도사에서 개운사로

개운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찰연혁을 보면 창건 당시 사명은 영도사(永導寺)였고, 위치는 지금 고려대 이공대 캠퍼스에 있는 인명원(仁明園) 자리였다. 1779년(정조 3) 5월 7일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가 죽자 이곳에 묻혔다. 왕실에 자리를 내준 영도사는 인파 축홍(人波竺洪)이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었다고 적고 있다.

지금 표지석이 있는 인명원 자리를 놓고 볼 때 그곳이 실제 영도사 자리였는지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인명원을 들린 정조의 표현 때문이다. 1779년(정조 3) 8월 10일 이곳에 들린 정조는 재실에서 분양한 뒤 이곳을 정한 당상과 낭청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풍수설(風水說)은 내가 비록 알지 못하나, 대저 간산(看山)하는 법에서는 반드시 산이 빙 둘러싸고 명당이 그 안에 깊이 들어앉은 땅을 취하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 이 원소는 내가 처음 와서 보았는데 산세가 전혀 둘러싸지 않았고 명당이 큰길에 가까이 닿아 있으니, 비록 풍수설로 보더라도 잘 어울린 형국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큰길이 묘혈(墓穴) 앞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이 길을 끊어 막아버리려고 한다 하니, 이 또한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이 길은 바로 우리 조정이 개국한 이후 400년간 다닌 큰길인데, 전혀 서슴지 않고 이내 함부로 끊고 막아버리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그때 간산한 당상과 낭청의 뜻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좌상(左相)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이제 이 원소 한 가지 일은 지극히 한심하다."

정조의 힐책에 좌의정 서명선은 성상의 하교에 황공하여 아뢸 바를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정조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유추해 보건데 묘를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곳에 영도사가 있었을까? 정조의 표현대로 산이 빙 둘러싸이지도 않은 곳에 사찰이 있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운사는 지금의 자리에서 영도사 사명만 바뀐 것은 아닐지 모를 일이다.

개운사는 정조 때에도 영도사로 불렸다. 1786년(정조 10) 지금의 효창원인 문효세자의 묘소를 조성할 때 영도사 승려 13명이 묘소도감의 별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개운사로 등장하는 것은 고종 때이다. 1895년 10월 명성왕후가 시해되자 생명에 위험을 느낀 고종은 198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그해 겨울 그곳에서 명성왕후의 산릉조성을 논의하였다. 11월 27일(양 12월 31일) 淸穆齋에서 산릉을 1차 살펴본 대신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7곳을 살펴보았는데 연희궁과 청량리 그리고 개운사가 거론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 사명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상지관들은 앞의 두 곳에 대한 평가에서 산릉을 쓸 만한 좋은 곳임을 제시하나 개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흠이 없지만 좋은 평가를 내리기에 부족하다 하여 정조의 말고 그리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2월 1일(양 1월 3일) 2차로 살펴본 대신들과 논의에서도 두 곳은 호평을 받았으나 개운사는 평범한 땅으로 평가받았다. 이때 고종은 산릉을 청량리로 정했고 개운사는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일제하 朝鮮佛敎學人聯盟의 탄생지

일제하에서 변질되던 승가의 모습을 지켜본 학인들은 일찍부터 한국불교의 전통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많은 삼보정재가 착취와 억압 앞에 이름도 자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3천 년 정법과 불조의 혜명이 파괴된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학인들은 정통적인 불법 수호의 기치를 들고 '전국학인대회'를 열고자 전국의 40여 개나 되는 강원이 단결하였다. 1927년 10월 29일 개운사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장시간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서 발기인 모집위원들을 선정하여 제반 사항을 위임하면서 학인대회를 1928년 3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이청담을 비롯한 박용하, 정찬종, 김형기, 박홍권, 배성원, 김태원, 정화진 등은 발기인 모집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에 의해 주도된 학인대회는 중생제도의 큰 책임을 느끼고 시대에 적응하는 교학방법을 모색하며 장차 교단의 주역이 되었을 때를 위하여 資糧을 공동으로 준비하자는 의도였다.

교육제도를 확립하자는 강령 아래 교육제도를 초등, 중등, 고등 세 단계로 나누고 그에 맞는 內典과 철학, 지리, 역사, 등 外典의 광범위한 교과목을 정하고 강사를 과목에 따라 전공제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강원은 서울에 1개소, 중등강원은 지방에 6개소 이상, 초등강원은 중등강원 안에 부설하고 그 밖의 각 사찰에도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교무원과 본산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서울에 설치하려는 고등강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이운허와 이청담이 고등강원을 설치하려 했던 개운사를 떠남으로서 무산되고 말았다.

근대불교 승가교육 필요성
개운사 탄생의 원동력
20년간 승가교육체제 다져

그렇지만 이 학인대회는 강원교육에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인들의 계속적인 유대를 지속시켜 朝鮮佛敎學人聯盟이 결성되어 기관지 回光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2, 3차 학인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당시 교단에 교육제도 혁신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여 교단 차원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

근대 불교교육과 개운사

한국 근대불교의 많은 선지식들은 승가교육을 강조하였다. 한국불교를 개혁하자는 개혁론의 주장에서도 승가교육은 빠지지 않았다. 근대 불교교육이 시작된 곳은 원흥사였다. 이곳은 1902년 한국불교를 관리하던 대본산이었다. 그러나 1904년 사사관리서가 폐지되면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지자 1906년 불교연구회에서 명진학교를 세웠다.

이후 명진학교는 교단의 변화에 따라 불교사범학교, 1914년 고등불교강숙, 1915년 중앙학림, 1928년 중앙불교전수학교,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그리고 1940년 혜화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근대 불교교육을 시작한 곳은 원흥사였지만 불교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사회적 위치를 높인 곳은 개운사였다. 이곳이 교육의 장이 된 것은 석전 박한영의 영향이 크다. 불교계의 대강백으로 박학함이 당대의 최고였다. 독립선언서를 썼던 최남선은 "나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는데, 석전에게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석전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이 되자 불교계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중앙불전 교사가 바로 개운사 내 대원암이었다. 이곳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데려다 불교계 동량으로 키워냈다. 특히 문학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많았다. 서정주, 조지훈, 김달진, 그리고 조종현 등 광복 후 우리 문학사에 한 획을 긋던 기라성 같던 문인들이 개운사 중앙불전에서 석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운데 미당 서정주와는 남다른 관계에 있었다. 그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퇴학당하면서 방황하였다. 석전은 그를 중앙불전 학생으로 불러들여 시인으로 키웠다. 그래서 서정주는 석전을 "내 뼈와 살을 데워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평생 존경하였다.

이렇게 근대 불교교육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한 개운사는 혜화전문학교 이후 교육의 장에서 멀어졌다. 개운사는 다시 평범한 사찰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한번 맡은 시대적 사명은 계속되었다. 다시 현대 승가교육의 장이 되어 많은 수행자를 배출한 것이다.

현대 승가교육의 요람 개운사

광복 후 많은 사람들이 불교계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남다르게 노력한 분이 성철과 청담이었다. 성철은 한국불교의 난제인 승가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승가대학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그는 어느 불사보다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경쟁사회에는 수행자가 강원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예견한 것이다.

성철 못지않게 승가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 청담이었다. 그 역시 도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승가대학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현행 강원과 선원의 제도와 동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교육체제를 개조하여 성불할 수 있는 수행자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할 수 있는 승가학원으로의 변신이었다.

1962년 설립된 통합종단 역시 승가교육에 관심을 기우렸다. 1965년 9월 '한국불교 11대 과업'에 포함될 만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승가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8년 7월 10일 총무원은 승가대학 설립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 후 1969년 7월 제20회 종회에서 중앙교육원의 설치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1971년 10월 7일 조계사에서 제1기 교육으로 60명의 수강생을 한 달 동안 교육하였다. 그리고 교육목표도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승려재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성과를 거두기는 너무 미흡하였다.

이후에도 승가대학의 설립은 꾸준히 논의되었다. 1976년 12월 제 45회 중앙종회에서 승가대학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장소와 운영자금 등을 논의하였으나 설립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1979년 2월 24일 의정부 쌍룡사에서 청년 승려들이 중앙불교승가학원을 시작하면서 승가대학의 첫 여정을 열었다. 이후 3월 18일 승가학원은 서울 돈암동의 보현사로 옮겨 연수부와 교양부를 둔 2년제로 시작하였다. 1980년 학교명을 중앙승가대학으로 개칭하고, 12월에 구의동 영화사로 학사를 이전하였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 승가교육이 제자리를 잡은 것은 1981년 개운사로 이전하고 20년간 승가교육의 체계가 세워진 이후이다. 개운사로 옮긴 승가대학은 1989년 7월 각종학교 인가를 취득하여 정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1990년 신입생부터는 정규 대학에 준하는 학력 인정을 갖추고 일반 대학에 걸 맞는 학제와 교육내용, 교육시설 등을 구비하였다. 마지막으로 1996년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의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승가교육의 염원을 이루었다. 20년간 승가교육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듬어준 개운사는 2001년 1월 승가대학이 김포로 옮겨지면서 다시 도심의 조용한 사찰로 돌아왔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기에너지체=기공)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문화재청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구국의 문(文) 마음의 등(燈) **표충서원 문을 열다**

전통산사(山寺)문화재활용사업은 한국의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을 대중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사문화재를 활용해 그 찬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산사문화관광 프로그램입니다.

표충서원 등불교실

교육프로그램 한글교실(사경), 서예교실, 교복 복식체험, 졸업장 수여, 졸업사진 촬영 등

• 일시 2019년 5월 ~ 11월 (매주 일요일 진행) • 장소 표충사 표충서원
• 참여대상 표충사 방문객 및 어르신 대상 • 참가비 무료

표충서원 고사리교실

교육프로그램 단청 색칠하기, 108 염주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우리지역 문화유산(보유 문화재), 위인(사명대사) 주제 스토리텔링 교실 운영, 전통예절·불교예절 교실 등

• 일시 2019년 5월 ~ 11월 (5인 이상 모집일 진행) • 장소 표충사 표충서원, 표충사 경내
• 참여대상 지역 초등기관 학교 및 템플스테이 참가자(미취학, 초등생) • 참가비 무료

문의 055-352-1150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담당자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성지 표충사

美, 본질 가리는 미혹의 꿈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⑯ 서른두 살 지은의 다이어트 생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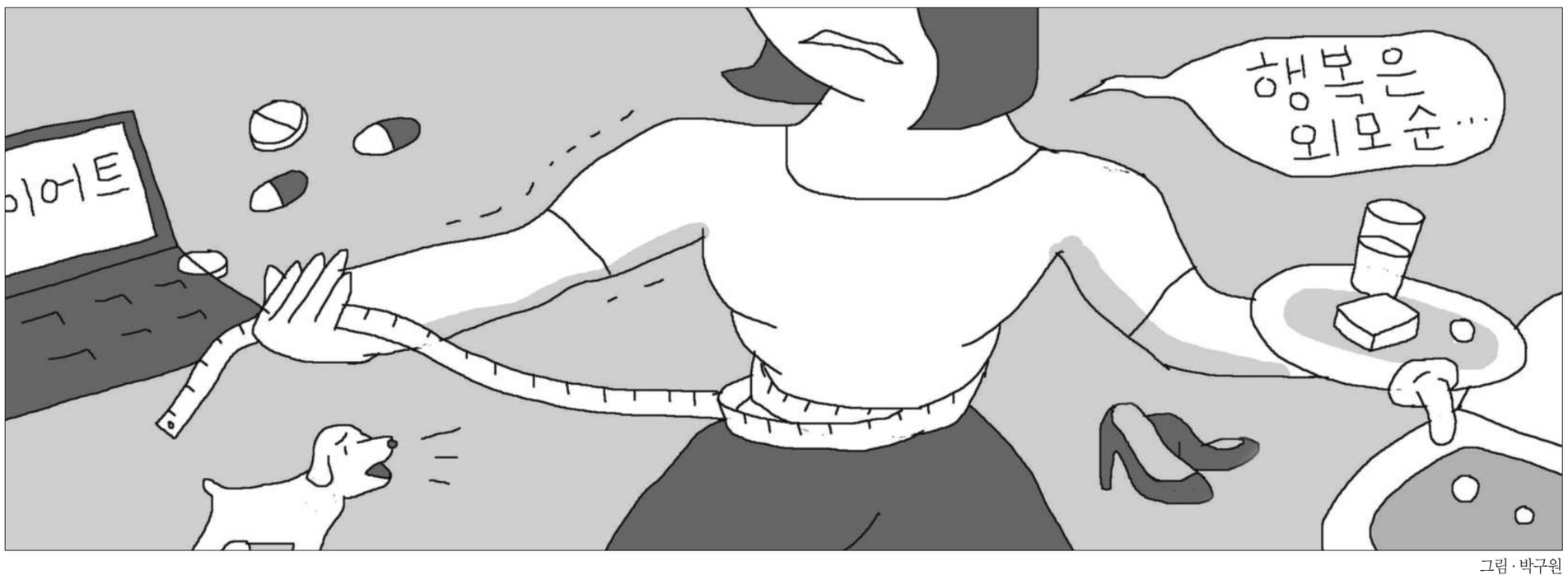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내아이를 곧잘 이겨먹는 지은은 인기가 많아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는 동네 대장이었다. 그런 지은이 자신의 존재에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 왔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전학생 미경이가 세련된 서울말씨와 옷차림으로 동네 아이들의 관심을 단박에 가져가버렸다.

"그 아이가 입은 원피스가 양품점에서 동이 났어요, 모두 그 아이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남자아이 뿐 아니라 여자 아이도 날씬하고 스타일이 좋은 친구를 동경하고 더 따른다고 느낀 지은은 그때부터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지은이는 화려한 미모는 아니지만 특별히 열등감을 가질 외모는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큰 결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큰 골격과 통통하게 살집이 있는 몸매였다.

교복을 입는 중 고등학교 시절이 되자 외모가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가 되었다. 같은 제복이지만 입고 난 태는 제각기 달라 작은 얼굴과 흰 피부의 날씬한 여학생이 눈길을 끌고 인기를 얻었다. 그런 평판은 그 세계에서 유용한 무기이고 힘으로 여겨졌다.

작은 사회의 리더로 당당했던 지은은 성장하면서 여자의 경쟁력은 외모에서 나온다고 단정하게 되었다. 공부도, 체력도, 말싸움도 아닌 미모가 1순위라고 판단한 지은의 승부욕은 몸매 가꾸기로 나타났다. 미모가 권력이라는 성급하고 결함이 많은 가치관을 굳히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고집하게 된 나이가 겨우 열여덟이었다.

날씬한 여성이 멋진 인생을 산다는 미혹

지은의 다이어트 인생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는 20대에 본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다.

외모에 무관심하면 곧 게으르고 무감각한 여성으로 보였다. 몸매를 보기 좋게 유지해야 자기 관리를 잘하고 유능한 여성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여성의 모습을 비춰주는 미디어의 영향도 컸다. 지은의 눈에 보이는 멋진 여성은 죄다 날씬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외모에 신경 쓰고 그 세계만을 바라본 지은에게 다양한 가치의 다른 세상을 살펴볼 여유나 기회는 없었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미혹의 세계는 편협한 외길이었다.

지은은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부터 생식을 주로 하는 현미 다이어트까지 섭렵하며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서서 그날 섭취해야 할 음식물을 정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가 느끼기로는 물만 먹어도 체중이 불어나는 체질이었다. 조금 방심해서 전날보다 500그램 이상 늘어난 수치가 확인되면 불안과 자책에서 종일 벗어나지 못했다. 초기에 섭생 조절과 함께 시작한 웨이트트레이닝은 자주 끊겼고 지나친 체중 감량으로 끈기 있게 운동하기가 벅찼다. 운동은 꾸준히 오래 해야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지만 다이어트는 단시간에 체중감소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단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그녀의 강박은 과도한 다이어트에 매달리게 했다.

체중이 불었다고 판단되면 외출을 삼가하고 더 강력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문제는 지나친 식욕의 억제가 건강한 절식보다는 거식과 폭식의 반복이 된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최근에 가장 효과를 본 다이어트는 간헐금식이었다. 최소 18시간에서 길게는 30시간까지 금식을 한다. 하루 한 끼를 먹거나 심하게는 이틀에 한 끼를 먹는 셈이다. 하루 한 끼를 먹는 간헐 금식으로 첫 주에 3킬로그램까지 줄어들던 체중은 차차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줄기는 했지만 기간에 비례한 수치는 아니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했던 금식의 효과가 줄어들자 그녀의 강박은 점차 심해졌다. 이틀간 물 밖에 먹지 않다가 금식의 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하는데 한 끼 식사에 굶주림을 채우다보니 엄청난 폭식을 하게 되었다. 금식하는 동안 떠올린 많은 음식을 모두 사놓은 후 정해놓은 시간 안에 입속으로 우겨넣듯 허겁지겁 삼킨다. 30분 안에 케이크 한 판과 치킨 한 마리를 먹고는 불안해져서 목구멍을 손가락에 집어넣어 토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금식하는 동안에는 체중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외는 거의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폭식 후에는 토하고 약 먹고 그 후유증으로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가 힘들었다. 화장품회사 영업 사원이던 그녀는 세 번의 이직 끝에 실직자가 되었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서 현상
무리한 다이어트로 고통받아
본질 · 목표를 다시 생각해야

체중계 수치만 바라보고 사는 날들

이제 지은이는 스스로도 무엇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처음에는 날씬하고 유능하고 매력 있는 여성이 목표였으나 체중감소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빠져, 사회생활도 망치고 불안과 흥분의 상태를 오가는 가벼운 조울증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다.

체중이 늘었다 싶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에 대한 혐오로 우울하다가 체중이 줄고 정해놓은 목표에 가까워졌다 싶으면 흥분이 되어 세상 모든 일이 쉬워 보였다. 이대로라면 그럴듯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성과 합리로 생각하면 고작 몸무게가 줄거나 늘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가치까지 매기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지만 이미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수치의 함정에 빠진 지은에게 건전한 사고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기분 변화가 심해지면서 습관성 음주벽도 생겼다. 불안해지면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르면 또 폭식을 한 후 게워내는 일이 잦아졌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눈동자는 흐릿해졌다.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었다.

지은이 10여 년간의 다이어트 인생 끝에 얻은 건 만성위염과 식도염, 우울증 초기라는 진단이었다. 의사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에 따른 다른 즐거움을 갖기를 권유했다. 여러 번 그런 권유를 받았으나 지은의 시선은 돌아가지 않았다. 살만 빼며 그다음은 무엇이든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았다.

폭식 후 토해내는 식습관을 계속하면 위암이 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강력한 경고 후에 지은은 근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여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태가 되었다. 얼굴을 보기만 하면 그 꼴이 뭐냐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러 가기는 싫었다. 혼자의 힘으로 변화가 힘들다고 여긴 그녀의 코칭 미션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6개월의 미션, 단순한 목표 2가지

이런 경우의 코칭은 다이어트의 성공보다는 애초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1. 인생의 목표
2. 다이어트가 인생의 목표가 된 이유
3.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다이어트의 상관관계
4. 체중 감량 이후 1년 이내에 얻고 싶은 변화

어처구니없게도 지은은 이 근본의 질문 4가지에 쉽게 답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거기서 얻으려는 구체적인 목표, 본인이 원하는 변화는 모두 체중감량뿐이었다. 살을 빼고 몸매가 날씬해지면 뭘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 단계가 없다는 데에 그녀는 새삼 놀라고 아득해졌다.

지은은 날씬한 몸매에 관심을 갖게 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최근 폭식과 거식, 습관성 음주에 이르는 체중 감소의 집착을 갖기까지 내면의 변화와 욕망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6개월 간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은 두 가지였다. 체중계를 버리고 몸무게를 재보지 않는 것과 하루 두 끼 시간을 정해 식사하기.

지은이 관점을 돌린 시선은 단순했다.

1. 체중을 빼자! 에서 체중을 잊자! 로.
2. 음식을 피해야 할 살덩이의 원흉이 아니라 흡수해야 할 필요 물질로 바라보기.

지은의 미션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체중계를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날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찾아왔고, 뒷날 다시 버렸다. 며칠 후 온라인 쇼핑으로 새 체중계를 샀으며 택배를 받고 포장을 뜯지 않은 채로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하루 두 끼 먹기는 사흘 만에 무너졌고 다시 금식과 폭식, 이틀 후 다시 두 끼 먹기에 도전 하는 식이 반복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체중계 바늘이 눈에 어른거리지만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고 한 달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두 달이 지나자 가끔 폭식은 하지만 저녁 6시에 밥 반 공기를 먹는 규칙은 반드시 지키게 되었다. 지은이 사는 원룸에는 날짜별로 지켜야 할 규칙이 빼곡히 적힌 다이어리가 온 벽에 붙어 있다. 다이어리의 맨 윗줄에는 이 문장이 씌어 있다.

'살을 뺀 후 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이 파묻힌 집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은 단순하면서도 어렵다. 무명의 미혹은 본질을 가린다. 미혹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본질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본질 아닌 것을 본질로 생각하고,
본질을 본질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
잘못된 생각의 영역에 머무르기에.

본질을 본질로,
본질 아닌 것을 본질 아닌 것으로 알면
그들은 본질에 이른다.
바른 생각의 영역에 머무르기에. 〈법구경〉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내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102기 강의중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종교상담사 강사자격 교육
해동불교 종교상담학과 학인모집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2019년 9월 6일(금) 오후2시 - 4시(개강)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된(보적 수리학 상담법(창시자 보적))을 기반으로 종교상담학과를 개설함에 따라 강의(유튜브: 보적 수리사주 참고)를 진행합니다.

보적 수리상담법은 전세계 모든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숫자풀이법에 의한 수리운세상담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법(한자는 필요하지 않음)이 가능하며, 종교상담학과 이수 후 모든 상담이 가능하며, 수료 후에는 (사)수리힐링상담협회에서 강사 자격증(부적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사용가능)을 수여 합니다.

종교상담사 과정 - 2학기
인생상담, 운명, 운세상담, 개운상담, 방풍상담 등
•1학기(16주) : 기본상담과정(운명과 운세상담법, 택일, 궁합 상담법 등)
•2학기(16주) : 웅변과정(심화 상담법, 풍수, 방풍법, 일진법 등)

강사 자격 과정 - 2학기
개운 방풍법, 육언비법, 영가 찾기법 등 종교상담사에 한함
•1학기(16주) : 고급상담과정(개운 상담법, 풍액과 액운 상담법, 영가 찾기법 등)
•2학기(16주) : 가운법과정(실전상담법, 개운행사법, 영가 천도법 등)

수강특전 1.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학과 수료증 수여(종교상담사 총장 명의)
2. 강사자격증 : (사단법인)수리힐링상담협회에서 자격증 수여

문의안내 02)741-0495~6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나는 있다’ 인식서 연기는 시작돼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⑯ 연기의 탄생



그림 · 강병호

회의론을 극복하고

산자야는 회의론을 창시한 자로 회의외도라고 한다. 회의론을 주장하면서 인도의 모든 지식인층에게 공감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산자야이다. 모든 사람이 산자야의 회의론을 신봉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그 당시 인도 사상계의 현황이었다. 그래서 산자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정하였다. 어떤 주장도 결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답변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산자야가 주장한 회의론이다. 이 회의론이 그 당시 인도사회에 만연해 있었고 모든 젊은이, 지식인들이 이 회의론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나간타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산자야는 사상적인 색채가 강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자야의 회의론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인도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종교를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산자야의 회의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사상을 태동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회의론을 극복한 사람이 니간타와 붓다이다. 니간타는 결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정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조건부적 개연설을 주장하여 회의론을 깨뜨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가설은 세울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신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은가’를 주장하였다. 인과와 전생을 보지 못하지만, 전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조건부적인 개연성을 주장하면서 산자야의 회의론을 극복하였다.

‘나’에서 출발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깨뜨린다. “종교는 틀림없는 절대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주장도 결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을 너는 어떻게 결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느냐”고 〈장조경〉에서 부처님은 설하고 있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나’이다.

회의론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주제는 나밖에 없다. 나만이 회의론을 깨뜨릴 수 있으며 모든 것은 부정해도 분명하게 ‘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인 산자야의 회의론을 깨뜨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한 기본적인 구성의 원칙이 ‘12처’이다. 바로 회의론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는 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부정해도 ‘나’는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에서 ‘나’라 했을 때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뚱이가 있고 이것을 다 통섭할 수 있는 ‘의’가 있다. ‘내가 있다’에서 ‘의’에 대한 모든 이론을 정리한 것이 바로 불교의 탄생이다. 여기서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해도 내 자신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따져보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고 의가 있다. 안이비설신까지는 쉽지만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의가 있다. 안이비설신의를 ‘육근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불교의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여기서 ‘내가 있다’고 했을 때 눈이 있어 눈으로 모든 대상을 볼 수 있다. 눈이 있어서 사람과 물건들의 형상을 파악하게 된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며 코가 있어서 냄새 맡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혀가 있어서 맛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몸으로 접촉하여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의’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여기서 ‘색성향미촉법’이 바로 ‘내가 있다’에서 대상이 되는 육경인 것이다. 육근이 있어 대상이 되는 ‘색성향미촉법’이 있게 된다.

내가 있음으로써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바로 6근과 6경을 합하여 12처라 한다. 12처는 육근과 육경이 작용하여 육근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통틀어 12처라 일컫는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회의론을 극복하고 깨트릴 수 있는 근본적 출발은 ‘나는 있다’에서 출발한다.

> 외도 산자야 회의론 극복 과정서
> 존재 인식론인 연기 사상 만들어져
> 이야기의 출발점은 존재이며
> 존재 대한 인식이 ‘무상 · 무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일체 묻어 두고 눈에 보이고 인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불교가 출발한다. 제행무상 · 제법무아 · 일체개고로 모든 것이 법으로 통섭된다.

모든 것은 연기로

모든 것을 회의하고 있는 회의론을 깨트리고 인간들에게 바른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나’는 있다로 출발하게 된다.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이 부딪쳐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이 생기고 이것이 육근과 육경을 합하여 18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모든 인식이 연기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시간연기, 오온연기, 그리고 12연기이다. 결국은 12처설부터 구체적으로 연기법에 들어간다. 이 연기법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말 탄복할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이론의 구조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반야심경〉을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연기에서는 불생불멸이 없다. 이것이 실상론에 들어가면 불생불멸이 나타난다. 연기론에서는 분명히 있는데 없어진다. 부처님께서 불교를 주장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구체화 하는 근거가 12처설로부터 시작한다.

한번은 연기를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저는 〈아함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는데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체계는 없다’고 했다. 아함경을 수십 번을 보아도 지금 설명한 이 체계는 없고 그 속에서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어떤 인연으로 연기법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알아야 한다. 세세생생 불교 속에서 살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 연기법에 대한 이해이다.

연기의 구체적인 내용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은 연기의 내용 중 일각의 내용이다. 6근 · 6경 · 12처 · 18계 · 시간연기 · 오온연기 · 12연기의 골격은 물속에 들어있는 9/10에 해당되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나는 불자라고 큰소리 칠 수 있을 만큼 떳떳해진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귀하게 키워놓은 자식들을 교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문제에 부딪치면 다 양보하고 말지만. 불교가 삶의 악세사리이지 소중한 보물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불교의 구체적인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세세생생 동안 불교와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른다. 느끼는 만큼 느끼듯이 부처님의 은혜는 세세생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 이렇게 엄청난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배우려고 한다. 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난해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불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만 미세하게 들어있는 원리의 설명 부분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12처 18계를 이해하고 나면 시간연기와 오온연기를 이해해야 한다. 시간연기는 시간에 대한 연기이고 오온연기는 공간에 대한 연기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어려운 부분을 다 이해시키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연기를 가르치시고 공간에 대한 연기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12연기를 가르치신 것이다.

부처님은 당시 뛰어난 사상가인 회의론자 산자야의 회의론을 어떻게 깨트릴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서로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 ‘나는 있다’는 것이다. 이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 부처님은 ‘나는 있다’를 인식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모든 것은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님은 산자야의 회의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존재에 대한 인식론인 연기의 가르침이 나온 것이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존재이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무상이고 무아이다. 이 존재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이시여! 불교가 무엇입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12처가 불교다”라고 답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경과 육근이 바로 12처이다. 우리 몸을 관찰해 보니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주체를 한문으로 ‘근(根)’이라고 한다. 여섯 개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가 6근인 것이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인식을 위하여 기본 요소는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색성향미촉법의’ 육경과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의 육식이며, 이것에서 찾아낸 법칙이 연기의 법칙인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2019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 종교예식

제5회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

| 주최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고통 속에 방황하는
현대인의 삶을 위로하는 법회

일 시 9월 21일 (토) 14:00~16:00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성림사 (마포구 성산동 65-3)
법 주 광용스님 (성림사 회주)
내 용 영가 위로 법문, 축원 기도 등(燈) 공양 의식
참가대상 삶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참가비 무료

접수 및 문의 : 02-737-7378 | www.kbcd.org
기도와 축원을 위해 사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9년 8월 2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개강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작법무 (바라춤, 나비춤)
원서교부 | 2019년 8월 2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팔고의 원인은 많은 욕심
〈八苦〉



新 불교사자성어

㉚ 발고여락(拔苦與樂)

'발고여락(拔苦與樂)' 은 고통, 괴로움을 제거해(拔苦) 즐거움을 준다(與樂)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고통, 괴로움을 크게 여덟 가지로 구분, 정리한다. 그것을 흔히 '사고팔고(四苦八苦)' 라고 하는데, '사고' 는 생로병사 네 가지이고, '팔고' 는 '사고' 에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음성고를 추가해서 '팔고' 라고 한다.

팔고는 '인생 팔고' 혹은 '인생의 팔대 고통'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여덟 가지 고통은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그러니 고통에 익숙해지는 방법 밖에 없다. 고통에 익숙해져서 시시한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한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존이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생(生)은 40세에서 50세 정도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노(老)가 시작된다. 늙어가는 모습은 대체로 추하다. 30대까지는 아름답지만, 고상하게 늙는 사람이 드물다. 또 갖가지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 결국은 갖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요즘은 60세 이후의 늙는 과정이 너무 길다. 중풍, 치매, 암 등 대부분 갖가지 질병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때론 슬프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다. 생로병사 사고 외에 네 가지 고통이 더 있다. 이 네 가지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애별리고(愛別離苦)는 부모와 자식, 형제, 이성 등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을 말한다.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는 특별히 죽음이 오기 전에는 헤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떨어져 사는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성 간의 이별이나 헤어짐은 많고 괴로움도 크다. 요즘은 쿨하게 잘도 헤어지지만, 예전에는 심각했다. 둘이서는 매우 좋아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 부득이 헤어져야 할 경우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은 부모의 반대도 말뿐이고, 설사 반대가 있다 해도 의사 표시 정도에서 끝나지만 과거에는 부모의 반대도 심했고, 또 부모가 반대하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다. 효도와 사랑 사이의 딜레마는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더러는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 '사(死)의 찬미' 를 부른 윤심덕의 비극적인 동반 자살 사건이 그런 경우이다. 그 밖에도 저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의와는 달리 헤어지게 되는 일이 많았다.

원증회고(怨憎會苦)는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이것은 주로 직장에서 많이 겪는 일인데, 상사나 사장이 보기 싫다고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보기 싫지만 하는 수 없이 보아야 한다. 매일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 직장 상사나 동료인데, 보기 싫은 것, 이것이 원증회고이다.

구부득고(求不得苦)는 갖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샤넬 가방이나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가방을 갖고 싶은데, 경제력이 부족해서 살 수 없을 때 비애를 겪는다. 특히 옆집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의 현실은 그럴 수 없을 때 비애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대적인 비애라고 할 수 있다.

오음성고(五陰盛苦)의 오음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리킨다. 오온을 정리하면 곧 육체와 정신이다.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욕망이 매우 많은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고가품이나 명품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 등 욕구와 욕망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겪는 괴로움이다.

이 여덟 가지 고통, 괴로움은 사람에 따라서, 또는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다. 적절하게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은 대부분 이 여덟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팔고(八苦)가 생기는 원인은 '욕심(慾心)' , '욕망' 이 많기 때문이다.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발고여락은 〈대지도론〉에 있는 사자성어다. 불보살님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이 발고여락인데, 자비가 곧 발고여락(拔苦與樂)이다. 자(慈)는 '즐거움을 준다(慈能與樂)' 는 뜻이고, 비(悲)는 '괴로움을 없애준다(悲能拔苦)' 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손바닥 펴고 쥐는 것, 옳은것은?



격절록 강설

㉚ 제11칙 흠산수권(欽山竪拳)

[古則과 着語]

擧, 欽山一日上堂 竪起拳頭. 又開云 "開即為掌 五指參差" (打入葛藤窟窟去也) 復握拳云 "如今為拳 必無高下 (也是靈龜曳尾) 還有商量也無" (合取狗口) 一僧出眾竪起拳頭 (弄泥團漢 有甚麼限) 山云 "你只是箇無開合漢" (也好與三十棒)

흠산(欽山, 흠산문수)이 하루는 상당(上堂)에서 주먹을 세웠다. (그리고는 주먹을) 다시 펴고 말했다.

"펴면 손바닥이 되니, 다섯 손가락이 가지런하지 않다." [갈등의 소굴(葛藤窟窟, 언어의 소굴)로 들어가는구나.]

다시 주먹을 쥐고 말했다.

"지금 주먹을 쥐니, 결코 높고 낮음이 없다. [이 역시 신령스런 거북이가 꼬리를 끄는 격이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개 주둥아리 닥쳐라.]

한 스님이 대중 속에서 나와, 주먹을 쥐어 세웠다. [진흙덩이나 가지고 노는 놈이다. 무슨 끝날 날이 있겠는가?]

흠산이 말했다.

"너는 단지 쥐었다 폈다(=열었다 닫았다)도 못하는 놈이다." [삼십 방을 줘야 한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雪竇即不然" (也隨後打入葛藤去也) 乃竪拳云 "握則為拳 有高有下" (捩轉鼻孔) 復開云 "開則成掌 無黨無偏" (爭知轉却了也) 且道 放開為人好 把定為人好 (總不好) 開也造車 握也合轍 (已在鬼窟裏作活計了也) 若謂 閉門造車 出門合轍 (也是闍黎見解) 我也知你鬼窟裏作活計" (打云 自領出去)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설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 역시 뒤따라 언어문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주먹을 세우고 말했다.

"쥐면 주먹이 되니,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다." [콧구멍을 비틀어 대는구나.]

다시 펴고 말했다.

"펴면 손바닥이 되니, 편파적인 것도 없고 치우치는 것도 없다. [바뀐 것을 어찌 알겠는가!] 자, 말해보라! 펴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쥐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모두 좋지 않다.] 손을 펴고 수레를 만들어도 주먹은 수레 바퀴자국에 맞는다. [이미 귀신굴속에서 활발하게 계교를 부려버렸다.] (하지만) 만약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들어도 문을 나서면 수레바퀴자국에 맞는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스님(설두)의 견해다.] 나 역시 그대들이 귀신굴속에서 활발하게 계교부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선상을)치고 말했다. "(설두스님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관가에) 출두하시오."]

[評唱 1]

師云. 看他古人如此老婆心切. 千方百計擧揚 顯示箇一段大事 令人易見. 中間也有用作示眾 用作借事明物 也有悟去者.

저 고인이 이와 같이 노파심이 간절하였음을 보라! 천 가지 방법과 백 가지 계책으로 거양(擧揚)해서 일단대사(一段大事, 일대사인연)를 드러내 보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보게 하였던 것이다. 그 안에는 시중(示眾, 대중에게 법문을 하는 것)으로 삼는 것도 있고, 차사명물(借事明物, 어떤 일을 빌려 이 일을 밝히는 것)로 삼아 깨닫게 하는 것도 있다.

*흠산문수(欽山文邃, 생몰 연대 미상): 당대唐代의 스님. 흠산은 주석 산명. 복주 출신. 대지환중에게 출가하여 덕산선감, 동산양개 등에게 참학하고 동산의 법을 이어받았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㉙ 이해의 길 10

無常, 긍정과 사랑 에너지

"인생, 참 무상해." 상갓집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인생이 덧없다 느낄 것이다. 싯다르타를 출가로 이끈 것도 다름 아닌 허무라는 감정이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의 출가는 곧 무상함의 실체를 찾는 여정이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은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와 더불어 삼법인(三法印)이라고 한다. 서류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의미로 도장(印)을 찍는 것처럼 세 가지 법(三法) 즉 무상, 무아, 고는 틀림없는 인생의 진리라는 뜻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일체개고 대신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넣기도 한다. 혹은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사법인(四法印)이라 부르기도 한다.

흔히 무상과 허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관점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둘의 지향하는 방향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허무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부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상이나 규범 등 모든 가치체계를 부정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붓다 당시에도 허무주의나 염세적인 분위기가 성행했다.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대중들의 삶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붓다는 부정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붓다는 무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다.

무상 역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허무가 삶이 무의미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무상은 그 반대로 향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한번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의미 있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붓다의 가르침이 인연생인연멸(因緣生因緣滅)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소멸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 내리는 눈도 수많은 인연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가을과의 인연이 다했기 때문에 겨울과 만날 수 있는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겨울과의 인연이 다하면 또 다시 헤어져야 한다. 그래야 따뜻한 봄 햇살과 만나서 벚꽃 흩날리는 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과도 헤어져야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만날 수 있으며, 가을의 단풍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삶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상한 삶속에서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이처럼 무상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상은 사랑이 나오는 중요한 바탕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래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소에 갔는데, 그 옆에서 밭일을 하던 할머니 한 분이 혼잣말로 '죽은 다음에 찾아오면 뭘 하누.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그러는 것이었다.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상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삶 역시 무상하다는 냉엄한 현실과 그 위력을 간과하기 때문에 '다음에 잘 해드려야지.' 하면서 자꾸 내일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시간은 관념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무상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명제뿐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 1919~2011)의 말이다. 수연낙명(隨緣樂命)이라 하질 않았던가! 인연으로 다가온 자신의 운명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앰프 다루기 1초의 아주 간편한 견본으로!

불시에 사찰을 방문하면 대부분 스님들은 아! 우리 법당소리 아직 쓸만해요! 거절! ... 그래도 스님! 여기까지 왔으니 소리 구경이라도 ... 하며 법당에서 소리비교를 하면 장난감 수준의 차이 앞에 스님은 귀를 의심하며 아니! 이렇게 큰 차이가? 하며 난감해 하실 때 스님! 시설비는 장기할부... 아니면 초파일 지나서 하며... 가장 많은 시설을 합니다.

▣ 비싼 시설 마시고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일천이 이천시설 소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 사찰 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부터 ~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동국대학교 융합 가족세우기 상담사 2급과정 모집

가족 간의 얽힘을 풀어내고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삶은 대부분 가족관계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족은 모습도 닮게 되지만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 말, 주로 쓰는 단어, 습관, 정서, 감정, 먹는 음식까지도 닮게 되고 DNA(몸의 세포)을 통해 얽힘은 유전 상속 대물림 됩니다. 삶 속에서 습득된 모든 것들은 DNA(몸의 저장장치)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후손들에게 유전 되고 기록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고향이고 희망이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란 밀착된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일들로써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어 얽힘을 만들고 평생 동안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융합 가족세우기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간의 얽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확인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생각보다 더 깊은 잠재의식의 상태를 조명하고,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형태로 내담자, 촉진자, 대리자들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불가 사이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절에서 스님이 운영하시기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립니다.

수강신청

• 융합 가족세우기 2급 156시간 4학기 정원 40~50명 • 집중 워크숍별도 운영 • **가을학기 : 9월 3일 화요일** • 주간반 15~17시. 저녁반 19~21시

동국대 접수처
• 서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3호선 동대역 하차 6번 출구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교학처
• 02)2260-3728, 3730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9번길 14호 학마을 명상선원 / 051)754-3375
• 부산 계좌 : 농협 351-1090-3369-93 예금주 : 학 마을 명상선원
• 지하철 남천역 4번, 2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남천성당 뒤 kbs후문에서 좌회전 150m

속성반 부산
• 1년 과정 월1회 3째주 토,일요일 1박 2일 집중수업
• 수강료 : 3백만원
• 부족한 시간 집중워크숍 별도운영 보충 총 170시간
• 속성반 안내 전화 : 010-8634-7851

수강생이 아니라도 누구나 상담자로 참여해 볼 수 있으며 참여 후 자기문제가 해결돼 수강생이 되기도 합니다.

강사소개 정행스님(직강)
• [내면의 고민과 행복] 저자
• 서울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가족세우기)
• 서울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 전공
• 가족세우기 촉진자 경력 10년
• 명상심리상담 경력 / 기 에너지 치료 경력 30년
• 명상심리상담 자격증 등 다수



참좋은우리절, 베트남 효법회 봉행

8월 18일, 한국거주 베트남 불자 동참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백중을 맞아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효법회를 봉행했다.

8월 19일 참좋은우리절 큰법당에서 열린 효법회는 베트남 홍법사 스님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유학생 등 베트남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베트남 불자들은 전통 베트남 악기의 연주를 들으며, 고국의 부모님을 위해 꽃과 공양물을 스님들과 부처님전에 올리며 그리운 마음을 대신했다.

참좋은우리절 총무 석현 스님은 "참좋은우리절은 베트남 닥락성에 한글학교를 개설하는 등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라는 뜻은 한국과 베트남도 아닌 우리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베트남 불자들도 항상 절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거주한지 16년째인 김혜영(전주 덕진구) 씨는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며 "백중을 맞아 스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올려드렸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불교대학 동문회장에 박순선 씨

8월 18일 총회서 선임… "매사 앞장"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는 8월 18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박순선 씨를 선출했다. 박순선 신임회장은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화합과 소통으로 협력하며 더 나은 동문회로 변모하고 있다. 동문 선후배가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고 물러나는 일 없이 매사에 앞장서도록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대구불교대학 동문들에게 "여러분이 총회에 임하는 방하의 마음은 진리를 대하는 아름답고도 성숙한 마음의 첫걸음"이라며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도도한 수행의 길로 나가 오늘의 모습이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국장 소임 스님들을 비롯해 김한기 총동문회 제1대 회장 등 역대 회장단, 동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예술 영산재로 순국선열 깊이 추모"

Interview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9월 3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서
순국선열 · 애국지사 추모위령재
독립운동가 후손 토크 콘서트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이렇게 기념적인 해에 태고종 비구니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위령재를 준비했습니다. 불교예술인 영산재를 중심으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온 국민이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를 추모하는 대규모의 위령재를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 앞에서 봉행한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독립운동에 앞장선 스님을 비롯한 애국열사들의 애국정신을 알리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독립운동 특성상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해 애국열사로 불리지 못하는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는 데 무게를 뒀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습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일반인부터 종교인까지 말이죠. 특히 스님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은 그 가치가 대단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후손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위령재가 봉행되는 순국선열추념탑은 조국 광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고,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1992년 8월 15일 건립한 독립운동의 상징이다. 높이 22.3m, 좌우 40m 길이의 추념탑 앞에서 불교예술이자 의식의 중심으로 평가되는 영산재가 펼쳐진다는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행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주 무대로 꾸미고, 순국선열 후손과의 토크 콘서트, 판소리 전통공연, 뮤지칼 갈라쇼 등 다양한 공연을 대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영산재 이수자와 전수자 비구니스님 50여 명이 무대를 장엄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 씨와의 대화마당도 펼쳐진다.

"영산재는 부처님 당시 영축산에서 행하던 재의식입니다. 영령을 위로하는 것이죠. 조국을 위해 몸 바쳐 싸우다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로하는 데 영산재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선열을 기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깊이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 시작에 앞서 가사와 장삼을 수한 스님 100여 명이 묵언을 하며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퍼포먼스는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다도, 캘리그라피, 캐리커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운영돼 가족단위의 관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수행체험에 담긴 韓中불교 유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에
中불교협회 수행체험 방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불교협회 국제포교사스님들이 김제 금산사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국내에서 수행체험을 한 중국수행단은 북경, 감숙성, 안휘성, 섬서성, 호북성 등 5개성 39명의 스님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중국수행단은 금산사 방등계단과 5층석탑, 미륵전을 돌아보며 문화해설사로부터 금산사의 역사와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 예불, 참선 등 수행체험과 탁본체험 등의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금산사 보제루에서 봉행된 입제식에서 금산사 부주지 일원 스님은 "한국과 중국 불교계가 힘을 합쳐 세계에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 금산사를 방문한 중국수행단이 미륵전 앞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한국과 중국의 수행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인 측면과 수행을 동시에 보여줄 정도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게 됐다"며 "길지 않은 여정이지만 많은 것을 체험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수행자이자 전법사로 원만회향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수행단장 북경 영광사 주지 상장 스님은 "전라북도의 유명 불교성지인 금산사에서 수행체험을 통해 한국불교의 역사와 모습을 보고 양국불교의 깊은 위의를 느끼게 됐다"며 "제11차 한중불교체험 행사를 통해 양국의 불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중국불교수행단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익산 미륵사지, 화엄사, 법주사, 천태종 관문사, 진각종 통리원 등을 순례하며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당암 우란분절 천도법회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법사로



해인사 원당암은 8월 15일 우란분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선망부모,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 방장 원각 스님은 "하안거 해제일에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자기주장을 내려놓는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이 없어진다"며 "자기욕심을 버리는 마음자리가 깨달음의 길이니 동체대비사상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현사 독립운동기념판 제막

동화사 지방학림 스님들 역할 알리고자



조계종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주지 지우)는 8월 14일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한 독립운동기념판(스토리보드) 제막식을 개최했다. 보현사 주지 자우 스님은 "동화사 지방학림 스님들은 보현사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며 "이 같은 스님들의 독립운동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려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어르신 무더위 이겨내시길"

진안 쌍봉사, 성수면서 찾아가는 마을밥상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는 8월 21일 성수면 주민센터를 찾아 '8월 찾아가는 마을밥상' 봉사활동을 펼쳤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지역 어르신 80여 명을 초청해 팥 칼국수, 순대, 과일 화채, 음료수, 막걸리 등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했다. 보경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으면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육임 수강생 모집

지금까지의 육임과 다른
새로운 육임을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 수강생 모집

교재	e-book
문의	02)3668-9890, 9871
수강료	50만원
	www.dongbang.ac.kr

특별 이벤트

공념학당 6개월 수강 + e-book (30만원) + 동방대학 수강

일백만원 (대할인 수강생 모집 중)

공념학당 | Tel 02-793-7333

신화불사

매물안내

법당	3포 27평(서울)	3,000만원
종각	육모정 8자칸(서울)	1,200만원
사주문	5포. 전면 11자. 측면 10자(서울)	800만원
요사채	ㄱ자. 33평(서울)	3,300만원
대중간	45평(서울)	4,500만원
한옥	ㄱ자. 33평. 재부(서울)	1억 2천(신재)
사찰	문화재 보유 / 1120평(경기)	35억
사찰	문화재 보유 / 1200평(서울)	80억

☎ 010-6545-2020

www.dongsanbud.net



2019년 55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5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1. 대승불교 2. 정토불교 3. 화엄경 4. 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5 불교문화 6. 선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교수 정성준교수 이미령교수 정엄스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2년차	과목	7. 근본불교 (아함경 2) 8. 반야사상 9. 유식사상 10. 인도불교 11. 중국·한국불교 12. 법화경
	교수진	최봉수교수 이미령교수 묘주스님 정성준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김상영교수 차차석교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각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8월 1일부터 ■ 문의 :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학과별 개강	• 불교다도학과 9월 3일(화)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9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3년과정	
	• 전통범패의식반 9월 4일(수)오후2시 • 한글불교의식반 9월 7일(토) 오후 2시, 4시	
대학원	불교학과 (화) : 화엄경 (2) : 정엄스님	9월 3일(화) 오후 7시
	불교학과 (화) : 보살사상과 관세음보살 : 이미령교수	9월 3일(화) 오후 8시 20분
	불교학과 (목) : 디가니까야 (장아함경) : 최봉수교수	9월 5일(목) 오전 11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258호 | A13 | 전면광고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진실로 여래를 볼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금강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 ◆ ◆
1.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2.개인 비영리 법인 등록
3.종교법인 등록
◆ ◆ ◆
010-9476-9001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대주스님의 불광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외제차·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010-9422-1233
경남종무원 – 창원 010-4582-3366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모셔드립니다
스님 입적하신 후 모실
곳이 없는 스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공주 지장사
010-5363-3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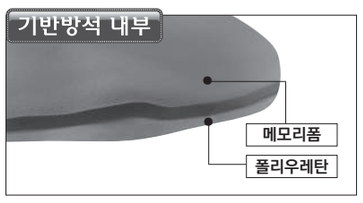
극락도량
극락도량에서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절에서 사실
신심있는 보살님을 모십니다!
55세 미만
010-6536-0120

사주풀이(모집)
효보당 108 사주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푼다
- 왜왔는가.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 과거/현재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 스님, 무속인, 철학인, 법사 대상
- 특별반/개인 3개월 과정모집(완전 이수됨)
-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
010-2901-8923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5층 허공사리탑(7m)
사리부도탑(개별양도)
- 경봉스님 달마
- 불교유물 20가지
- 임환경스님 병풍10폭
- 다도 무쇠주전자 200여점
- 일타스님
- 지장보살 6m 입상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136 | www.jijangsw.com
지장암 010-8585-4908

지장성모암 동참할 분
- 23평 개인암자 건축비 3천-5천만원
- 지장보살어머니 • 소불. 대불. 가족불
- 토속불교처럼 수행마을처럼
- 충북 옥천 마니산 양백봉 아래

우체국 300517-01-001518
조계종만불교종책원
043-744-999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요사채/누각
산신각/한옥별장/재실/펜션
(육송 목제 사용)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10번길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 이민과(원명)
054-636-2509
010-4300-9104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02)2004-8216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8호 | A14 | 전면광고

선업이 있으면 그 자체에 갖추어진 힘 때문에 좋은 업보를 받게 된다. 나라의 왕이 편들어 주는 힘이라 할지라도 업력에는 못 미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승장엄론》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특징 : 전통사찰

◎ 위치 : 충남
◎ 부지 :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 5천만원 정
◎ 특징 : 산및사찰,시내교통 편리,여건좋음,창건주 승계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 사찰 및 수목장 최적의 위치임(경주/울산 경계)
● 주소 :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712번지
● 토지 : 27,000평(상계리 산70번지 수목장 대표 지번임). 현재 지목은 임야이나 부지 조성은 70% 되어있음
● 건물 : 800평(6층/현재 연수원으로 사용함)
● 특징 : 울산 포항에서 20분거리 / 정남향 전면 하천 청수폭포 / 인근 민가없음 타인이 볼 때 절터와 수목장으로 최적격이라고 함
● 가액 : 양도가는 현장 답사 후

건물은 네이버 돈자리연수원 으로 검색

010-3877-6899

(급)사찰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50평. 법당 20평 목조
● 관음전, 종각, 공양간, 차실, 요사채
● 방이 총 9개. 창고. 외부 화장실.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총 2억 5천만원

010-4628-5699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3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포교당안내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 2층. 40평. 방2개. 공양간. 화장실 창고. 베란다. 시설완벽함
● 보증금 500 / 월세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할 수 있음. 금액 조정가능

010-9395-6675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 옥산면
● 대지 : 420평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부속건물 : 삼성각. 관음전
● 석가모니. 아미타불. 미륵석불
● 녹차밭 300평
● 가액 : 1억 8천

010-3906-37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 64평(층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 3000만원/월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7백만에 무조건 양도)
●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일본포교당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 스님,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545-5060
080-5358-5060
070-8836-5060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자락
● 친환경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 뒤 소나무. 10대 이상 주차 가능. 주차장 완비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미륵암 내 빈 독채, 방2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텃밭. 농사 지으실 분
● 가액 : 보증금 100만 / 월세 20만

011-759-0183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 상 급양도 3700만원

010-6431-0408

사찰안내 및 임대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4평 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 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 3동. 32평 1동. 25평 2동 내 임법당 1칸. 주방 9.5평 1칸. 큰방 8평 3칸. 보통방 4칸
● 특징 : 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 거리. 합천읍 20분. 영화테마파크 10분거리. 대병신설 IC(울산-함양간 고속도로 5키로 이내) 현재 공사중 도로 변에 위치한 합천댐 위 명당자리 ● 스님 건강으로 조속 인연을 찾습니다.
● 추천용도 : 사찰, 연수원, 요양원, 펜션, 식당(식당 허가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원(3년 전 매입가액. 대출금 1억 8천만원 포함가액)

주인직 055-933-4887/010-5488-3339

사찰 매매 및 임대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3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3억 5천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4억 5천은 10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보증금 5천/월100만원. 임대후 추후 인수 가능

010-9647-0723

사찰 매매 및 임대

● 위치 : 전주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
● 이성계 태조대왕 천년 영험 기도터
● 법당. 요사채. 극락전(최근2년신축)
● 토지 : 총 약 500평. 국유지 1만평 무상 사용
● 천년기도 용궁 약수터. 대나무 숲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풍수명당 길지)
● 석불 1억 5천만원 설치함
● 가액 : 5억(대출 2억포함). 전세 2억 가능함
● 계약 시 1억 받고 등기이전 해드림 잔금 2억(5년 간 불사하셔서 분할 납부)
● 땅값만 받고 급매(5층 신축 가능 토지)
● 보증금 5천/월50만원. 임대후 불사하셔서 인수 가능

010-9647-072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3층 건물 중 2층
● 방2칸. 33평. 칠보 삼존불(지장.아미타.관음) 신중
● 산신.칠성.영단.소불 50불. 인등. 시설 완벽함
● 아파트 단지 내 시장 5분거리 ●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집기일체 1700만원
● 보증금 1천 /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052-222-6888
010-7612-89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약 80평. 임야 15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방2. 거실. 공양간 / 2층 법당
● 부속건물 : 산신각. 조립식 건물(서재. 창고)
● 가액 : 1억 9천(대출 6천)

010-4824-753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1층. 70평 중 45평. 황토방 편백나무
●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교통편리. 최상시설
● 용도 : 포교. 교육. 사찰. 명상. 쉼터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영등포구 신길역(1/5호선) 5분거리
● 시장인근. 12년 운영 중인 포교원
● 건물 : 3층 중 2층 45평
● 법당 삼불. 지장보살 독립. 산신. 제반시설 완벽
● 가액 : 보증금 1500/7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조정가능
● 시설비 답사 후 상담절충

010-3167-1774

사찰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9천

011-9143-0098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마을 안. 186평
● 조립식 법당. 15평
● 청동, 삼존불, 후불, 104위신중, 독성, 산신 탱화, 요사채, 냉방, 온히터, 앰프시설 완비, 주차시설 완비, 창고 등
● 보증금 1000만 / 월세 30만
● 시설비 3700만. 절충가능

010-9150-0029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 대지 400평 (주차장 100평)
● 법당 20평
● 요사 2동. 30평. 심야보일러
● 마당에 지장보살 입상
● 가액 : 2억

010-3671-5366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산 속 토굴을 구합니다.
● 임대. 전세. 양도 가능

010-7678-5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 입종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사찰안내

● 위치 : 천안. 아산 KTX역에서 5분거리
● 대지 : 121평
● 건물 : 법당 27평. 삼성각. 요사채. 방2개. 거실. 공양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 가액 : 2억

010-7217-757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21-19번지 외 3개동
● 부동산 양도(한옥 및 대지 양도 지리산 청학동 하늘아래 첫 동네, 수려한 경관 및 명당)
● 한옥건평 : 155평, 대지 1,180평 (주변 전, 임야 부지도 있음)

010-3835-713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사찰
● 부지 : 1,785㎡(540평)
● 건물 : 178평(전통목재 단청)
● 1층 266.7㎡(80평). 종무실. 요사채 2층 201.6㎡(61평). 법당. 주지실
● 요사채(창고) 38.88㎡(약12평) 공양간 77㎡(23평). 산신각 2평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372-8968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 총 412.6평 중 대지 200평(답·도로)
● 방2. 거실. 욕실. 주방. 창고
● 20평 허가되어 있어 건축 가능
● 유실수 100여주 심어져 있음
● 1000여평 국유지 사용가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
● 가액 : 2억 4천(대출없음)

010-9411-5302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02-22호
● 대지 28평. 건평 35평
● 2층 법당. 조립식 20평. 칠성. 산신. 영가단. 지장소불 108불
● 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세요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010-8900-487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마을 안. 186평
● 조립식 법당. 15평
● 청동, 삼존불, 후불, 104위신중, 독성, 산신 탱화, 요사채, 냉방, 온히터, 앰프시설 완비, 주차시설 완비, 창고 등
● 보증금 1000만 / 월세 30만
● 시설비 3700만. 절충가능

010-9150-0029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산 속 토굴을 구합니다.
● 임대. 전세. 양도 가능

010-7678-5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 닦아 번뇌를 날리다

日 토다이지, 대불 대청소 '오미 누구이' 회향

박영빈 객원기자

고대 일본불교의 중요한 도량이자, 대불로 유명한 나라현의 토다이지(東大寺)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8월 7일 일본의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언론들은 토다이지에서 대불을 깨끗이 청소하는 '오미 누구이(お身拭い)'가 봉행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토다이지 대불전(大佛殿)에 모셔진 본존 '토다이지 노사나불 좌상'은 752년에 조성됐다. 몇 차례의 병화를 겪으며 꾸준히 보수됐으나, 일본 최초 대불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좌대를 포함해 18m 높이의 이 청동대불은 일본의 국보이자 일본불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최초 조성 시 한반도에서 온 장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불에 1년간 쌓인 먼지를 털고 닦으며, 대불전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행사가 바로 '오미 누구이'다. 본래 오미 누구이는 동대사 주지들의 각 임기 중에 단 한 번씩만 봉행되던 행사였으나 1964년부터 매년 8월 7일에 봉행, 매회 120~150여명 정도의 사부대중이 참석한다.

토다이지 측은 "본래 회랑과 중문 등에는 모래가 깔려있어 청소하기 매우 어려워 횟수가 제한 됐지만, 돌로 길을 포장한 이후론 매년 봉행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오미 누구이는 나라의 여름 풍경으로, 일부러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있다.

올해는 180여 명의 사부대중이 오미 누구이를 위해 모였다. 대중은 이른 아침에 대불전에서 떨어진 욕실서 목욕재계한 후 흰 옷과 짚신을 신고 대불전에

752년 조성된 노사나불좌상
매년 8월 7일 대중과 청소해
이 모습 보러 참배객도 방문
"마음속 먼지도 씻어내는 기분"

들어섰다. 대중의 손엔 제각각 빗자루나 먼지떨이가 들렸다.

오전 7시, 법주스님의 인도로 발견식(撥遣式)이 봉행됐다. 청소를 위해선 불상 위로 기어오르거나, 발로 불상을 디디는 악업을 지을 수 있기에 점안의 반대인 발견의식을 통해 불상을 보통의 조각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발견식을 종료하자 대중이 일사불란하게 대불을 향해 움직였다.

불상의 머리를 청소하는 이들은 대불의 등에 난 구멍을 통해 머리위로 올라가고, 얼굴과 가슴을 청소하는 이들은 천장에 매달린 3개의 바구니를 타고 청소를 시작했다. 다른 대중도 각각 손과 무릎, 연화대 등 자신이 담당한 부분들을 청소했다. 이외에도 협시 보살상과 대불전을 둘러싼 회랑, 중문(中門) 등도 청소가 이뤄졌다.


1년간 대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토다이지 대중, 높이 18m의 대불 청소에는 많은 인력과 각종 도구가 활용된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대중스님의 독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오미 누구이는 약 3시간의 노력 끝에 마무리됐다. 청소가 끝나자 다시 법주스님은 대불을 점안하고, 노사나불 좌상은 다시 1년간 불자들을 맞이하는 자비로운 부처님으로 자리 잡았다.

토다이지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가와 후몬 스님은 "불상에 먼지가 끼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번뇌의 먼지가 낀다. 오미 누구이를 계기로 항상 자기 자신의 먼지를 털어내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대불의 왼손 청소를 담당한 모리야마 노리카츠 씨는 "오미 누구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귀중한 행사다. 부처님을 닦으며 나 자신도 1년간의 먼지가 떨어진 듯한 기분"이라고 감상을 전했다. 또 올해 처음 참가했다는 나카모토 마사히로 씨는 "대불을 이렇게 가까이 직접 느끼면서 엄청난 박력을 느꼈다. 앞으로 1년간 새로운 기분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에 水中 사원 드러나

10년 만 최악의 가뭄 계속돼
롭부리 지역 댐 수면 낮아져

댐 건설 후 장기간 물속에 잠겨있던 태국의 불교 사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름 아닌 가뭄 때문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골머리를 앓던 태국 국민들에게 사원의 등장은 '단비'와 같은 상황.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인디아타임즈(Indiatimes) 등 외신은 8월 20일(현지시간) 20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태국 롭부리(Lopburi) 지역의 왓 농 부아 야이(Wat Nong Bua Yai) 사원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간 가뭄 끝에 4m 높이의 불상 및 옛 사찰의 구조물들이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댐 수면이 낮아진 상태다. 주변이 죽은 물고기와 쓰레기


20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태국 롭부리(Lopburi) 지역 사원이 극심한 가뭄으로 자취를 드러냈다. 사진출처=atlasobscura.com


수면 위로 드러난 사원의 불상을 참배하기 위해 많은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들로 난잡한 가운데서도, 불두가 손실된 해당 불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다른 지역의 스님들도 이 불상에 참배하기 위해 찾고 있다고 한다.

과거 해당 사원은 700여 채 집들이 몰려있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불교의식 및 축제를 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기도 했다. 또 넓은 놀이터와 오락공간도 마련돼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사원의 등장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몬순(monsoon) 기간 동안 강수량이 극도로 적어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해당 댐은 9억6000만㎥ 규모로, 이 댐의 물은 태국 4개 지역 약 130만 에이커 농지에 공급된다. 현재 가뭄으로 인해 3000에이커, 즉 430분의1 정도의 물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축제서 코끼리 학대 논란

스리랑카 사리이운 축제서 병든 코끼리 쓰러져

불교에서는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풀 것을 가르친다. 하지만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불교축제를 위해 나이든 코끼리를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8월 17일 미국의 'CNN'과 프랑스의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스리랑카의 캔디시에서는 지난주, 연례 불교축제인 '에살라 페라헤라(Esala Perahera)'가 봉행됐다. 이 축제는 캔디시의 불치사(佛齒寺)에 봉안된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코끼리 등에 싣고 시가지를 행진하는 행사로 대미를 장식한다. 그런데 이 축제에 동원된 코끼리 중 노령의 코끼리가 무리하게 끌려 나와, 행사 후 쓰러진 것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발생했다.

태국에 기반을 둔 코끼리 보호단체 '코끼리의 소리를 듣는 이들(Elephant Whisperer)'은 페이스북을 통해 "70세에 가까운 암컷 코끼리 '티키리'가 지난 에살라 페라헤라 축제에 동원됐다가 쓰러졌다"고 전했다. 티키리는 노령에 병이 들어 장기간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윈 상태임에도 무거운 장식 옷을 입은 채로 행사에 매일 밤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명과 폭죽, 크게 울리는 음악 역시 병든 코끼리들에겐 큰 스트


축제에 혹사당한 코끼리의 모습, 제대로 먹지 못해 뼈가 앙상하다. 사진출처=CNN

레스라고 알려졌다. 보호단체는 "그 누구도 앙상히 여윈 티키리의 몸을 알지 못했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알아차리지 않았다"며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티키리의 소유주는 "전통적으로 병든 코끼리를 축제에 참가시키면, 부처님 가피로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다"며 코끼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치사에 부탁해 출연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축제 운영위는 14일 밤 마지막 대행진에서 티키리의 출연을 금지했다. 또한 존 아마라툰가 스리랑카 관광개발국 장관은 16일, 관계기관에 조사를 명령했다. 아마라툰가 장관은 "무리하게 동원되거나 축제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코끼리들이 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축제에 동원된 코끼리는 약 200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 로봇 도입… 대중 반응 각양각색

신도들 반응 열광적, 서양 관광객은 거부감 나타내

일본불교의 '로봇 승려'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일본 불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서양 관광객들은 전통적이지 못한 모습에 다소 실망스러운 기색이다.

과학 전문지 라이브사이언스(Livescience)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교토에 위치한 코다이지 사원의 '로봇 승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사원은 올해 초부터 불서 및 불경 등을 낭독하는 로봇사원을 도입했다.

라이브사이언스는 "로봇 승려는 영화 '터미네이터' 속 등장인물인 T-800처럼 금속 부품의 본체와 유연한 실리콘 얼굴, 손 및 어깨가 결합된 형태"라며 "자비를 구현하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로봇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봇 승려가 도입된 후 신도들의 반응은 열광적이다. 한 신도는 "일본인들은 로봇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로봇이 등장하는 만화를 가까이 접했다"고 했다. 일본불교계의 경우 이미 2017년부터 '펩퍼(Pepper)'라는 로봇 승려를 불교식 장례의식에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된 바 있다.

다만 일부 서양 관광객들은 거부감을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보는 이들이 있다"는 게 라이브사이언스의 설명이다.

해당 사원의 주지 텐쇼 고토(Tensho Goto) 스님은 "로봇 승려는 결코 죽지 않는다.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라며 "불교의 지식을 영원히, 그리고 무제한으로 저장해 후대에 전파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은 "물론 기계에는 영혼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저 부처의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상이 철 조각, 나무 등 어떤 것으로 제작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聚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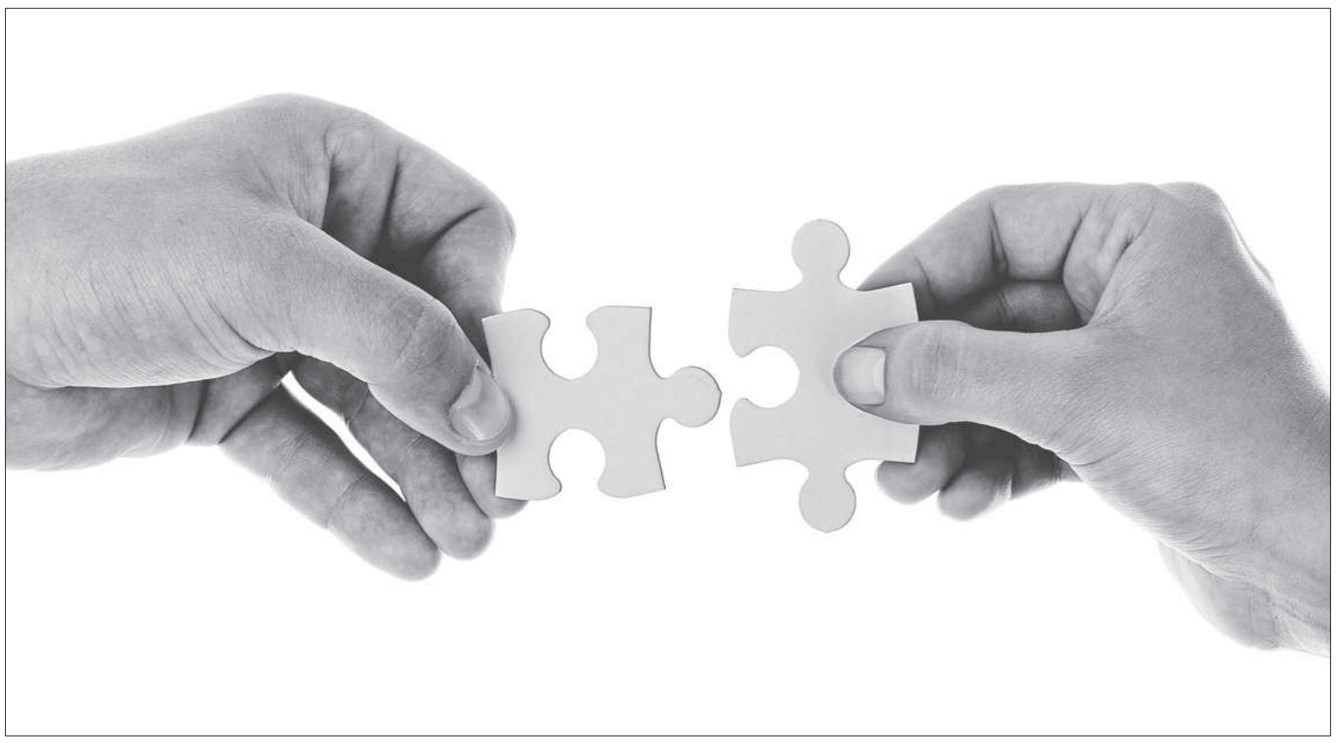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내면 찾아가는 기억의 조각맞춤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⑯ 삶의 실타래 풀어내기



징검다리 글쓰기

징검다리 글쓰기는 '징검다리'라는 은유에서 알 수 있듯 두 발을 겨우 얹힐만한 크기의 돌덩이가 하천이나 강에 일렬로 이어져 있는 것과 같은 글쓰기를 말한다. 강을 건너려면 다른 대안은 없다. 강물에 듬성듬성 놓인 돌덩이를 따라 한발 한발 건널 수밖에. 당신의 생각이나 기억에 따라 첫 번째 징검다리, 두 번째 징검다리… 이렇게 하나씩 돌다리를 걷듯 적어가는 글쓰기다. 〈몰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칙센트 미하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몰입적 사유'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의 대표적 수행전통 중 하나는 화두수행[看話禪]이다. 하나의 언어나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고 깨칠 때까지 죽어라고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화두를 들게 된 수행자는 걷고, 먹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일하고 간에 스승에게서 받은 그 말머리[話頭]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가령, '이뭐꼬'라는 화두를 받았다면 꿈속에서도 '이뭐꼬'를 잊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언어라는 관념의 껍데기를 타파하여 본질을 깨치는 것이다.

징검다리 글쓰기와 화두 공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닮았다. 어떤 언어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면 징검다리 글쓰기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말머리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면서 당신의 생각이나 기억을 드러내고 비운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동안 막연했던 문제가 '아! 이거였구나' 작은 깨우침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징검다리 글쓰기는 심리학자 카틀린 아담스(Kathleen Adams)가 〈저널치료〉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나는 이 글쓰기야말로 생각이 팝콘 튀듯 분분한 사람에게 특효라고 본다. 일관된 생각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나눌 때마다 번번이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 뭔가 일관된 글 작업을 해야 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 경우에도 '징검다리 글쓰기'는 묘약이다. 나는 길거나 짧은 글쓰기를 할 때에도 이 '징검다리 글쓰기'로 사전 워밍업을 하곤 한다.

- 제목이나 주제를 맨 위에 쓴다. 그런 후 주제에 맞는 내 삶의 기억을 일련번호 붙여가면서 적어간다.
- 첫 번호는 반드시 "내가 태어났다"로 쓴다.
- 주제에 따른 생애 초기 기억부터 현재까지 꼼꼼하게 적어간다.
- 반드시 주제에 따른 기억만을 적는다.
- 서술하는 내용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적는다.
- 이왕이면 기억에 따른 감정을 적어도 좋다.

징검다리 글쓰기의 첫 번째 매력은 '일관성'이다. 강 건너까지 일관되게 놓여 있는 돌다리처럼 맥락이 매끈한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매력은 추상적 주제가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가령, '사랑'이라는 주제를 잡았다 치자. 그러면 당신은 맨 먼저 '①내가 태어났다'를 적는다. 그런 후 당신이 '사랑'이라고 할 만한 사건의 최초 지점을 더듬어 본다. 나 같은 경우는 내 동생이 태어나고 외갓집으로 쫓겨나 외할머니 품에서 잠들 때, 그 기억이 사랑이라고 할 만한 첫 사건이다. 세 번째 매력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또렷해진다는 점이다. 네 번째 매력은, 내 삶을 지탱하는 여러 주제들이 그런대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감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쯤 되면 당신 스스로 주제 하나 띄어놓고 삶의 실타래 깊은 안쪽까지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일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내친 김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내놓고 한번 진행해보자.

사랑
① 내가 태어났다.
② 동생이 태어나서 외갓집으로 왔다. 5살 무렵, 외할머니 젖꼭지를 만지작거리며 잤다.
③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자 담임선생님을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피했다.
④ 방상은 선생님이 3학년 담임이었다. 나를 보면 자주 웃어주셨다.
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한 집의 세 번째 집에 동급생 여자애가 살고 있음을 알았다. (이하 계속 적기)

번호를 차례차례 붙여가며 서술하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헛된 생각이나 감정이 사라진 나만의 역사를 캐내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인류학자처럼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진지하게 나의 옛 사

모든 기억은 조각으로 나뉜다
조각 사이를 천천히 연결하면
하나의 주제로 내 삶이 읽혀
화난 일도 적다보면 화 사라져

연을 발굴하여 어깨뼈, 엉치뼈, 하면서 삶의 골격을 맞춰보는 즐거움. '사랑'에 대한 나의 경향성을 새삼 발견하는 맛. 모르고 지나쳤던 '사랑'의 위기. 왜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 당신의 생애 속에서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화나는 20가지 이유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집집마다 한두 건씩 애간장 탈 만한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나만 이런 건가? 당신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흘깃거리는 속내 또한 '애 간장 탈만한 일'이 우리 집에 방금 발생했거나, 미구에 닥칠지도 모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엔 이런 일 없겠지! 하는 기원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예외가 별로 없다. 신은 어느 집이나 크든 작든 유사 사태를 살포함으로써 삶의 공정성과 보편성에 충실을 기하신다. 가령, 당신도 이런 사연을 듣게 되면, 어라, 이거 우리 집 표절 아냐? 하게 되기도 한다.

여전히 근육 팽팽, 오기 창창한 오기창이라는 50대 초반 여자분이 있다. 남편과 아들, 딸도 하나씩 있다. 이 분이 오랜만에 두통약을 먹게 된다. 정량은 두 알이지만, 세 알 먹고 두 시간이 지나도 앞이마가 여전히 딩딩거린다. 남편이 입장할 현관에 마음이 표창처럼 꽂혀 있는 탓이리라. 두어 시간 전, 남현동 사는 시어머니와 통화한 직후, 오 여사는 왜 정량 이상의 두통약을 복용하게 됐을까. "애, 며늘아, 나는 네 덕분에 산단다. 길러놓고 나니 큰 아들이고 뭐고 다 소용 없더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복기해보니 뭔가 짚이는 게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을 살벌한 도끼눈으로 기선 제압 후, 심문에 들어갔다. 남편은 한 번 버티다가 두 대 맞고 불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병수발에 필요한 용돈을 두 형제가 매달 40만원씩 부치기로 했는데, 벌써 3년 전부터 시아주버니 댁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끊었다는 것이다. 그게 다야! 오 여사가 한 번 더 눈에 힘주자, 남편은 2년 전 8월부터 형님 몫까지 자기가 내고 있음을 자백했다. 순간 오 여사는 자신의 극한 감정에 스스로 감전사할 수도 있음을 체험했다. 그와 함께, 며칠 전 시아주버니 아내라는 여자와 통화중에 유럽 10박 여행 다녀왔다는 말이 떠올랐다. 오 여사는 허겁지겁 두통약 한 알을 더 털어 넣었다.

'그 일이 화나는 20가지 이유'는 이럴 때 쓰는 약이다. 남편을 소멸시키거나 시댁을 분해하는 사업 같은 후련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신의 감정 쪼가리, 기억 쪼가리들을 일렬종대로 줄 세움으로써 문제 해소의 기반을 다지는 글쓰기다. 당신은 이 일을 즉결심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그 마음, 우리나라 수백 만 여사님들이 뜨겁게 응원한다. 당신은 응원에 힘입어 손글씨를 내갈기거나 손가락으로 자판을 냅다 두들기면 된다. 내가 왜, 분노에 휩싸인 건지, 냉정하게,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드러내본다.

- 요즘 나의 분노나 우울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사연이 있는지 살펴본다.
- 그 사건에 초점 맞춰 내 안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일련번호 붙여가며 적어본다.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 적을 때는 가급적 4~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지킨다.
- 적어가면서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 차츰, 내가 그를 화나게 할 만한 '의도'나 '생각'이 있는지도 살펴서 드러낸다.

불교에서는 3대 악행 중 하나로 '화(분노)'를 지목하고 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나는 그 세 가지 오랏줄에 묶여 살기 싫어서 불교 공부에 뛰어들었다. 뛰어들고 나니 처음에는 심신이 고요해지는 듯해서 좋았다. 하지만 머지않아 문제도 선명해지고, 오랏줄도 선명해지니 고통도 선명해졌다. 더 심각한 사태는 탐진치 오랏줄이 바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래심줄처럼 묶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다. 내 안의 관념, 내 안의 분노, 우울, 슬픔, 좌절, 충동, 두려움, 근심 따위가 비죽비죽 삐져나왔다.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는 길은 간단했다. 인간의 마을에 그냥 휩쓸려 살면 그만이었다.

그때 어떤 일로 '나를 화나게 하는 20가지 이유'를 적어볼 기회가 있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인이라도 할 것 같았으므로, 나는 적었다. 왜 화가 나는지. 일련번호를 매겨가면서. 그 일련번호를 매기는 심정은 총 한방씩 쏘면서, 네가 왜 내 총알 맛을 봐야 하는지 큰 소리로 집행 이유를 불러주는 심정이었다. 여기서는 오기창 여사의 사연을, 그녀 심정 속으로 들어가 풀어내볼까 싶다.

① 당신도 역시, 남의 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한 게 화가 난다.
② 이제 당신의 숨소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화가 난다.
③ 당신과 당신 가족 전체가 나를 따돌렸다는 게 화가 난다.
④ 당신이 여전히 형님한테 눌려 사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⑤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는지, 때 아닌 고민에 휩싸이는 게 화가 난다.
⑥ 시어머니도 나를 속이면서 눈치 보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난다.
⑦ 내가 바보 천치 같은 모습으로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 화가 난다.

이게 정말 당신 일이라면, 얼마나 적어갈 수 있을까. 여러 사례들을 보아하건대, 생각보다 적을 게 많지 않다. 나의 분노는 식칼이라도 쥐고 망나니 춤을 출 것 같았지만, 막상 내 분노 덩어리를 수제비 반죽 떼어내듯 해보니 아니었다. 이상하다. 이렇게 무게감이 확 떨어지다니. 당신도 이런 체험 해보길 바란다. 이건 마치 정육점에서 꽤 듬직한 고깃덩이를 사다가 썰어놓으니 접시 바닥에 겨우 깔리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접시 바닥에 얄팍하게 깔린 나의 분노 쪼가리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문득, 나비 떼가 생각났다. 왜 하필 나비 떼 생각이 났는지 지금도 아리송하다. 그때 뭔가 훨 날아가버렸을까.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6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개강일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장소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수강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기간 6개월 과정
교육내용 상용의식 및 재의식 사물 다루는 법
수강자격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수강료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준비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문의전화 010-3867-8419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 원명 합장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대행 스님

텅텅 비고 없기 때문에 다 갖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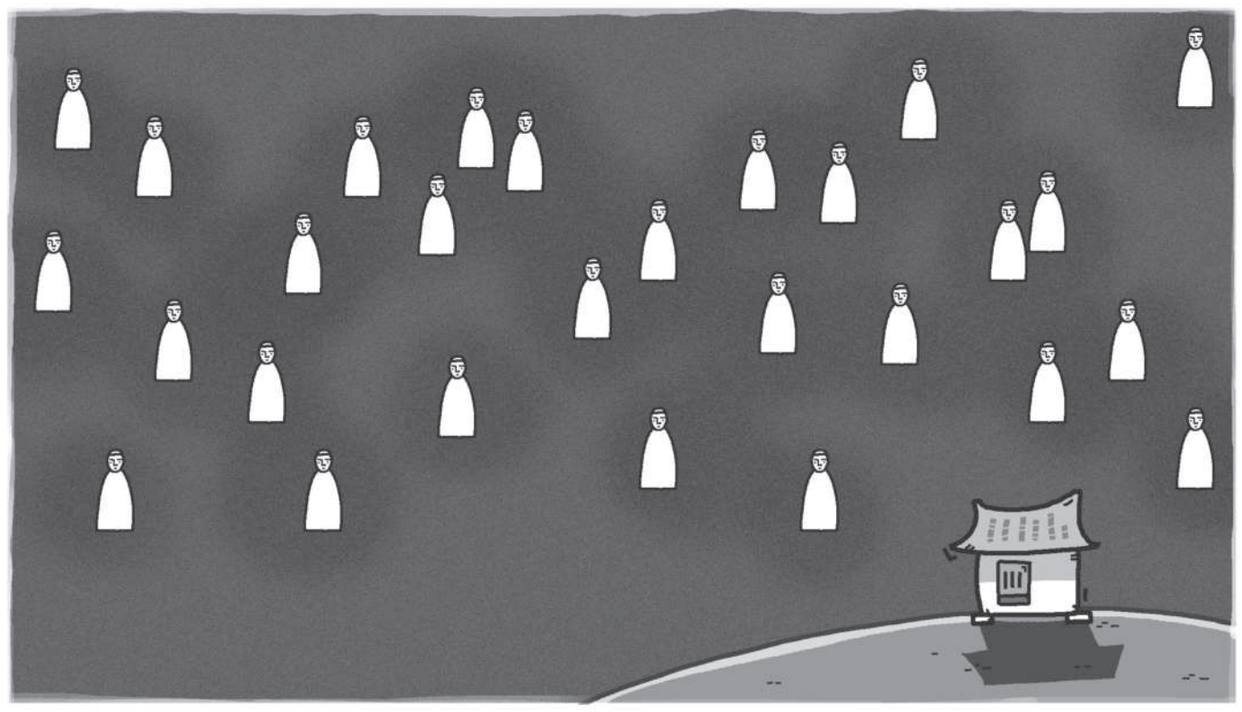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스님께서 제게 내려 주신 불명이 용방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지혜 그릇은 간장 종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간장 종지 자체도 고정돼 있지 않기에 언젠가는 용방이 될 것을 믿으며 몇 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안팎이 공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정된 나가 있고 고정된 너가 있어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팎이 공한 이치를 뼛속 깊이 체득할 수 있는지 먼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항상 말했듯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공한 줄을 안다면" 하는 소리는, 과거에도 이런 때가 있었고 또 미래에도 이런 때가 있을 거고 현재에도 이런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난데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그 공한 도리에서 우리도 역시 공해서 살고 있다." 하는 뜻을 알면, 그대로 행해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공한 것이죠. 공했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그대로 공한 것이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을 자연적으로 해 준다구요. 또 아들을 부르면 아들 노릇을 자연적으로 해 주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그 자연적으로 해 나가는 걸 몰라서 때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그 고민을 다 벗어 버린다면….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자네가 좀 가서 어떻게 해 주게." 하니까 "나오신 게 없는데 가실 게 어딨다고 그러는가."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 한마디에 벌써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이 적으면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랬듯이 마음속으로 자꾸 편안치 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도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스님.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때때로 시간이 나면, 혹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조용히 앉아서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너만이 내면의 모든 이치를, 물리를 깨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틈나는 대로 해 왔습니다만 아직은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잘못되고 잘되고가 없고, 악도 선도 없어요. 잘못된 것 잘된 것이 없다구요. 그 없는 도리를 안다면 '내가 전부 공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다면 모든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없이 말하고, 함이 없이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이 전부 잘못된 게 없어요. 함도 없고요. 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대로 바람이 불듯이, 그대로 구름이 떠다니듯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어느 땐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알게 되겠죠. 지금 걷다가 멈춰지는 그런 걸음이 아니니까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찰나찰나 그냥 걸어가는 거지 멈춰서 쉬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그냥 쉴 수 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질문자1(남) 예, 알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부터는 저 자신의 여러 가지 결점이나 과거에 묻은 습이 나오는 것을 전보다는 조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은 스님의 가르치심인데 습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녹이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나오기 전에 돌려놓으려고 애쓰지 말구요, 항상 내가 살아나가는 데에 모든 걸, 이 세상 살아나가는 모두를 하나로 둥글릴 수 있죠? 모든 거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맡겨 놓을 때,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 저런 일이 생기지 말라' 이러고 놓는 게 아니죠. 놓을 때에 '너만이 그런 사연이 모두 쉬게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놔야죠. 자기의 요량이에요, 그것도. 모든 게 자기의 요량대로죠. 길을 가는 데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 집엘 가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 집엘 가는데 '길을 어떡해야만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디든 빠르든 상관없이 그냥 거길 가는 거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스님. 놓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났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너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잖아.' 라고 관(觀)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든 살리든 너 알아서 해.' 라고 하신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을 짓는 것도 법, 안 짓는 것도 법이니까 지을 만하면 짓고 안 지을 만하면 짓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풀어서 저희들에게 법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법우님들하고 토론을 해 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공부를 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되는 방향으로 '너만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야 재미도 보고 힘도 얻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다음에는 그것마저 놓아야 하니까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너 알아서 해.' 라는 단계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런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큰스님처럼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면, 필요하면 집을 짓고 필요 없으면 안 짓고…. 그때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가르침이 결국은,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법문을 하실 적에 저희들의 근기가 워낙 다양하니까 특정인을 지칭해서 법문을 하실 수 없으니까 두리뭉실하게 하신 거지, 사실은 그게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해한 게 맞는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맞아요. 개개인의 그릇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쓸 것이 있고 큰 사람이 쓸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지죠. 그릇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구요. 그런데 그릇이 없어서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가지고 다니죠. 본래는 다들 있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과 여러분들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으냐.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똥둣간의 똥 막대기' 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에서 말한 겁니까? 자식을 기르는 데 부모가 항상 똥 닦아 주듯 항상 자기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자불(自佛)이 자기를 떠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떠남이 없이 큰 거든 작은 거든 수없이 해 나가는 거를 다 손살피 돌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고통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을 알고 간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써 그렇게 길을 걷게도 하구요. 손을 잡아 끌기도 하구요.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뜻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스님. 이번에는 심성과학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스님께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정신병이라든지 각종의 암 같은 것은 현대 의학 수준으로는 거의 난치 내지는 불치병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기회 있을 적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런 암이건 정신병이건 간에 과거의 영계성, 인과성, 유전성의 영향이 많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의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암 같은 경우도 정상 세포의 분할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많이 밝혀져 있고, 정신분열증 같은 것도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하는 어떤 유전자 결함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A18면으로 계속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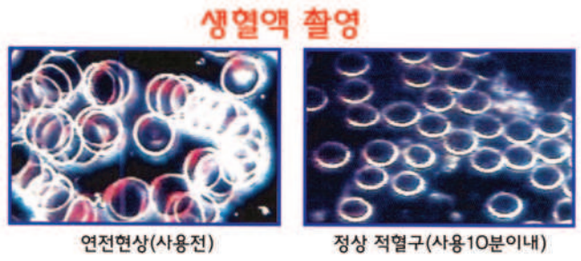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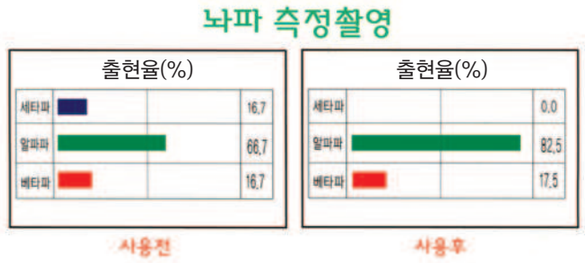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아는 것이 많더라도 놓지 않으면 외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 A17면에서 계속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계성이라든지 과거의 인과성, 이런 원인이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 수억겁을 거치면서 서로 먹고 먹히고 쫓고 쫓김을 당하고, 서로 인과(因果)의 업(業)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다 과거 생에 수억겁을 두고 서로 인과를 주고받았을 텐데 하필 정신병이나 암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왜 유난히 그분들만 그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거기에 무슨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는 건지 그걸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사연이 새록새록 많죠.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둘 아니게 하려면 둘 아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요즘 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를 막론해 놓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죠, 모두가.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애들끼리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불집게로 애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한동네에서 다시 살게 됐는데 또 불집게로다가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걸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공부하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자체가,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곱게 나오고, 내가 악을 쓰고 욕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욕을 하고 나온다 이런 뜻과 같죠. 그러니까 그런 업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업보라고 하는 것도 일들이 벌어지니까 업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방편으로 쓰는 거지 본래 업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사지을 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생명들이 새끼들을 낳고 있으면 그냥 삽으로 척척 쳐서 죽여 버리고, 생명들을 우습게 그냥 잡아서 구워서 먹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면서도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자식들한테로 오거나 자기한테로 오죠.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근본을 안다면 그러지를 않을 텐데, 근본은 모르면서 이 영혼만이 누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하고, 그렇게 아프고 죽겠으니까 그냥 그리로 덤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 년이 지나서든지 이태가 지나서든지 또는 그 후생이 되든지 그렇게 돼서 그 인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게 없어지는 법이죠.

질문자1(남) 스님, 그러면 그런 정신병이나 암 환자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정도가 심한 인과를 더 많이 지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큰스님 살아온 대로니까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온 대로니까요.

질문자1(남)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관하라. 둘 아니게 관하라. 둘 아니게 큰마음의 보시를 하라." 하는 거죠, 항상.

질문자1(남) 네, 지금 제가 두 번째 여쭈려고 하는 걸 스님께서 바로 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병들이 과거 생의 인과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 업식 보따리 속에 다 담겨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사춘기, 10대 후반, 20대 초에 생기니까 그 인과 보따리 정체가 좀 빨리 드러나는 셈이고, 암 환자는 주로 장년 이후 노년기에 생기니까 몇십 년 동안 잘 나가던 사람을 불의에 공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해서 숙명통(宿命通)이 터지기 전에는 자기 보따리 속에 어떤 인과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과거의 업 보따리, 인과 보따리를 빨리 빨리 녹여야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하자면 심성 의학적인, 예방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이미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세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선원뿐만 아니라 불법을 찾는 사람 가운데서 극히 상근기 몇 분을 빼놓고는 대개 어떤 육신의 괴로움이라든지 혹은 뭐, 가난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불법을 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을 적에, 우리 선원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병만 나으려고, 그 병만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의 일련의 가르침을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질병이 생겼건 다른 어떤 괴로움이 생겼건 간에, 눈앞에 닥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어떤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높으신 법력이 있으니까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런 과정은, 제가 느끼기에는 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공 자리에 관하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어떤 병만 나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동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참회를 먼저 해야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먼저 해야 그 병도 나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큰스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일반 신도나 혹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환자를 지도할 적에, 요컨대 병만 나으려고 관하지 말고 참회도 듬뿍듬뿍 많이 하고 새로운 마음의 지평을 열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스님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내가 항상 저 나무들 뿌리하고 싹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싹이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누구나가 다 본래 그렇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일체 우주 전체를 한데 싸서 콩 알갱이 하나로도 할 수 있고, (컵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요런 데로 하나로도 할 수 있고, 한 사발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이도 할 수 있단 얘깁니다.

그 모두를 콩 하나로 해서 짊어지니까 짊어질 수도 없이 무겁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떡하면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하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치 없어질 거고, 믿지 못하고 뭐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자기 정성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나을 뿐이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생을 살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짊어진 콩 한 알갱이를 산더미 같은 산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 셈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다 놔라." 이 소린데, 그러면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불을 진짜 꼭 믿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죠. 눈 뜨고 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는 얘깁니다. 자기 종자인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놔야죠. 진짜로 믿고 놔야죠.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똥 누는 거 뭐,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 하나다" 해도 되고 "콩 한 알갱이다" 해도 되는데, 그 콩 한 알갱이가 짊어질 수가 없으리만큼 무겁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진짜로 믿고 무조건, 가난하든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길을 걷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전부 다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믿어야죠.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이 전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 바람 불듯,
구름 떠다니듯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어느 땐가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상투를 이렇게 하나 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마를 짚어 보이시며) 부처님을 여기다 새겨 놓기도 하고, 지금도 해 놨지만 때로는 금으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바로 그게 크고 좋아서가 아니죠. 그 뜻으로 볼 때는 "텅텅 빈 모습이다. 텅텅 빈 모습인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갖추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텅텅 비고 없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오장육부가 다 있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내 발도 빈 발 부처님 발도 빈 발, 부처님 몸도 빈 몸 나도 빈 몸, 빈 몸이니까 빈 마음. 함도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모두를 알 양으로 애를 쓰지 말고 모두가 공했다는 거, 우리가 공해서 함이 없이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수억겁 전년서부터 인과로써, 인연으로써 둘이 아니게끔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바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빗자루를 하나 줬단 말입니다. "너는 이 빗자루 하나 가지고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구요.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다 놔야 된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렇고 저렇고 이론이 많아서 외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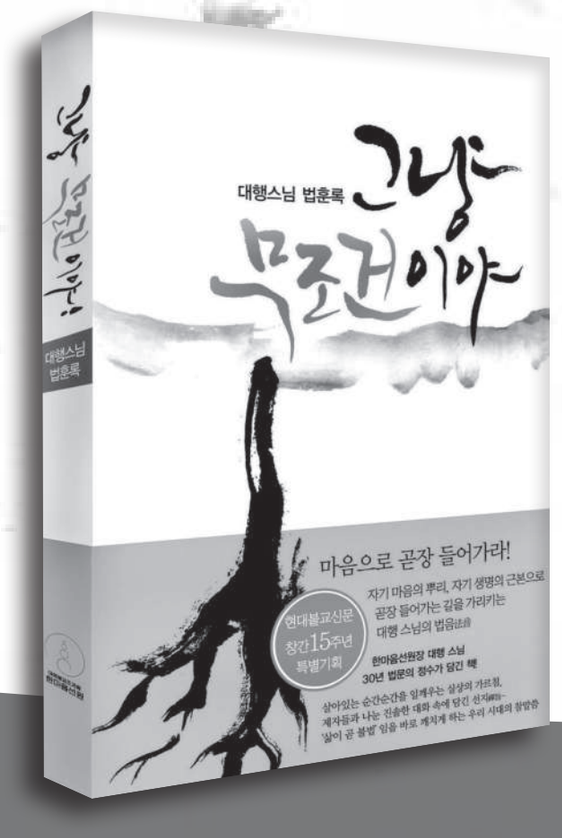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공했으니까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서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연기한 사람이 집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게 온통 모든 것을 환상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진짜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런다면 그냥 야단나죠. 그러나 환상인 것을 알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얼음판을 걸어와도 아주 편안하게 걸어올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었더랍니다. 그런데 고기들을 잡느라고 얼음을 꺼 놓은 자리가 큰 것들이 있어서 잘못 걸으면 풍덩 빠져서 야단들이 나니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데, 스님네 둘은 하나도 거침없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오거든요. 그래, 옆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간이 콩알만 해서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 건너와서 물었어요. "스님, 스님! 스님네들은 이 강을 건너오시는 데 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강을 건너온 사이도 없는데 어떻게 겁이 나겠소?" 하더랍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면 그냥 사는 바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내 몸에 환상이 생겨서 병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관해서 놓으면 그 환상이 둘이 아니게끔 딱…. 왜, 그런 것도 있죠. 이 한 모습에 다른 모습이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구요. 그런 거 보죠? 그런 거 보시면 아시듯이 그렇게 수천 개가 들어가도 그거는 들어가고 나간 사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은 그대로 낫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일 리가 없거든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9년 9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세 숟가락이 이룬 기적



이미령
칼럼니스트

미얀마 오지 마을서 있던 일화
곤궁한 시기 온 마을주민 굶어
참깨 수확 후에는 여유 생겨나
주민들 스님 공양 올리고 축제

스님들 세 숟가락만 음식 가져가
마을 노인 · 어른들도 세 숟가락만
남은 공양물 모두 아이들 차지

'낮고 약한 곳으로 돌아가야'란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을 인내해

며칠 전 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모셨다. 스님께서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들려주었는데 깊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었다.

미얀마 마궤이 낫마욱 오보마을에서의 일이다. 이 지역에서 더프라미스 직원들과 함께 약 3년 간 지역개발과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던 묘장 스님은 마을의 큰 사찰에서 한동안 머물렀는데, 하필 그 마을이 지독한 '참깨고개'를 겪고 있던 시절이었단다. 참깨고개는 우리의 보릿고개를 떠올리면서 묘장 스님이 지어낸 말이다. 보릿고개 같은 지독한 춘궁기를 주민 모두가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시주로 공양을 해야 하는 스님들에게는 그 굶주림이 더 혹독했다. 단 몇 숟가락의 밥만으로 하루를 견뎌야 했는데, 이는 스님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곳 스님들과 똑같이 아주 적은 식사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느라 너무나 힘들었단다.

그러다 참깨를 수확하고 이를 팔면 온 마을에 여유가 생겨난다. 마을 주민들은 가장 먼저 스님들을 공양하는데, 몇 달 동안 전혀 먹어보지 못한 맛좋은 음식들이 커다란 접시에 수북하게 담겨 사찰로 전해진다. 묘장 스님은 이렇게 고백했다.

"정말 기대가 컸어요. 이제야 밥다운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지요."

주민들은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들을 법랍 순으로 스님들에게 올렸다. 그런데 사찰에서 가장 높은 스님이 딱 세 숟가락만 덜고는 그릇을 물리는 게 아닌가. 그 아래 스님도 딱 세 숟가락만큼만 음식을 덜었고, 맛있는 음식이 여전히 수북한 접시들이 한국의 묘장 스님 앞으로 왔을 때 스님도 양껏 먹겠다는 생각을 접고 눈치를 보며 세 숟가락만큼만 덜었다. 그 다음 스님도, 그 다음 스님도…. 그 사찰의 모든 스님이 딱 세 숟가락만 음식을 덜었고 접시의 음식은 거의 그대로인 채 마을의 연장자들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인들 역시 모두 세 숟가락만큼만 음식을 덜었다. 이어서 그 사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세 숟가락만을 덜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풍성한 음식들을 아끼는 광경을 지켜본 묘장 스님은 의아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릇에 거의 그대로 남겨진 음식들의 종착지를 보고 스님은 "아하"하고 무릎을 쳤다.

그곳에는 마을 아이들이 있었다. 스님은 말했다. "그 많은 음식들을 아이들 앞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온 수북한 음식접시를 받고서 원 없이 맘껏 먹었단다. 스님들과 어른들은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위해 그 혹독한 굶주림 끝에 찾아온 달디 단 음식조차도 세 숟가락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조절했던 것이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분명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리라. 소중한 것은 흐르고 흘러 가장 낮고 약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각오,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함께 견뎌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모진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기적은 바로 이런 믿음과 실행 끝에 찾아오는 것 아닐까.

어차피 세상에 빈부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면, 그래서 귀천의 차별도 당연히 생겨나게 마련이라면 생각을 좀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제 앞으로 찾아온 이익을 남에게 돌릴 기회와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세상이 굶주렸는데 자기 밥상만 풍성한들 그 밥이 달고 맛좋을 리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社 說

간화선의 경쟁, 선택 아닌 필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인 간화선이 다양한 수행법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조계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이 나왔다.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가 조계종 화합과혁신위원회 토론회서 밝힌 이 같은 견해는 조계종 내부가 아닌 외부인사의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간 한국불교는 간화선을 가장 수승한 불교수행법으로 평가하면서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가보(家寶)처럼 여겨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분명 간화선을 대하는 이 같은 자세는 일종의 신비주의로 작용해 대중에게 비범한 수행법처럼 느껴지게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자세는 더 이상 대중에게 통용되지 않는다. 도리어 고루하거나 어려운 수행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과거 전국의 선방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커피가 이제는 차(茶)를 제치고 스님들의 중요한 기호식품이 됐듯이, 요즘 선방에는 간화선이 아닌 위빠사나 등의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조계종의 현실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서양과 동남아 등을 찾아다니며 외국인들에게 전한 것도 간화선이 아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었다.

간화선의 위기는 곧 조계종의 위기다. 육조 혜능의 조사선이 해동 초조 도의국사에 의해 한반도에 전해지고, 이는 긴 세월을 거쳐 간화선이라는 독특한 한국불교만의 수행법으로 변모했다. 이제는 다시 한 번 변화를 꾀할 때다.

간화선을 현대적으로 풀어내 대중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면 조계종의 백년대계는 역사 속 박제로 끝날지도 모른다.

불교의례 가치 알려 나가자

영산재와 수륙재에 이어 생전예수재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각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도 머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불교의례와 의식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각종 세미나를 통해 그 의례와 의식이 지닌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알려나갔다. 여기에 각종 의례절차를 복원하고 설행했으며, 전승을 위한 전수자를 발굴하고 기관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그 의례와 의식이 지닌 참의미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홍보하는 것에는 모자람이 있었다. 의례와 의식의 형식에 얽매여 이를 설행하는데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영산재와 수륙재가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안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의미를 지닌 만큼 의례 설행과 함께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함양의 프로그램이 동반 수행되어야 한다.

생전예수재의 경우 생전에 자신의 죄업을 참회한다는 의미가 있다. 스스로 업을 녹이는 수행을 통해 사회를 자정해가는 의미가 크다. 생전예수재가 무형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이러한 의미에 맞게 스스로를 참회하고 공공선을 늘리는 현대화된 프로그램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불교전통의식은 의식대로 전승하면서 이해하고 참여하기 좋은 다양한 후속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함이다. 이와 함께 이들 의식이 가진 참가치와 의미도 적극적으로 알려가는 움직임도 필요하다. 의례와 의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생명을 지닌다. 불교계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음산책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자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성장을 조력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담자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상담은 오묘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전문성과 성숙된 의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인성을 갖춰야 한다.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명상을 만나며 삶이 안정되고 기쁨이 깊어지면서 내면이 밝아졌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곧 상담이요 불교가 바로 명상임이 명료해졌다.

상담과 명상은 내면의 세계라는 같은 곳을 향하지만 상담은 자기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주의의 경향이 강해지지만 명상은 자기를 소멸함으로써 개인을 넘어 세상을 밝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부처님은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본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을 확연히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러면 고통도 괴로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욕망,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에 연연함으로써 눈앞에 지나가는 새로운 현실을 놓치게 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순간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부처님은 내담자를 치유하는 탁월한 상담자였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도벽' 문제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청년은 "마음은 훔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몸은 이미 길들여져서 보이기만 하면 훔치게 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훔쳐라, 그러나 알고 훔쳐라"라고 훔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했다. 청년은 훔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갔지만 "훔쳐라"라는 한 마디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덧붙여 "알고 훔쳐라"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청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에 당황했으나 깨달은 분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을 화두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손이 다른 사람의 물건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이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손을 멈추며 '알고 훔쳐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자신의 도벽행위를 멈추었다.

이러한 문제를 일반상담에서는 어떻게 할까? 대체로 내담자의 발달사를 통해 도벽성의 원인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행동대안을 찾아 생활에 적용해 보아 행동이 변화될 때 해결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부처님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고 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직관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

부처님은 늘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관계적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불교가 참된 평화를 이루려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상담은 남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려는 기본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록 세상의 중심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세상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당신의 수행력(법력)은?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요즘 뉴스를 보면 조현병 환우들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을 비롯한 대형사건 사고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쉬쉬하며 그들은 정신병동으로 내 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로 우리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고 있으니…

여기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를 만나면 어떡하고 있는지… 성직자의 신분이라면 여기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이다.

오래전에 유명하신 큰 선승께서 법문 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불자라면 기억할 것이다.

어느 성자께서는 길을 가다 정신을 잃어버린 환자(조현병)와 육체의 병을 앓는 이(요즈음 각종 암, 희귀병)를 만나면 그는 단번에 이마에 손을 대어 마귀를 쫓았고, 육체 병을 앓는 이는 아픈 곳에 손을 대어 그를 낫게 해주었는데, 나는 일찍이 출가하여 여태껏 수행정진을 했으나 법력이 없어 그런 환우를 만났으나 한 번도 살려내지 못했노라고 대중 앞에서 참회하셨다.

어디 그 분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그러한 환우들이 절에 오면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다. 그것도 몇 번이고 해야 한다며 돈만 챙기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수행을 통한 법력이 없는데 그러한 푸닥거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 참회하고 참회할 일이다.

부처님도 과거 생으로 부터 오랜 겁을 두고 닦고 닦았기에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권능(법력)을 가질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 생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도 닦고 닦아야 언젠가는 그러한 법력이 생길 것이다.

훗날이라도 기약하려면 지금 당장 술, 담배부터 끊고 절집에서 하고 있는 사행행위에 불과한 것(사주, 철학, 삼재, 부적, 입시기도, 고기방생, 성지순례, 인등, 스님생일, 운기도, 제수기도, 각종 합격기도, 기타 등등…)을 단번에 끊고 시중에 차고도 넘칠 만큼 많은 우리의 지도서인 경전과 조사어록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과 조사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신들이나 그러한 처소에서 거처하며 묵인하는 우리 모두는 부끄럽지도 아니한 가.

더군다나 법문하고 불교대학까지 운영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법문내용을 좀 달리하자. 그러니 그 어디에도 법력이 없을 수밖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님이 공영방송에서 질문자가 "조현병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라고 묻자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큰 행사인 세계○○대회를 할 때 똑 같은 질문이 나오자 역시 거기서도 정신병원에 보내어 참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신통으로 여기에서 저기를 찰나에 이동할 수 있다고… 또 나를 찾아왔던 명상단체 대표는 공중부양을 한다나… 그래서 여기 신도분이 그럼 공중부양을 해보이라고 하니 분위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나… 불자들이여 그러한 신비를 조장한 얘기를 하면 즉석에서 보여라고 당당히 얘기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그렇게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는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입은 굳게 다물고 실천을 통해 체득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경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

〈사례 ❶〉 – 담도 암, 담낭 암

2018년 초 봄에 20여 년 전 서울 큰절에 있을 때 알았던 보살님이 전화가 왔다.

스님 별고 없으시냐고 묻고는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 서울 연세0000병원에서 담도, 담낭암 3기이며, 이미 전체에 전이가 됐다는 것이며 수술은 약7일후 예약이 잡혀있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을 보니 암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수술할 수 있는 이는 초기 암인데 그 중에서도 20% 미만인데다 생존율은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3기에다 72세 고령인데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어쨌든 형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개복과 동시 손도 못 써보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얘기한 것을 형제들이 녹음을 떠서 이 스님한테 보내왔다.

백혈병등 많은 환자들을 기도해 왔으나 의사 말을 듣고 긴장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미룰 상황이 아니라서 열 일 제치고 바로 기도준비 해서 여기 스님들과 서울로 향했다.

형제분들을 전부 환자 댁으로 오게 하여 그 집에서 저녁공양 후 환자 방으로 가서 스님들과 형제분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 기도를 했다.

근데 배에 손을 대니 무엇인가 손에 잡히길래 묻자 병원에서 장기끼리 협착이 되면 안된다고 구조물을 넣어서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를 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적이 꼭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나왔다.

그리고 수술 날 환자의 배를 개복해보니 전이되었던 암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간에 조금 붙어 있는 것만 아주 조금 떼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3일 뒤 의사가 하는 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예외라고 하면서 항암등 방사선 치료를 전혀 받을 필요도 없고 약도 안 먹어도 된다"며 3일 만에 바로 퇴원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초파일이 되어 보살이 초파일 하루 전날 연등사 스님에게 꼭 공양대접을 해야 한다며 음식점에 갔는데 그 곳에서 보살생일을 공포하는 것이다.

이미 부모로부터 이어온 연은 다했고 스님기도 덕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년부터 내 생일은 새 생명을 얻은 날 생일잔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이 분은 1년에 3~4회 정도 온다.

• • •

〈사례 ❷〉 – 조현병

50대 중반에 접어든 스님이 전화예약 후 찾아 왔다.

인사말을 하는데 발음도 시원찮고 버벅대는 것이다.

어디가 제일 아프냐고 묻자, 몸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염불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몸이 아팠고 말을 더듬었냐고 하자, 처음에는 몸이 조금씩 아프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픈 강도가 심했고, 급기야 말까지 더듬게 됐다고 한다.

그럼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니, 몸보다 염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받고 싶다고 했다.

도대체 지난세월 어떻게 수행했길래 병명도 없는 이런 현상이 왔느냐고 또 묻자… 별 말이 없다.

다시 물을테니 진솔하게 대답해 주기 바란다하고는…

불보살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삿된 것들 사주, 철학, 부적, 삼재, 각종기도(합격, 재수, 운, 용왕, 산신), 고기방생, 성지순례, 인등 등을 했느냐고 묻자, 그런 것 안하는 절이 있냐고 되레 묻는다.

연등사는 그런 것 하지 않는다. 어느 경에 어느 조사어록에 그런 것 하라고 하드냐고 하자…

또 49재, 천도재를 지내냐고 물으니… 또 가만히 있는다.

수행력으로 다져진 법력이 있어야 그 힘으로 영가를 움직일 것이 아닌가요? 이미 그림자가 들어와 있는데.

얼마전 49재 들어와 있다고 하길래, 당장 그 유족들을 불러 재 비를 돌려주고 이 돈을 불우이웃 돕기나 장애인 단체, 요양원, 복지관, 소외된 계층에 망자의 이름으로 기부하라 했다.

그러면 그 영가는 천국 또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극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싶으면 필히 참회하고, 본 사찰은 비 불교적인 행위(사주, 삼재등 이미 나열한 것)를 사절 한다는 프랜카드를 절 입구에 걸고 인증샷을 찍어 연등사로 보내면 그때 직접 가서 확인하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며 일주일 시간을 주어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다.

• • •

절 집안에서 신통, 방통 영험한 뜬소문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바른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그 법력으로 많은 이들을 살려서 그들을 바른 정법불자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사자"란 영화를 보았는데, 종교를 가진 이라면 이 영화를 꼭 시청함이 좋을 듯하다.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른 믿음으로 수행하면 성경에서도 손에 두 가지 권능을 주는데, 첫째는 마귀를 쫓는 힘을 주며 두 번째는 아픈 이를 낫게 하는 힘을 준다.

이러한 내용은 경전과 조사어록에서도 쉽게 나오는 얘기다.

최상의 공덕과 복덕은 수행력으로 환우(조현병, 전이된 암, 희귀병)를 낫게 하는 일이고, 그 것에 미치지 못할 시는 그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어느 해 초파일 법문에서 수행자로서 최상의 덕과 복은

첫째 출가하여 수행정진 끝에 얻은 수행력(법력)으로 아픈 이를 치유하는 일이며,

둘째 수행력이 부족할 시는 아픈 이를 돌보는 일이며,

셋째 수행력이 아예 미치지 못할 시는 오로지 바르게 공부한 것을 바른 실천을 통해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고 하셨다.

이것 모두가 실천행이다.

수행자는 실천행 없이 앉아서 입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떠드는 것은 출가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 각 전문가들 심리상담 등 명상, 요가, 음악 기타 전문가들이 차고 넘친다.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니 그들에게 맡기고 수행자는 수행 끝에 얻은 수행력(법력)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나투어야 할 것이다.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자 이쯤에서 또 다시 각 방송매체에 제안합니다. 오래전에 이 지면을 통해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제안 합니다.

예전에 JTBC 방송에서 이영돈 PD가 "십대 점술가를 찾아서"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처럼 사주, 철학, 점 보는 무당프로는 고사하고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원, 기적, 가피를 체험할 수 있게 소문만 무성한 종교인과 방송스타급 성직자를 출현시켜 그 수행력(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을 펼쳐봄이…

여기에 조현병,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 등의 환우를 공개된 공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대로 시청자들이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즉문즉설 안내

내 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일 시
2019년 9월 22일 오전 10시

장 소
연등사 대웅전

참가자격
누구나

기타사항
· 당일 개인면담은 안 되고, 참가자에 한해 일정통보
· 앞으로는 재정이 해결되면 스님들 조현병 및 각종 암 치유 사례를 쓰고자 함

일부 신도님 연락처
· 010-4807-6932 [박○○]
· 010-3143-5302 [무 현]
· 010-9707-4808 [박○○]
· 010-8291-9423 [변○○]
· 010-5699-3173 [박○○]





一萬 문수보살과 함께 걷는 길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⑥ 오대산 중대 사자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산은 저마다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오대산 역시 마찬가지다. 오대산에는 관음, 지장, 대세지, 문수, 나한 등 5만의 보살이 상주한다. 오대산의 이름은 5만의 보살이 상주하는 '다섯 곳(5대)'에서 왔다. 산 전체가 부처님의 그늘이다. 어디서 길을 시작해도 길 끝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있다. 또한 어디에서 길을 잃어도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있다. 그래서 오대산을 걷는 일은 모두 '순례'다. 어느 길에 들어서도 부처님의 그림자를 밟게 된다. 오대산에 선다. 그 옛날 자장 스님이 걸었던 길을 걷기로 했다. 중대 사자암으로 간다. 그 길은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대 사자암은 적멸보궁을 지키는 외호도량이다.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 사자암이다.

문수보살에게 길을 묻다

상원사에서 길을 시작한다. 상원사에서 중대 사자암까지는 걸어서 약 20분길이다. 사자암이 있는 중대는 일만의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그 일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이는 자장 스님이다. 그리고 상원사가 그 일만보살의 시작이다. 상원사에는 문수보살과 문수동자를 모셨다. 일만 문수의 첫 번째 얼굴을 본다. 문수보살을 염원하는 스님의 염불소리와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문수전에 들러 문수보살과 문수동자에게 길을 묻는다. 사자암으로 가는 길과 마음속에 얽힌 여러 길들을 묻는다. 문수전에서는 많은 대중이 길을 묻고 있다. 길마다 부처님 길인 오대산이지만 역시 길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눈앞에 길은 많아도 그 길을 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이란 '법'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곁에 두고 살아도 부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도 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이다. 사자암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시작했다. 문수보살에게 길을 물었다.

문수보살이 일러준 길을 시작한다. 길은 숲과 숲이 만들고 있다. 산이 허락한 만큼이 길이다. 길이 있다는 것에서 많은 생각이 인다. 마주친 것들과 지나친 것들, 그 속에 남아 있는 것들, 이제는 마주칠 수 없는 것들, 지나칠 수도 없는 것들, 길 하나가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준다. 문수보살이 일러준 길은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한철 뜨겁기만 했던 태양의 빛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숲의 빛깔이 달라지고, 바람의 길도 달라지고 있다. 새들도 알고 있고, 벌과 나비, 길목마다 따라오는 다람쥐들도 알고 있다. 늘 우리가 제일 늦다. 와야 알고 가야 안다. 새들보다, 벌과 나비보다 늦은 우리는 그래서 문수보살과 함께 걸어야 한다.

큰길을 조금 걷다보면 작은 개울을 만난다. 개울을 건너면 경사진 계단길을 만난다. 계단길에서는 일 보 일 보가 뚜렷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나는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한다. 부끄러운 나, 어리석은 나, 게으른 나, 그렇게 '나'는 점점 늘어난다. 문수보살도 하나 둘 함께 늘어난다. 나 하나에 문수 하나. 그렇게 일만의 문수와 함께 걷다보면 사자암과 만난다.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41~43번 사찰까지 여정 〈上〉

B4 책세상
정념 스님이 오대산에서 보낸편지

B5 문화
불교중앙博 '모악산 금산사~'展

B6 학술
경주박물관 신라학 국제심포지엄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목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사자암 비로전은 사방 8면에는 각각 다섯 사자좌의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상계에 500문수보살상과 하계에 500문수동자상을 모셨다.


비로전 내부.


상원사 적멸보궁.


비로전에서 본 오대산.

'오대산 중대 사자암' B1면에서 계속

5만 보살 상주하는 오대산
645년 월정사와 함께 창건
1만 문수보살 상주 도량
적멸보궁 지키는 외호 도량
비로자나부처님 주불로 모셔
5대 상징 5층탑 형태의 전각
상원사 적멸보궁 가는 길
길 걷는 내내 독경 들려와
자장 스님 불사리 모신 곳
진신사리 증표 사리탑비 세워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

작은 〈화엄경〉 사자암

한 발 한 발 걸어 오른 길은 어느새 해발 1000미터를 넘은 자리다. 계단 길의 마지막 계단 끝에서 사자암을 만난다. 도량의 모습부터 남다르다. 산세를 그대로 따라 지은 전각은 5대를 상징하는 5층탑의 형태를 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지붕들만 얹어 놓은 듯한 모습의 전각은 전각이라기보다는 숲의 일부처럼 보인다. 그렇게 최소한의 숲을 빌려 지은 사자암은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셨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로 모셨다. 일만 문수보살의 마지막 얼굴이 아닐까.

사자암은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목이며, 보궁을 지키는 외호도량이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적멸보궁이 있다.

적멸보궁이 643년에 세워지고 2년 뒤에 월정사와 함께 사자암이 세워졌다. 1400년(조선 태종)에 중창됐으며, 이후 왕실의 내원당으로 명종 때는 승영(僧營)사찰로 보호되기 시작했고, 1644년부터 1646년 사이에 중수됐다. 이후에는 왕실의 보호로 사세를 유지하고 1878년(고종 15)에 재건되어 요사채로 사용되던 낡은 향각을 2006년에 5층탑 모양으로 새로 지었다.

사자암의 비로전 앞에 서면 오대산이 한 눈에 들어온다. 먼 능선 너머에서 뭉게구름이 몰려오고 스님의 염불독경 소리가 오대산을 채운다. 다른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세상은 없을 것 같은 풍경, 사자암이 지닌 비경이다.

비로전에서는 적멸보궁으로 가는 대중과 적멸보궁에서 내려온 대중들이 법신불께 향을 올리고 있다. 비로전 안의 사방 8면에는 각각 다섯 사자좌의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상계에 500문수보살상과 하계에 500문수동자상을 모셨다.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 깨달음을 이루자 석가모니불과 일체가 되어 수많은 보살들에게 비로자나불의 무량한 광명에 의지해 설법했다. 그렇게 비로자나불에 의해 정화되고 장엄된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를 의미한다. 사바의 중생이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에게 귀의함으로써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현실세계의 상황을 스스로의 눈에도 비치도록 한 것이다. 사자암 비로전은 작은 〈화엄경〉이다.

가깝고도 먼 길, 적멸보궁

길은 아직 남았다. 사자암은 사자암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 상원사 적멸보궁으로 간다. 이번엔 비로전에 들러 비로자나부처님께 길을 묻는다. 보궁으로 가는 길과 아직도 풀리지 않는 길들을 다시 묻는다. 법신불의 설법을 따라 길을 시작한다. 사자암에서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은 자장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길이다.

"그대의 본국 동북쪽에 오대산이 있는데, 일만의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고 있다오. 그대는 가서 뵙도록 하시오"

자장 스님은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만나고 싶어 636년에 당나라에 들어갔다. 스님은 7일 동안의 기도를 마친 후 문수보살을 친견했고 보살로부터 부처님 정골사리를 받아 돌아왔다. 스님은 문수보살이 일러준 길을 찾아 걸었고 그 길 끝에 부처님의 흔적을 모셨다.

상원사 적멸보궁은 통도사, 봉정암, 정암사, 법흥사와 함께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하나다. 모두 자장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된 불사다. 그 옛날 자장 스님이 걸었던 발자국을 생각하며 걷는다. 길은 계단길이다. 길을 걷는 내내 독경 소리와 108배 참회문이 들려온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참회문이 따라온다. 일 보 일 보는 이제 일 배 일 배가 되어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 절 일 절 참회문이 들려올 때마다 많은 생각이 인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길은 멀지 않은 길이지만 길은 먼 길이다.

무거운 발걸음이 나의 것임을 알게 됐을 때 쯤 108배 참회문이 끝나고 길도 끝이 났다. 보궁의 지붕이 파란 하늘에 걸려 다가온다. 길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싫든 좋든 나를 보아야 한다. 법신불이 일러준 대로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 보궁 뒤로 부처님의 흔적이 있다.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증표로 사리탑비가 세워져있다. 먼저 올라온 대중과 함께 걸어온 대중들이 부처님의 흔적을 더듬고 있다. 모두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각자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 그 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멀리 오대산 위로 뭉게구름이 모였다 흩어진다. 그리고 또 구름이 되어 만난다. 구름이 흩어지듯 이제 다시 각자는 각자의 길을 시작한다. 하나 둘 산을 내려간다. 다시 자장 스님의 발자국 위에 발을 포개며 산을 내려간다. 길이 있다는 것에 다시 많은 생각이 인다. 멀리서 새들이 날고 내 마음도 벌써 먼 곳으로 사라진다.

오대산 중대 사자암 가는 길

중대 사자암은 상원사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목이다. 사자암을 간다는 것은 적멸보궁으로 간다는 것이다. 상원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통 걸음으로 약40분 거리다. 상원사 주차장에 차를 두고 이정표를 따라 걸으면 된다. 먼 순례를 작정했다면 월정사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는 약 10km 길이다.



순례, 내 안 '佛心' 찾는 여행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㉗ 41~43번 사찰까지 여정 〈上〉



41번 류코지 전경. 계단 위의 신사가 본래의 본당으로 일본 특유의 '신불습합' 신앙을 보여준다.

시코쿠 유명세로 순례자 급증
포장도로 실망하는 사람 많아
주위 풍경 관심은 반쪽 순례

41번 류코지 '신불습합' 전형
신사에 사찰 속한 神宮寺 해당
부처님께 더 다가기 위한 신앙



류코지에서 부츠모쿠지로 향하는 언덕길.

두 사람이면 꽉 차는 좁은 휴게소에서 4사람의 순례자가 다닥다닥 붙어 잠을 청했다. 우와지마(宇和島)시의 입구에 해당하는 마츠오 터널 위의 순례자 휴게소는 앙증맞은 벽화로 곧잘 시코쿠 순례 서적이나 지도에 등장하는 곳이다.

88번에서 1번을 향하는 역순례(逆打ち)를 한다는 초로의 순례자는 아직 밤이 물러가기도 전에 조용히 자리를 정리해 나갔고, 홋카이도 콤비와 나는 6시쯤 되어 부스스 일어났다. 오늘은 33km 정도 떨어진 43번 메이세키지(明石寺)까지가 목표다.

예로부터의 순례길은 휴게소를 끼고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지만 하루에 평균 30km를 무거운 짐과 함께 걷는 노숙순례자로서는 아침부터 힘을 빼고 싶진 않다. 길을 내려가 터널을 통과해 순례길로 나아간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옛 순례길을 따라 걷고 싶어 각 사찰이나 지역주민들께 물어가면서까지 옛길을 찾아 다녔다. 하지만 중세에 각 지역을 연결하던 가도(街道)가 순례길로 사용되었고, 근대가 되어 그 길이 차도로 포장이 되면서 옛길을 찾아 걷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그냥 차도 옆을 따라 걷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어진다. 정확힌 어느 길을 걸어도 순례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에히메현 어딘가에서 만난, 도보 120회째라던 초로의 도보 순례자는 "어느 길을 걸어도, 부처님의 마음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순례길"이라며, 시코쿠 순례를 뜻하는 단어 '헨로(遍路)'란 시코쿠의 가장자리를 걷는 길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해 줬다. 실제 시코쿠 순례지도 전도를 보면 시코쿠 섬의 둘레를 따라 둥근 원이 그려져 있다.

시코쿠 순례길이 유명해 지면서 국내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순례길이 소개 됐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시코쿠를 찾는 많은 여행자들이 순례길이라는 이미지에서 고즈넉하고, 흙이 깔린 자연의 길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품고 온 이들의 후기는 하나같이 "기대와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도로였다"라는 말이 나오길 마련이다. 순례길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도 시코쿠처럼 많은 길이 포장도로란 말을 들은 적 있다.

물론 산길이나 도시를 우회하여 걷는 길 가운데는 옛 길이 그대로 남은 곳도 있고, 지자체나 마을이 가꾸고 보존하는 길도 있다. 개중에는 기록에만 남은 길을 다시 복원해 만든 곳도 있다. 하지만 단지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고즈넉함을 느끼기 위해서만 이 길을 찾는다면 '순례'의 가치는 사라지고 만다. 순례의 가치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잊고 있던 영적인 가치를 찾기 위한 여정이다.

그 순례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길'이다. 선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본다"는 말이 있다. 즉, 순례길이란 순례의 가치를 찾게 하는 도구인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길과 그 주변 환경만을 보고 시코쿠 순례를 떠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결여된 반쪽자리 여정이다.

터널을 나와 3km 쯤 더 걷자 주택가 한 가운데에 마메키다이시(馬目木大師)라는 대사당이 나온다. 옛날 코보대사님이 당신의 나무지팡이를 꽂은 것이 싹이 터 나무가 자랐다는 전설이 있다. 휴식을 가질 겸 배낭을 풀어 내린다.

어깨를 풀며 주변을 둘러보다 대사당 앞에 어지럽게 떨어진 낙엽이 신경 쓰여 발로 쓸어 본다. 그걸 본 코에이씨가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어디선가 대빗자루를 가져왔다. 남자 셋이서 비질을 하니 5분도 안되어 경내가 깔끔해 졌다. 내친 김에 처마에 낀 거미줄도 치우고, 지저분해진 향로와 촛대도 최대한 정리를 한다. 청소를 끝내고 예불까지 모시고 나니 아침부터 뿌듯한 마음으로 힘이 생긴다.

우와지마 시내를 지나는 길은 이정표가 잘되어 있고, 시가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길을 헤맬 일이 없지만, 역시 도시를 지나는 길은 조금 머리가 아프다. 산길이나 시골의 순례길에 비하며 앉아서 쉴 곳이나, 그늘이 드물어 힘들다. 특히 골목골목을 지나는 길들이 이어지다보니 답답한 마음까지 생긴다. 구불구불한 골목길들 사이에서 기가 죽을 무렵 다시금 한적한 길로 들어선다. 교외로 빠져나가니 이번엔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길이다. 그저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41번 류코지(龍光寺)로 안내한다.

41번 류코지는 일본불교의 특징 중 하나인 신불습합(神佛習合)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찰이다. 신불습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산신과 칠성처럼 '민간신앙이 불교로 흡수된 것' 정도로만 말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민간신앙, 내지는 전통종교 정도로 이해되고 있지만, 일본의 신사와 신토(神道)는 역사와 규모가 거대한 종교다.

신토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동북아시아판 힌두교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야오요로즈노카미(八百万神)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이 종교로 발전한 것이 신토이다. 야오요로즈(八百万)라는 말이 많이 오해 되는데 실제로 제신이 800만 위(位)가 있다는 뜻이 아닌, 그만큼 많은 신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일본은 도시나 시골을 물론하고 길가 여기저기에 작은 사당과 신사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신토는 6세기경 불교가 들어오면서 한 차례 사상적, 의례적인 면에 변화가 되고 여기서 일본만의 독특한 신앙인 신불습합(神佛習合), 본지수적(本地垂迹)설이 생겨난다. 즉 일본불교에도 신토가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불교와 문화에 중요한 축으로 근대에 까지 내려오게 된다.

신불습합에서 중요한 사상인 본지수적설의 골자는, 너무나도 높아서 범접하기 어려운 부처님(本地)이 민중을 위해 다가가기 쉬운 형태인 신의 모습(垂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왕가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은 밀교의 본존불인 대일여래(大日如來; 비로자나불)의 화신으로, 무예의 신인 하치만(八幡)은 아미타불등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또 여기에 더해 권현(權現)이라는 일본만의 존격도 생겨난다. 권현이란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편을 가지고 임시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일본 신토의 신들을 불교에서 말하는 신중, 또는 호법신으로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그리하여 사찰에서 신사를 모시고 관리하거나, 신사에서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올리는 등의 모습이 생겨났다. 절에서 신사를 관리할 경우 그 절을 벳토지(別当寺), 반대로 절이 신사에 속할 경우 진구지(神宮寺)라고 불렸다.

41번 류코지는 바로 진구지에 해당하는 사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기설화가 전해진다. 코보대사께서 시코쿠를 돌던 중 이 지역에서 볏단을 짊어진 백발노인과 마주다. 젊은 장정들도 들기 힘든 볏단을 가뿐히 들고 가던 노인은 코보 대사를 보곤 "나는 이곳에 사는 이인데, 불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이익을 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곤 홀연히 사라졌다.

이에 대사는 오곡의 신인 이나리(稲荷)신이 화현했음을 알아차리고 노인이 사라진 곳에 류코지를 창건, 시코쿠 88개소 전체를 수호하는 도량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기설화로 인해 류코지는 다른 사찰들과는 달리 산문은 신사의 문인 도리이(鳥居)가 서있고 인왕상 대신에 고마이누(狛犬)라 하는 사자상이 모셔져있다.

이렇듯 불교와 신토가 평화롭게 공존하던 신불습합은 근대 들어 산산이 깨어진다. 메이지 유신으로 들어선 신정부는 일왕의 권위를 세우고 그 옛날 일본의 역사에 나오는 제정일치의 이상을 세우기 위해 일왕의 신성성을 강조, 새로운 일본의 정신적 중심을 세우기 위해 국가신토(國家神)가 탄생하게 된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흔히 언급되는 신토의 모습이다. 예를 들어 일왕은 살아있는 신이며, 일본은 일왕이 다스리는 신의 나라. 이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일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신토는 정부의 지원 하에 전통적인 신토 신앙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다. 또 그동안 당연시 됐던 신불습합과 본지수적설을 폐지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불분리령(神佛分離領)'. 이로 인해 벳토지와 진구지는 아예 폐사되거나 절 혹은 신토 한 곳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이에 사라진 사찰과 법당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파괴된 불상, 불경, 법구 등이 해외로 반출되기도 했다. 시코쿠 88개소 가운데에도 이때 일시 폐사됐던 사찰이 다수 존재한다.

류코지도 이때 신사와 사찰이 나뉘게 되었다. 본래 본당이었던 전각이 이나리 신사로 전용되었고, 바로 아래 대사당이 있던 곳에 본당을 새로 세워 새로운 류코지가 세워졌다. 그래서인지 처음 이곳을 순례 왔을 때엔 사찰이 아닌 신사라고만 생각해 눈앞에 두고도 찾질 못했었다. 한편 분리된 이나리 신사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분위기가 물씬 났다.

사찰측에 문의해보니 이미 별개의 종교로 분리가 됐고, 신사를 관리하는 신관은 다른 동네에 살면서 제사가 있을 때만 신사를 들린다고 한다. 또 신사와는 별개로 본당의 한 쪽에 이나리신을 모시고 있다고 하니 신불습합의 옛 모습이 돌아 온 듯했다. 실제 시코쿠 순례길 외의 지역에서도 옛날 신불습합 시대의 모습을 부활시키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자유기고가〉

인생 네비게이션! 제갈량의 지혜 익히고 미래 보는 눈, 慧眼(혜안) 여는 과정에 초대합니다.



원장/주임교수 爽廈(석하) 소 재 학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석박사과정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교수
KOFS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및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위원장
ROTC중앙회 부회장 겸 논설위원, KAIST S+ AMP수료
건곤(乾坤)풍수지리학회 회장, 한국풍수문화원 원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충북) 자문위원
Earist University SAP학장 역임, 4차산업혁명포럼 고문
동방대학원 교수/ 발전위원장 역임, 미래예측포럼 고문
한컴그룹 자문, 서울신문STV그룹 고문, GFCA 원장
동양미래예측/ 풍수지리 컨설팅그룹 회장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찾는 지혜,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제9기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9월 5일 목(木) 개강 및 공개 특강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과정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마스터 과정

·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 과정
· 慧眼(혜안)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명리학, 왕초보도 1년이면 OK!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다.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 근거없는 비법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모든 이론 정확한 성립원리 공부
· 인연법, 궁합법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 정확히 분석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 타고난 선천 성격 진로적성 분석법
· 현대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강사 및 진로적성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렵지 않게 성공시기 분석



※수업 매주 목(木) 18:30~21:00

풍수도 논리로 푼다. 공간(空間)의 철학 자연과학 풍수지리(風水地理), 제6기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9월 9일 월(月) 개강 및 공개 특강

내 땅 내가 본다. 풍수지리의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비법 찾아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없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기본 개념과 원리 위주 수업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교수진 직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 지도교수 노승우 박사 | 지도교수 세 준 박사 | 지도교수 지종학 박사

· 100세 시대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학문
· 부동산 풍수, 양택 풍수, 음택 풍수, 기(氣) 풍수, 생기(生氣) 흐르는 좋은 자리 찾는 법, 살기 수맥 피하고 막는 법 외

※수업 매주 월(月) 18:30~21:00

2학기 과정 (마스터까지 무료 재수강 가능) GFCA 사무국 www.gfca.kr 02-585-0079 교육상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1~8/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대방광불화엄경 실마리	무비스님	담앤북스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비움과소통
3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정진원	조계종출판사
4	부처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일아스님	불광출판사	9	금강경 요해	노우스님	운주사
5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조계종 신행수기 공모당선작)	법보신문 편집부	모과나무	10	사성제 팔정도	캔뽀 아왕상뽀	자리이타

“불교가 인류에게 던진 화두… 행복, 나눔, 비움”



오대산에서 보낸 편지

정념 스님 지음/불광 펴냄/1만 9천원



월정사 주지 소임만 15년째인 정념 스님. 아직도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에는 산문 밖 출입을 삼가고 수좌들과 함께 선방에 엉덩이를 붙이고 참선에 몰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오대산 스님’이 보낸 41통의 편지

1980년 오대산서 처음 삭발 한 이래 이제 꼭 만 40년. 아직도 오대산을 떠나지 않는 스님이 있다. 바로 정념 스님이다. 찾아오는 이 많고 오라는 데 많은 큰 절 월정사 주지 소임만 15년째다. 하지만 아직도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에는 산문(山門) 밖 출입을 삼가고 수좌들과 함께 선방에 엉덩이를 붙이고 참선에 몰두한다.

이 책에는 오대산서 40년을 보낸 정념 스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흔한 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념 스님이 각종 법회와 강연 그리고 성지순례 기간 중에 들려주었던 법문을 다시 편지글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통 스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책으로 엮인 내용은 ‘행복’ ‘비움’ ‘나눔’이라는 큰 틀서 벗어나지 않는다. 2,500년 동안 불교가 인류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특히나 요즘 출간되는 책들은 그 형식을 위로나 위안으로 잡고 있고 그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거나 관점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념 스님이 보낸 이 서간문들은 이와는 결이 좀 다르다. 이 책 역시 바탕에는 ‘행복’ ‘나눔’ ‘비움’이라는 세가지 주제들을 내포한다. 하지만 위로나 위안보다는 ‘시대정신’을, 그 방법으로 관점을 바꾸라는 조언보다는 ‘더불어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스님이 편지글에서 강조한 것은 세 가지다. 바로 명상, 대화와 경청 그리고 평화와 화합이다. 이 화두들은 어찌 보면 행복과 나눔 그리고 비움을 실천하는 지침들일 수 있지만 또한 21세기도 이제 2할을 넘어가는 이 시대에 종교, 그리고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걸 불교의 ‘그랜드디자인’이라고도 부른다. 명상, 대화와 경청 그리고 평화와 화합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돌아보는 것뿐 아니라 현재서 미래까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별 묶은 41통 편지글 소개
대화, 경청, 평화와 화합 강조
불교가 지향할 그랜드 디자인

편지에 첨부된 3백여 장 사찰 일상 사진

스님이 명상, 대화와 경청 그리고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벌여놓은 숙명같은 공업(共業)의 더미가 때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 버렸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와 너, 남북 그리고 세계질서 속에서의 갈등은 물론 환경, 빈부 갈등 등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당장 우리 공동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념 스님은 법문 속에 불교의 교리나 선사들의 선문답 그리고 고사를 인용하며 이런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다.

또 하나, 스님이 보낸 편지에는 흥미로운 사진들도 동봉돼 있다. 글과 함께 실린 200여 장의 컬러 사진은 절집의 하루, 그리고 절집의 365일이 빼곡하다. 기상하고, 예불하고, 공양하고, 청소하고, 참선하고, 포행하는 월정사의 24시 그리고 사계절이 한눈에 보인다. 오대산 적멸보궁을 오르는 길이나 눈 쌓인 서대 염불암, 그리고 청량한 부도밭 사진은 그 자체로도 말없는 설법이다. 당신에게 부친 마흔한 통의 편지를 하나씩 뜯어보기 바란다. 물론 답장은 필요 없다. 스스로 간직하면 되고, 세상과 나누면 된다.

불교계 히트상품 중 하나인 단기출가학교

19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소위 불교계 그리고 조계종이 만들어낸 3대 히트상품으로 회자되는 것이 있다. 가장 멀리는 1996년 연등축제다. 이전까지 제등행렬로 불리며 단순히 등을 들고 행진하던 행사서 참여와 체험 행사로 진화를 하면서 등을 든 10만의 행렬은 물론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의 각광을 받는 행사로 변모했다. 이제는 연등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국가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됐다.

두 번째는 템플스테이다. 2002년에는 월드컵과 연계해 처음 기획 시도된 템플스테이는 누구나 산사서 휴식을 취하고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인원 50만 명, 누적인원 500만 명을 돌파해 ‘국민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거론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바로 2004년부터 시작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다. 사찰에서 약 한 달간 출가자와 동일한 일정과 과정으로 ‘스님’이 되어 보는 것이다. 누가 한 달이나 시간을 내서 그럼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벌써 50회를 넘겼고 3천 명이 넘는 참여자를 배출했다. 더 대단한 것은 참여자 중 실제 출가자가 300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10명 중 한 명은 출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출가자 감소에 종단의 걱정이 늘어나는 시대에 역발상을 통해 이룩한 프로그램이다. 특히나 연등회나 템플스테이가 범불교계나 불교계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행사인 반면 단기출가학교는 월정사라는 개별 사찰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이 바로 2004년 월정사 주지로 부임해 15년 동안 오대산을 지키고 있는 정념 스님이다.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눠 구성돼 있다.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들도 계절에 맞게 편집해 실어 편지에 대한 맛을 돋워준다. 계절에 맞게 펼쳐 읽으면 마음속 한구석에 따뜻한 기운이 점점 스며듬을 느낄 수 있는 감로법문들로 가득하다.

▲저자 정념 스님은?

1980년 탄허 큰스님의 전법 제자인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계했다. 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오대산 상원사 주지를 맡아서 대중교화를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제 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를 이끌면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재정립중이다.

2004년 오대산 월정사 주지를 맡아 ‘단기출가학교’ ‘자연명상마을(2018)’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등 선진적 시도들을 하고 있다. 참선 수행을 중시하는 스님은 한암 스님의 자취가 서린 상원사 청량선원을 복원했고, 2008년에는 월정사에 만월선원을 개원했으며, 또한 일반인들을 위한 문수선원과 동림선원을 개원해 오대산을 새로운 ‘선종산문’으로 만들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동국대 이사, 불교 TV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거나 맡아서 한국불교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환수 받아 온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았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세상을 떠나 어찌 불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쓰임새가 없었다면 불교는 25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교는 파도처럼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먹구름처럼 어둡고 탁한 마음을 맑히는 데 가장 유용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병은 자기와 세상을 명료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교는 자기의 세상을 바로 보는 데 가장 지름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프롤로그 中에서〉

▲월정사 현판에는 ‘설청구민(說廳俱泯)’이란 어귀가 있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너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너의 생각은 곧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곧 너의 생각이면 나와 너라는 구분마저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 그곳이 바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토이고 천상세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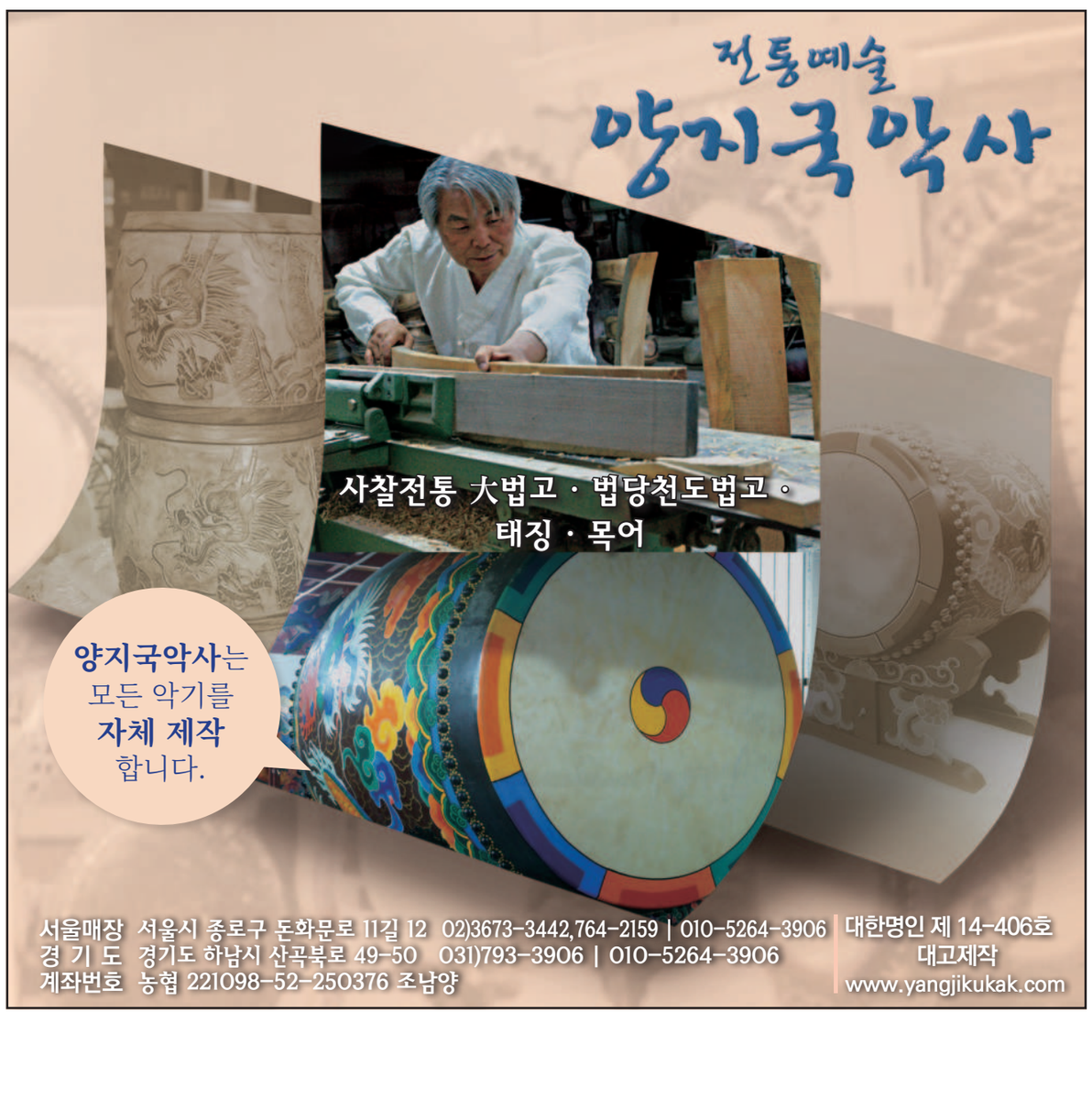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뿐이라는 역설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넓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넓은 안목이란 곧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시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그 ‘나’를 지탱하고 있는 주변의 ‘너’까지 두루 살피고, ‘현재’만 보지 말고 이 현재를 만든 ‘과거’와 이 현재가 만들어가는 ‘미래’로 시야를 확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넓은 안목입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와 ‘나의 것’들은 몽땅 ‘너’와 ‘너의 것’에서 흘러온 것이 됩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의 ‘나’와 ‘나의 것’들은 몽땅 ‘너’와 ‘너의 것’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이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놓아야 할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감사함을 표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몽땅 세상에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것이라며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흥망성쇠의 물결 따라 출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흥망성쇠의 물결 따라 기쁨과 슬픔을 끝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미륵도량 금산사 성보문화재 첫 서울 전시

'모악산 금산사-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 展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9월 3일~11월 30일
금산사 5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118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호남지역 사찰을 대표하는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9월 3일(개막식 오후 3시)부터 11월 30일까지 2019 특별전 '모악산 금산사-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를 개최한다.

금산사의 성보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보물 9건, 유형문화재 8건, 등록문화재 1건, 민속문화재 1건을 포함하여 총 94건 118점의 성보문화재를 전시한다. 특히 대중들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금산사 5층석탑에서 발견된 불상들과 금산사 말사 문화재를 대표하는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심곡사 7층석탑 발견 불상, 위봉사 구천오백불도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미륵성지의 토대를 마련한 진표율사와 미륵도량의 구현을 보여주는 미륵전 벽화공개, 혜덕왕사 주석시절 법상종의 종찰로 찬란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집결지가 된 이래 왜군의 보복으로 사찰 전역이 소실된 후 사찰 재건을 위한 스님들의 노력과 재건된 금산사의 모습, 금산사 말사의 성보문화재, 근현대 금산사의 모습 등을 담아내어 금산사의 찬란한 성보와 금산사를 이끈 수행자들의 모습을 재조명한다.

아울러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과 연계하여 9월 19일 오후 3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금당사괘불(1692년, 보물 제1266호)'의 공개식을 열고 약 2주간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미륵의 도량 금산사'에서는 '모악산 금산사 편액(조선 후기)', '미륵전 벽화(조선 후기)', '미륵전 법화림 보살상 복장유물(조선 후기)' 등이 전시된다. 금산사는 599년 자복사(資福寺)로 창건됐다고 전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나 유물은 없다. 진표율사가 금산사의 숭제법사에게 출가했다는 기록과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활동한 의적(義寂 · 681~?) 스님이 금산사에 머물렀다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당시 금산사가 창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산사가 대사찰의 면모를 갖춘 것은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가 주석하면서 부터다. 진표 스님은 미륵전을 짓고 미륵장륙상을 조성했으며 해마다 단(壇)을 열어 법시(法施)를 베풀었다.


1971년 금산사 5층 석탑 해체 수리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2부 '금산사를 일으키다'에서는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탁본(고려, 보물 제24호)', '금산사 5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조선)', '뇌묵대사 처영 진영(조선 후기)' 등이 전시된다.

고려에 들어 혜덕왕사 소현(1038~1096)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금산사는 확장됐다. 현존하는 방등계단, 석련대, 노주 등 중요 석조물들이 모두 이때 조성됐으며, 경전 간행과 법석을 주관하는 광교원이 설립됐다. 특히 금산사 5층석탑은 미륵전 위 방등계단과 함께 자리잡고 있는 고려시대 석탑으로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모악산금산사오층석탑중창기'와 더불어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금산사는 임진왜란 때 뇌묵 처영을 중심으로 한 의승군 활동의 중심지였다. 뇌묵 처영은 청허 휴정, 사명 유정, 기허 영규 등과 함께 대표적 의승장으로 손꼽히는 인물로 한국전란사의 위인으로 칭송된다.

△3부 '천년고찰 금산사의 본말사 성보'에서는 '금당사 괘불(1692년, 보물 제1266호)', '실상사 백장암 보살좌상(조선 초기, 전북 유형문화재 제166호)' 등이 전시된다. 금산사는 1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명찰이다. 금산사 일원은 사적 제49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산사와 더불어 금산사의 말사도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들이다. 금산사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방화로 모든 건물과 산내의 40여 개 암자가 완전히 소실되는 등 수난을 겪었으나 이후 많은 문화재가 조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금산사성보박물관은 1998년에 설립되어 보관이 어렵거나 도난 훼손 등의 위험이 있는 본 · 말사의 성보 문화재를 보존 · 관리하고 있다.

△4부 '근현대 금산사(사진, 영상전)'에서는 '공주 신원사 소림원 여래입상(1935년, 등록문화재 제620호)'를 비롯해 금산사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이 소개된다.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을 대표하는 명찰로 자리 잡은 금산사는 1935년 3월 큰 화재로 미륵전 본존불이 전소되는 등 수난을 겪는다. 당시 공모전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복원불사를 진행했다. 작가로 선정된 김복진 조각가는 새로운 재료인 석고를 이용하면서도 전통을 계승한 미륵대불을 완성했다.

금산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때 진표 율사에 의해 중창되어 미륵성지, 유가종찰로 오늘에 이른다. 금산사는 1400여 년을 이어온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긴 시간 속에서 혜덕왕사를 비롯한 불교계 대표 고승을 배출했으며, 국보 제62호 미륵전과 거대한 미륵불상은 호남지역 민초들의 애환과 희망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뇌묵처영대사가 전공을 세웠던 도량이다.

펜화로 옮긴 우리 가람 풍경들

김영택 펜화 미황사 초대전
미황사 8월 30일~9월 30일
대장암 투병 미황사서 정진

한국 펜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불교건축물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물과 세계 건축물의 아름다움까지 펜화를 통해 알리고 있는 김영택 화백이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남 해남 미황사 자하루에서 초대전 '김영택 펜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황룡사 9층대탑 복원화, 달마산 미황사 등 20여 점의 국내 건축물 작품과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등 20여 점의 해외 건축물 작품이 전시된다.

카메라 렌즈와 인간의 시각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개발한 '김영택 화법'으로 그린 '달마산 미황사'는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사진과는 또 다른 현장감을 선사한다. 황룡사 9층대탑을 비롯하여 로마 콜로세움에 이르기까지 사라지거나 크게 훼손된 문화재들을 펜화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김 화백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 방대한 자료축적이 이룬 결과다.


김영택 作, 달마산 미황사.

김화백은 한국, 중국, 일본 및 서구 건축문화재를 펜화로 옮기면서 '전통한옥을 통한 한국인의 특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김 화백의 펜화가 단순한 묘사가 아닌 건물에 담긴 장인의 심성까지 그려냈기 때문이다.

2003년 통도사 펜화 달력으로 불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후 범어사, 송광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에 100만부가 넘는 펜화달력을 발간하여 불법홍포에 큰 힘을 보태온 김 화백이 땅끝마을 미황사에서 대표작품 40점을 전시한다.

김 화백은 현재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미황사에 머물며 작업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펜을 잡는다. 요즘은 화엄사 각황전을 그리고 있다.

"주지실보다 더 좋은 지도법사실을 내준 금강 스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 속에 있으니 병마는 분명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화백은 펜 하나로 병마와 마주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바라오페라단 음성공양 '성불 이루리'

불자성악가 4인 4색의 향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9월 8일 오후 4시

불교계 유일한 오페라단인 바라오페라단은 9월 8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19 불자성악가 4인 4색의 향연 '성불이루리'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인 이번 공연은 불법 인연의 소중함과 성불을 향한 정진과 포교의 원력을 담아 대중에게 올리는 음성공양이다.

공연은 봉원사 · 육지장사 · 청룡사 · 포교사단서울지역 연합합창단과 소프라노 김양희, 메조 소프라노 연정연, 테너 이준형, 테너 허철영이 출연해 '불법인연 높습니다(지원 스님 작사, 정부기 작곡)', '석불의 빈손(황학현 작사, 박이제 작곡)',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성철 스님 작사, 박이제 작곡)' '성불 이루리(법운 스님 작사, 강영화 작곡)' 등 14곡을 선보인다.

불자성악가로 구성된 바라오페라단은 진취적이고 섬세한 음악세계와 자신감 넘치는 탄탄한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은 물론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불교계 유일한 오페라단이다. 오페라단은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각종 연주회에서 왕성한 활동, 친숙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찰의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공연에서 독특한 음악적 컬러와 곡해석,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불국사 건립 사상, '석존 귀향설법' 기반"

남동신 교수, 22일 신라학 국제심포지엄서 주장

김대성 불교적 효행 원력 담겨
석존 귀향해 父王에 설법 일화
최고 불교 효행… 건축적 재현
唐 대명궁 등 中왕궁 건축 차용

경주 남산 · 헤이죠노 사원 비교
韓日 불교학자 10명 주제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 건립의 사상적 기저로 〈법화경〉과 〈화엄경〉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하지만, 불국사 건립 불사는 '석가모니 귀향설법' 을 최고의 불교적 효행으로 보고 이를 건축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김대성의 효심과 원력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국립경주박물관이 8월 22일 '금성(金城)의 남산과 헤이죠쿄(平城京)의 동산(東山)-왕경주변의 산림사원에 대한 한일 비교' 를 주제로 박물관 강당서 개최한 신라학 국제심포지엄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동신 교수는 '불교적 이상세계로서의 불국사' 에서 8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불국사가 왜, 무엇을, 어떻게 건립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상 김대성은 현생의 부모의 명복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빌고자 했고, 이를 위해 불교적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불국(佛國)' 이라는 사명을 가진 사찰을 건립하게 됐다.

그렇다면 김대성은 어떤 사상을 근간해서 불교적 이상세계를 사바세계에 건축적으로 재현하고자 했을까. 남동신 교수는 '불국' 의 의미를 역사상 실재하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라와 대승불교에 등장하는 시방삼세불의 나라로 구분했고, 이중 전자가 '불국' 의 배경이 된다고 봤다.

전자의 나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국이자 부왕 정반왕이 다스리는 카필라성(Kapilavastu)으로 남동신 교수는 이를 배경으로 한 '석존의 귀향설법' 에 주목했다.

석존의 귀향설법은 부처님이 정각 후 6년 뒤 정반왕의 요청으로 고향에 방문해 니그로다숲과 왕궁에서 석가족에게 설법한 일화이다. 문헌에 따라서 귀향 시기, 설법 내용, 장소 등은 들고남이 있지만 〈불본행집경〉 〈불소행찬〉 등 주요 불전문학, 이를 중국 승려들이 재구성한 〈석가보〉 〈석가씨보〉 등에 빠짐없이 나타난다. 이들 문헌은 김대성 당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널리 유통됐다.

남동신 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표다. 불자인 김대성이 현생 부모의 명복을 빌겠다고 발심했을 때 그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불교적 효행은 '석존의 귀향설법' "이라며 "그가 구현하고자 한 불교적 이상세계는 바로 카필라성에서의 부처님의 설법으로 불국사는 이를 건축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님의 고국 카필라성을 불국으로 본 김대성은 이를 당시 중국의 왕궁을 통해 건축적으로 재현하려 했다. 7~8세기 당시 인도 카필라성을 다녀왔던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서는 일대가 황폐해졌음을 알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건축적 모델을 찾기 어려웠다. 남동신 교수는 불국사의 정면(Facade)를 통해 유추했을 때 중국 왕궁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장대한 대(臺)와 '출(出)' 자형 포국(布局)을 살펴보면 수당대 황궁 건축을 대표하는 인수궁(구성궁)과 대명궁 함원전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세속적 왕궁 건축을 차용했지만 불교식으로 장엄하는 장치로서 백운교 앞에 있었던 연지가 있었다. 불국사의 건축물과 이것이 연지 수면에 비치게 함으로서 불국사는 청정한 불국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관련 학자 10명이 신라 왕경의 남산과 일본 헤이죠쿄 동산의 불교사원을 비교하는 연구 논문들을 발표했다.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신라시대 경주 남산불적의 의의' 를 통해 남산이 불교의 성지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산신(山神)이 거처하는 영험한 곳이었음을 강조했다. 삼화령의 미륵불이 위치한 고갯마루는 토착신앙에서 장승의 위치와 같은 점, 그리고 차를 공양하는 날이 4월 초파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명절인 삼짇날(3월 3일)이었던 점에 주목하며 "불교문화의 시대에도 기존의 토착신앙이 온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단장은 '남산불적의 조사상황' 에서 남산을 불국토이자 만불산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불국토 남산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이라며 "곳곳에 석탑, 불상과 사원이 조성된 것은 귀족 자신이나 가족의 복을 비는 기복에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밖에도 일본 측에서는 다나카 도시아키 前 시가현립대학 교수, 요시카와 신지 교토대학 교수, 후지오카 유타카 오사카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일본 산림사원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서양은 어떻게 불교를 발견했나

리앤원, 8월 30~31일 국제학술강연 · 워크숍

석학 로페즈 · 포르 교수 초청
서구 불교 인식 변화 조명


도널드 로페즈


베르나르 포르

근대를 전후로 서구에 불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정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리앤원(이사장 원재연)은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서양의 불교 발견' 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 · 티베트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도널드 로페즈(Donald Lopez) 미국 미시간대 교수와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컬럼비아대 교수가 초청돼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한다.

도널드 로페즈 교수는 티베트 · 인도 불교 · 근대 불교를 문헌학 · 철학 · 문화사적으로 접근하며 폭넓은 연구를 펼쳐왔다. 미시간대 불교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자립논증파의 연구〉 〈인도와 티베트 주석서를 통해 본 반야심경〉 등 22권의 저서를 썼으며, 한국에는 〈샹그릴라의 포로들: 티베트 불교와 서양〉이 번역 · 출간됐다.

포르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전문가로 현재는 컬럼비아대 불교 및 동아시아종교연구소장이다. 그는 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현대 프랑스 사상을 접목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초기에는 동아시아 선불교 연구를 중점해 왔으나, 최근에는 일본 밀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서 〈중세 일본의 신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동양종교와 죽음〉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가 소개된 바 있다.

이번 학술행사는 워크숍과 강연회로 나눠 진행된다.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대 인문대학 보름홀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어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 포르 교수는 '일본 불교에서 본 붓다의 열반' 을, 로페즈 교수는 '중국 청대 궁정의 티베트 불교철학' 을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8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는 서양의 불교 인식 변천을 확인할 수 있는 석학들의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 강연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다.

강연에서 로페즈 교수는 '초기 유럽의 석가모니에 대한 인식' 을 통해 근대 이전 유럽인들의 문헌 속 붓다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어떻게 근대불교학으로 이어졌는지를 조명한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붓다를 찾아서' 를 강연하는 포르 교수는 신화와 실증이라는 근대 불교 연구 속 붓다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조명하며, 이를 통한 이상적인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행사에 대해 리앤원은 "2016년부터 매년 불교와 불교미술 분야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세계적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 불교와 불교미술 관련 학계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학술적으로 기여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02)2261-1382

신성민 기자

탄허강숙, 2학기 수강생 모집

9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승기신론' 등 강의

'대승기신론' 등 한문 불교 경전을 강독하는 강좌가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이 2019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후 7~9시에 진행되는 강의는 △대승기신론 △선문촬요 △능엄경 △선문염송 등 4개 강좌로 이뤄진다.

강사로는 동국대 前 교수 성본 스님,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선암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외래교수 문광 스님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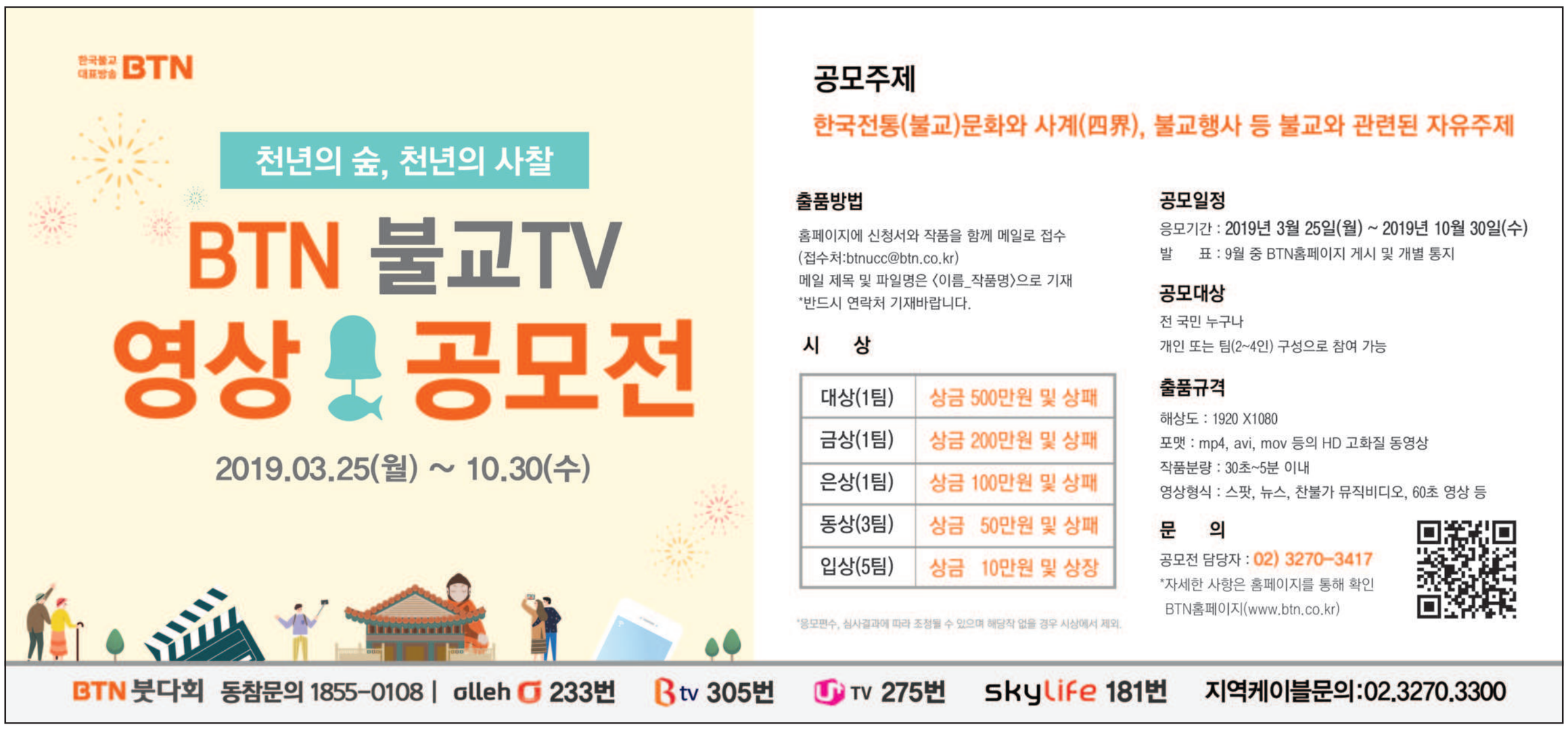
과목당 수강인원은 25~30명이며 개강 전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초심자도 수강 가능하다.

수강료는 과목당 20만원이며, 4개 강좌 수강시 55만원이다. 수강신청은 메일(tanheogangsuk@naver.com)과 전화로 가능하다.

한편, 탄허강숙은 탄허 스님의 교육정신과 인재양성 정신을 계승 · 발전하기 위해 설립된 불교 한문학당이다.

(02)732-2403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부처님 손바닥

석가모니부처님도 보고
비로자나부처님도 보고
문수, 보현, 관음도 보고
돌아가는 길
보고 온 것이 부처가 맞고 보살이 맞는지

새들은 숲에 있고
먼 하늘엔 구름이 간다
손행자여
아직도 여기 있는가?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㊴ 가끼루마 스님

일본 죄업 참회한 일본인 '가끼루마' 스님

1982년 나는 일본 형무소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강연을 했다. 함께 동행한 김도영 장군이 통역을 맡아 줘서 언어의 장벽 없이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쳤다. 김 장군은 강연이 끝나자마자 내 손을 잡고 급히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동경으로 갈것을 재촉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채 나는 김 장군의 안내로 동경 시내 외딴 골목에 있는 다락방 2층으로 안내되었다. 작고 허름한 방 작은 책상에 명패 하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세계만국평화회 총재'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너머에는 초라한 차림의 스님이 앉아 있었다. 얼핏보아 분위기가 꼭 사기꾼 행색 같았다. 하지만 사람의 인연은 모르는 것 같다. 그 스님이 훗날 죽을때까지 평생 도반이 된 가끼루마 스님일 줄이야.

김 장군이 한국서 온 스님인데 일본인 형무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강연을 했다고 소개하자, 가끼루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연발 감사하다고 합장 반배를 해댔다. 하지만 꾀죄죄한 첫 인상에 가끼루마는 정이 안갔다. 그래서 첫 만남 이후 나는 그를 잊었었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 금석 사형수 때문에 그 충격으로 만사가 귀찮았다. 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싫었다. 한 여관방에 홀로 앉아 울고 또 울었다. 내가 교화의 공을 들였던 고금석의 죽음으로 다가선 고통은 당시엔 참지 못할 정도였다. 내가 여관방서 전전긍긍하고 있을때 일본인 가끼루마 스님이 서울을 방문했다. 하지만 나는 그 스님이 싫었다. 스님은 꾀죄죄하고 가난했다. 가난해서 싫어한 건 결코 아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고집이 대단한 스님이어서 피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인 통역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 했던 모양이다. 스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굳이 만나게 해 달라는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3년 동안 만난 사형수의 집행을 보고난 후 여관에 틀어 박혀서 울고 있다' 는 사실을 통역자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 가난한 가끼루마 스님이 돈 오만 엔(50만원)을 주면서 자신은 한번도 본적 없는 죽은 사형수에게 향초라도 사서 피워달라고 전했다. 그 일로 나는 가끼루마 스님에 대한 편견을 버렸다. 가끼루마 스님의 도움으로 나는 여관방을 나왔다. 그리고 가끼루마 스님에게 그 유명한 일본의 이총에 대한 실마리를 꺼냈다

고금석의 죽음이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갈망한 역사적인 이총의 영혼을 모국인 한국으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사스럽고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

2009년 11월, 일본인 가끼루마 스님이 부인 도시마에게 유언을 남겼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없이 떠나는 이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오너라. 미안하다. 남겨주어야 할 물질에 집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회 없이 깨끗이 살다 간다."

가끼루마 스님은 말기 암으로 병원에서 퇴원조치를 내렸다. 집에서 세상을 떠날 때는 편안히 웃으면서 빈손으로 떠났다. 나는 가끼루마 스님이 곧 세상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봄에 그의 얼굴을 보니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건강하나만 믿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열정을 쏟았다. 불같은 불심 하나로 뭉친 그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양심이었다. 그에게는 절, 집, 사무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가끼루마 스님이 죽고 나니 더 존경스러워졌다. 한국을 위한 그의 마지막 열정으로 북관대첩비를 북한으로 넘기고 떠났다. 북관대첩비 인도가 결정되는 마지막 시기에 그는 암 진단을 선고받았다. 수술을 하자는 의사의 권유를 뿌리쳤다. 임진왜란 때 우리의 뼈아픈 치욕을 일본인 손으로 사과하려는 마음에서 그는 자신의 암수술도 거부했다. 임진왜란 당시 치욕인 이총, 비총, 울산동백, 북관대첩비까지 가끼루마 스님의 열정에서 성공적인 귀향을 일궜다.

가끼루마 스님은 자신의 최대 업적 '이총' 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일본인들은 육체보다도 영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북관대첩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암수술을 결정했으나 이미 늦었다. 수술을 포기했다. 그 후 그는 경북 사천에 힘겨운 걸음을 했다. 일생을 담은 '이총' 의 안장식에 참석했다. 호흡이 어려워 조그만 걸어도 힘겨워했다. 그는 삼중 스님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했다. "이총의 안장식까지 마무리 지어주어서 고맙다" 그의 자서전 출판기념일 2008년 1월, 나는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죽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자신 인생의 자랑거리인 이총, 비총, 울산동백, 북관대첩비 등 많은 업적들에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다.

그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 갔다. 하지만 그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부인이 대신해서 나왔다. 암수술을 뒤늦게 해봤으나 수술경과는 그리 좋지 않다고 했다. 부인은 6개월 이상 견디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인 한 사형수가 만들어서 선물해 준 염주를 머리에 대고 누워있었다. 내가 방안에 들어서니 그가 일어났다. 예의가 깍듯한 그는 겨우 일어나서 나를 반겼다. 내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가끼루마 스님을 생각하면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아픈 역사를 대변해준 그의 은덕에 존경심이 절로 솟는다. 평소 내가 가끼루마 스님의 얘기를 자주해서 그 스님의 위대한 행적을 알고 있는 내 제자 현도 스님이 큰 마음을 냈다. 올 11월 17일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경주 자비정사 마당에 가끼루마 스님의 현창비 제막식을 준비중이다.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가끼루마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스승의 마음을 헤아려 세우는 제자의 그 마음이 가을하늘처럼 곱고 아름답다. 갈등이 증폭된 한일 양국 관계에 가끼루마 스님의 이야기가 화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하에서 가끼루마 스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총 앞에서 사죄하는 '가끼루마' 스님. 그는 일본에 있던 이총, 비총, 울산동백, 북관대첩비를 한국으로 이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진왜란때 만행 일본인 손으로 사과
이총, 비총, 울산동백 등 귀향 큰 공헌
11월 17일 '가끼루마' 헌창비 제막 예정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7



8



9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4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